

현수언(前 서귀포불교대학장)
탐라 百年之大計 불사…
불교대학 교육과정 체계화
16·17면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잡보장경〉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신을 낮춰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2월 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28호 2015년 1월 22일 목요일

지하철 '풍경소리' 철거 위기

코레일, 공문 보내 광고비 종용하며 게시판 철거 압박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15년 넘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줬던 지하철 포교 · 문화 콘텐츠 '풍경소리'가 철거위기에 놓였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이하 코레일)는 지난해 12월 26일 풍경소리(대표이사 선묵 혜자)에 공문을 발송해 철도 역사 내 풍경소리 게시판 무상 승인기간이 종료됐다고 고지한 후 1월 7일까지 광고계약 체결 의사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철거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풍경소리 측은 사전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통보하면서 촉박한 기간내에 결정을 종용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이다. 풍경소리는 이 같은 의견을 코레일 측에 전달하며 내부 논의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은 1,3,4 호선 일부구간과 중앙선, 경의선, 분당선, 경춘선 등이다. 여기에 설치된 풍경소리 게시판은 278개역 836개에 달한다.

문제는 코레일이 풍경소리에 공문을 보내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철거를 진행했다는 데 있다. 풍경소리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7일, 각 역에 풍경소리 게시판을 철거하고 이를 12월 9일까지 상부에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경소리가 이를 인지한 것은 12월 3일. 모 역으로부터 액자를 떼기가 힘드니 직접 와서 철거해가라는 전화를 받고나서였다. 이미 1백 개 이상의 게시판이 철거된 후였다.

코레일 "사찰명 있어 광고"
月 1만 6천원 일방적 책정
연간 1억원 비용 가중 부과

풍경소리 "공익을 돈으로?"
종단협 항의 · 자승 스님 서신
개신교 측도 반대 입장 밝혀

풍경소리 이용성 사무총장은 "이는 15년 동안 시민들을 위해 정신적 힐링 매체가 되어준 풍경소리를 한 순간에 불법광고단체로 낙인찍은거나 마찬가지"라며 "공익성을 요구받는 공기업에서 일상의 감동과 지혜를 담은 글의 게시판마저 광고로 간주했다는 것은 코레일이 황금만능주의를 나서서 조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걸린 풍경소리 게시판. 15년 넘게 전국 2천여 개의 역에서 감동어린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있지만 철거 위기에 놓였다.

코레일이 책정한 광고비는 게시판 하나당 월 1만6천원이다. 8백개 이상의 역에 광고하려면 1년에 1억여원을 광고비로 지출해야하는 셈이다. 2, 5, 6, 7, 8, 9호선 등 나머지 노선을 운영하는 지하철공사 측에서 같은 요구를 해온다면 4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상당부분이 후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풍경소리 측에서 이를 부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교계에서도 풍경소리를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풍경소리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종단협의회에서 1월 13일 항의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같은 날 종단협회장 자승 스님은 코레일 측에 풍경소리 철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신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측은 철거지시 이후 항의가 거세지자 "풍경소리 게시판 하단에 사찰명이 기재되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라며 "공적인 기능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사찰명을 삭제하라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용성 사무총장은 "풍경소리를 존속시키기 위해 가능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볼 것"이라며 "풍경소리 게시판에 보내주는 시민들의 지지가 높은만큼 서명운동 등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레일로부터 풍경소리와 함께 철거 대상에 오른 기독교계 '사랑의 편지' 측과도 공동대응을 할 방침이다.

사랑의 편지 사무총장 류중현 목사는 "국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코레일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광고비를 지불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연탄기부 릴레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여러 스님들과 일반인들이 손에 연탄을 그렸다. 쪽방촌 노인들에게 연탄을 기부하기 위해 시작된 '아이연탄맨' 모금캠페인에 참여한 것이다. 손에 연탄을 그리고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하면 지목받은 이들은 5장의 연탄(3천원)을 기부하고 24시간내에 똑같은 포즈를 취한 후 다시 주변인에게 기부를 독려한다. 아름다운동행에서 지난 12월부터 시작한 후로 249명(1월 15일 기준)이 동참했다. 대불련 이채은 회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동참한 자승 스님은 다음 주자로 중앙종회 의장 성문 스님,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 중앙신도회 이기흥 회장 등을 지목했다.

배현진 기자

"소통 · 화합 · 혁신으로 불교 미래 밝힐 것"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14일 신년기자회견

"종단은 안으로는 소통과 화합, 혁신을 기반으로 종단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며, 밖으로는 화쟁을 기반으로 공존과 상생, 합심의 새로운 기운을 우리 사회에 불어넣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종무운영 캐치프라이즈로 '소통과 화합, 혁신으로 종단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의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를 제시했다.

이 같은 기조에 대한 핵심 사업으로는 △종단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지원조성사업 △공존과 상생, 합심의 불교통일선언 등을 내놨다.

100인 대중공사에 대해 자승 스님은 "대중공사는 총무원장 선거 당시 공약 사항으로 종단 운영과 관련한 모든 의견에 귀를 열고자 한다"면서 "비판이든 견제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문을 활짝 열고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민족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 가치를 재창조해나가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불교통일선언'에 대해서는 공존과 상생, 합심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알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노덕현 기자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지난해 발생했던 상좌들의 잇단 승풍실추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범계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는 질의에 자승 스님은 "최근 상좌들이 음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후속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누구라도 범계를 저지르면 원칙대로 엄중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4년 멸빈자 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종정 스님과 원로의장 스님께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계신 만큼,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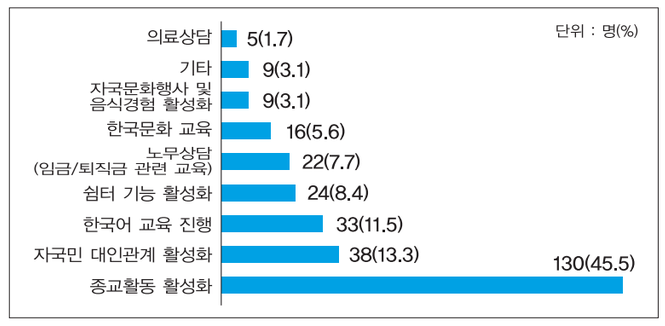
〈해설 2면〉

외국인 노동자의 바람 '종교활동 활성화'

국제전법단 · 마주협
외국인 근로자 조사

응답자 80%가 불교
개종 가능성은 낮아
65% 신행 안하지만
'신행 활성화' 요구 높아

〈표〉 종교기관에 대한 기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불교를 믿고, 자신의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 개종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5%가 신행활동을 못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법회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조계종 국제전법단과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이하 마주협)가 최근 발간한 '불교 법당 이용자 대상 외국인 근로자 기초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국제전법단과 마주협은 외국인 근로자 1000명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했으며, 446명이 조사에 응했다.

이들 결과에 따르면 80%가 불교도였으며, 이중 70%는 자국불교를 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불교와 힌두교는 7%가량으로 집계됐다. 한국 체류 이후 개종한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모국에서부터 믿어온 종교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64%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종교생활 실태는 좋은 편이 아니다. 주1회 이상 종교생활을 하는 비율은 42%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65%는 아예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다. 종교기관에 거는 기대도 '종교활동 활성화(45.5%)'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자국민 대인관계 활성화(13.3%), 한국어 교육(11.5%), 쉼터기능 활성화(8.4%)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상생활 주기에 적합한 맞춤식 종교활동을 고안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종교생활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불가능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 외에도 정부의 제도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는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열두 달 마음 농사의 풍경과
대행 스님의 법어가 함께하는
2015 마음 다이어리





산뜻한 연둣빛 표지로 새롭게 출시된
2015년 다이어리에는 대행 스님의 말씀과
박희진 작가의 그림들이 함께 실렸습니다.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 가는 공간 – 마음 다이어리와 함께
하루하루 변화해 가는 '나'를 발견해 보세요.

판매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구입가 : 13,000원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제품 상세보기 : 「한 그루의 숲」 검색 ⇨ 「숲속가게」 클릭

그림:박희진

“개혁은 파종의 심정으로 해야”

자승 스님, 1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예방서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박근혜 정부가 신년부터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구조개혁에 동감을 표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1월 1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개혁은 10, 20년 앞을 보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면서 “장기 불황의 늪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장 중요하다. 각 분야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부가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부담되는 사안이라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자승 스님은 “개혁은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고통이 있고 힘들어도 개혁은 이어져야 한다.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민생 살리기를 위한 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사진= 노덕현 기자

이와 함께 신년을 맞아 정계 인사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13일에는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에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예방했다. 신성민 기자

비구니회 정상화 위한 결의대회 열린다

열린 모임, 확대회의서 3월 16일 개최 결정

운영위원 15명 사퇴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와 열린비구니모임의 갈등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열린비구니모임은 마지막 수단인 결의대회를 동안거 해제 이후로 개최키로 했고, 비구니회 집행부에 반대하는 운영위원들의 사퇴로 이어지고 있다.

열린비구니모임은 1월 12일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확대회의를 열고 회칙 개정 특위 보고와 결의대회 준비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비구니모임은 ‘전국비구니회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오는 3월 16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열기로 결의했다.

열린비구니모임 관계자는 “현 집행부의 문제 제기와 수 차례의 대화 시도가 있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비정상적인 현실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결의대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의 회칙 위반에 대한 항의하며 운영위원 스님들의 사퇴도 이어지고 있다.

강원지회 혜욱 스님, 경남지회 중안 스님, 해득 스님, 서울지회 본각 스님 등 12명의 운영위원이 9일 전국비구니회에 운영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또한 서울, 부산 지역 운영위원 일부 스님들도 사퇴서를 제출해 대략 15명의 운영위원 스님들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2015 교육아사리 신규 선발

교육원, 13일 진관 · 무애 · 정천 스님 등 6명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015년 신규 교육아사리로 진관 · 무애 · 정천 · 부용 · 여현 · 우석 스님 6명을 선발했다.

2015년 신규 교육아사리는 총 8명이 지원한 가운데 교육아사리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1월 13일 교육원 교무회의와 교육원 회의를 통해 최종 선발됐다.

이번 신규 교육아사리는 비구 스님 3명(진관, 무애, 정천), 비구니 스님 3명(부용, 여현, 우석)이다.

이에 따라 종단에서 위촉한 교육아사리는 총 36명이다. 교수 아사리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아사리 포럼’, 각종 연찬회 등을 통해 불교적, 사회적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민 기자

대중공사·통일선언… 소통·화합 ‘역점’

신년 기자회견 키워드로 본 2015 조계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통과 화합,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내놨다. 실제 4034자에 달하는 기자회견문에서 세 가지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새해 종무 운영 캐치프라이즈도 ‘소통과 화합, 혁신으로 종단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의 한해를 만들겠습니다’ 이다. 세부 중점 과제들도 운영 기조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통의 대중공사 될 수 있나

소통이라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중점 사업은 ‘종단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대표적이다. 현재 구성이 어느 정도 완료된 100인 대중공사는 오는 1월 28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출범과 1차 회의를 함께 진행한다.

조계종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함께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대규모 논의의 장을 열고 이 안에서 문제점과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첫 회의는 ‘사부대중에게 듣는다’는 주제로 종단이 풀어야 할 현안에 대한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중공사 추진위는 출재가 위원을 10개조로 나눠 분임토의를 진행한다.

자승 스님은 “대중공사를 통해 모여진 의견은 장 · 단기 로드맵을 수립해 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실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종도에게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풀어할 숙제도 적지 않다. 100인 대중공사에 참여하는 위원 중 종단에 비판적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종책모임 삼화도량이나 재가자들은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견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미 토론회와 야단법석, 쇄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도출됐지만 이것이 종무행정에 도입되거나 입법화된 사안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총무원장, 호계원장, 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수좌 스님 등이 현장에서 똑같이 다 함께 참여해 토론하는 것은 불교 역사에 없는 일”이라며 “여기서 모아진 의견은 집행 당사자 스님들께 의견 직접 구할 수도 있고 의견 모아지기만 하면 입법기구 통해 법제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 소통 · 화합 · 혁신 강조
대중공사 통한 종단 현안 논의
공생 골자로 한 통일선언 발표
조계사 일대 성역화 사업 ‘첫삽’
개정 승려복지 · 교구 발전 추진

통일선언 · 갈등 해결과 화합

조계종이 내놓은 중점 계획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교통일선언’ 발표다. 광복 70년을 맞아 오는 5월로 발표가 예정된 ‘불교통일선언’은 현재 70% 정도 연구 · 작성이 이뤄진 상황이다.

자승 스님은 통일선언의 담론 골자는 ‘공존’, ‘상생’, ‘합심’을 꼽았다. 스님은 “공존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이고, 상생은 한민족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합심은 언어와 문화 등에서 보이는 남북 간 이질감을 극복하고 마음의 통일이 이뤄져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월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소통과 화합, 혁신을 강조했다.
사진= 노덕현 기자

올해 열리는 연등회와 함께 진행되는 ‘세계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회’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자승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세계불교지도자들과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들을 초청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한 쌍용차 해고노동자 문제 등 노동 현장과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보여줬던 조계종 노동위원회의 활동에도 많은 힘을 실을 전망이다. 또한 화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 갈등에 대한 불교적 해법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쌍용차 해고노동자 문제에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스님은 “오래전부터 종교계가 나서서 노력했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해고 노동자 우선 고용을 제안했다. 실무자와 논의를 진행하며 가능성을 타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복지 · 재무 · 선거와 혁신

혁신 분야에 포함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자승 스님의 선거 공약과 관련이 많다. 대략 승려복지와 원장 선거제도 개편, 교구 균형발전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부지 매입 등이 추진되는 조계사 총본산 성역화사업은 조계종을 일신할 수 있는 혁신 불사의 한축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오는 5월까지 10.27 법난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내년 6월까지 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념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과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추진한다.

자승 스님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은 문화의 조화로움과 삶의 지혜로움이 공존하는 이 시대의 불교의 상징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전통문화의 가치가 시간과 공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승려복지법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 1월부터 의료비 지원이 이뤄지며,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오는 2017년 1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이뤄진다.

자승 스님의 주요 공약이었던 종앙 · 교구 균형발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계종은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분야별 의제 선정 및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제들을 바탕으로 ‘교구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분담금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행 종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 구조 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신성민 기자

불교계, 의정부 화마 이재민에 ‘자비 손길’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단
1월 12일 선발진 급파
의정부사암련 · 복지관들
구호물품 지원 잇달아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사건 현장에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1월 12일 오전 12시경 긴급 재단구호봉사단을 급파했다. 재단 측은 인근에 위치한 회룡사와 의정부시사암연합회, 재단 산하 복지관인 송산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지원활동에 동참한다.

현재 의정부 경의초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는 250여명의 이재민이 80동의 소형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 사고를 우려해 텐트별로 전기장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이재민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찜질방을 이용하고 있다.

재단측은 "의정부 현지조사 결과 급식과 식수, 숙소 등 긴급 품목은 지역자원 봉사센터와 구호단체, 시청을 통해 준비된 상황이었다"며 "이재민과 봉사자 급식지원을 위해 쌀과 밑반찬, 찜질방 이용을 위한 현금지원, 이불과 담요 같은 방한용품을 1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사암연합회에서는 1월 13일 쌀 3가마와 찜질방 이용을 위한 현금 2백만원을 지원했으며 급식시설이 있는 송산노인복지관에서는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저녁식사 시 국 2백인분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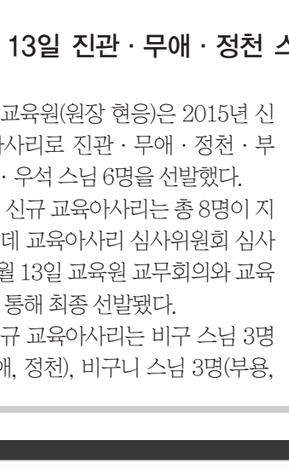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작년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호남 4개교구본사 및 지역사암연합회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팽목항, 진도실내체육관 지원활동에 발 빠르게 동참한 바 있다.



1월 12일 급파된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단이 의정부 화재사고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에서는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20분 쯤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쳤으며 22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좌선하다가 깨달았다는 선승은 없다.
선문답을 통하여 깨달았다!!
—일상적인 언어로 간화선의 핵심 주제들을 분석하다.
고봉 원묘와 몽산 덕이는 정통 간화선이 아니다.
지금의 한국 선은 고봉선, 몽산선이다.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悟道)
-화두, 모름(不會)에 대하여 분석하다-
■ 자명 지음 | 464쪽 | 25,000원 | 신국판 양장
자명 스님: 1958년 대구 출생. 1977년 경북고 졸업, 서울대학교 입학. 1979년 해인사로 출가. 1980~1988년 벽송사, 봉암사, 공림사, 성전암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 2011년 동국대학교에서 「선문답을 통한 수행법연구」로 박사학위 받음.



이평래 교수의 대승기신론 강설
여래장사상을 연구한 이평래 교수가 평생을 바친 역작!!
여래장사상의 완결서!!
1.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의역
2. 친절한 용어 해설로 내용 이해
3. 도표를 통해 대승기신론의 세계를 알기 쉽게
4. 인간의 내면세계를 긍정적으로 서술
■ 이평래 강설 | 624쪽 | 29,500원 | 신국판 양장

사바에서 부르는 불이(不二)의 노래
유마경과 이상향
불교의 핵심 · 진수가 담겨
단 한 권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유마경의 세계를
드라마틱하게 펼쳐 놓았다.
■ 화공 강의 | 604쪽 | 29,500원 | 신국판 양장



선의 어록
중요한 선어록과 선 경전禪經典의 친절한 해설서!!
禪의 주요 경전인 수행도지경, 좌선삼매경, 유마경 등 16종과
중국 선어록의 핵심 임제록, 마조어록, 벽암록 등 30종과
한국의 선어록 26종을 망라하여 완벽 해설!
■ 김호귀 지음 | 336쪽 | 18,000원 | 신국판 양장

민족사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南北 문제 해결위해 남한 제스처가 중요

민추본, 14일 '남북관계 전망' 강좌



"북한이 10월 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신년사에서 최고위급회담까지 언급했을 정도로 내부 자원의 총동원과 남북 ·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의지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가 1월 14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월례강좌를 열고 올해 남북관계를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로 나선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사진>는 남북 신년사를 기반으로 남북의 정책기조를 분석하며 올한해 남북 상황을 예측했다.

정 교수는 "북의 신년사에 등장하는 '10월 대축전의 장' 이라는 표현은 1980년대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는 당대회를 당창건 70돌을 맞는 올해 개최할 계획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며 "북한이 당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체제나 과제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년사에서 과거 전투적 언사를 앞세우던 것과는 달리 인민적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대남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군사연습 불가, 삐라 살포 등 사상과 제도 강요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외경제관계 확대 발전을 강조하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언급한 것은 남북 금강산 관광 재개에 유리한 조건이 될 것으로도 풀이했다.

반면 정 교수는 북한에 비해 남한은 정책 변화에 대한 의지가 소극적인 것으로 봤다. 그는 "오로지 이산가족 상봉을 매개로 대화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대북삐라 문제, 5.24 해제 등에 관해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강경 자세를 취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과 자세를 취하느냐 역시 대북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북한은 남한의 행동을 지켜보고 뜸을 들일 가능성이 많다. 남한에서 조만간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올해 남북관계 역시 힘들어질 수 있다"고 평했다. **배현진 기자**

'대승기신론' 주석서 最古本 발견

딩위엔 · 김천학 교수 12일 동국대서 발표

〈소〉 돈황본과 비슷한 연대 〈별기〉 유통본보다 300년 앞서 한국불교 영향력 증명자료 "서역에 신라 문화 전파됐다"



당위안 교수가 공개한 〈대승기신론소〉 투르판본(왼쪽)과 김천학 교수가 밝힌 〈대승기신론별기〉 담예 스님 필사본

동아시아 대사상가이자 한국의 고승인 원효 스님의 대표 저서 〈대승기신론소〉와 〈대승기신론별기〉의 가장 오래된 사본이 공개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은 1월 12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중국 상해 사범대 딩위안(定源) 교수 및 김천학 HK교수 초청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본을 공개했다.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은 인도의 마명(馬鳴:100~?) 스님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승불교의 개론서로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의 주요 종파에 큰 영향을 끼친 전적이다.

〈대승기신론소〉는 이 〈대승기신론〉에 대한 원효 스님의 주석서로, 1000여 권이 넘는 대승기신론 주석서 중 으뜸으로 꼽힌다. 중국에서는 따로 〈해동소〉(海東疏)로 불릴 정도다.

이와 함께 〈대승기신론소별기〉는 〈대승기신론소〉의 초고(草稿)분으로 원효사상의 이론적 기초를 살필 수 있는 대표적인 저술로 알려져 있다.

딩위안 상해사범대 교수는 "이번에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과학원에서 발견된 〈대승기신론소〉 투르판본은 필적과 종이의 질 등 연대가 밝혀진 비슷한 사본과 비교한 결과 8~10세기 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존 최고본으로 알려진 돈황본과 비슷한 연대로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라고 말했다.

딩위안 교수는 이번 공개에 앞서 2010년 영국 런던 대영도서관에서 20세기 초 영국의 오럴 스타인(1862~1943)이 가져온 돈황 문서들을 연구해 총 15행의 단간임을 밝힌바 있다. 딩위안 교수는 "사본간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일정부분 다른 부분도 발견된다"며 향후 과제를 밝혔다.

김용태 동국대 HK교수는 "돈황보다 서쪽인 투르판 지역에서 원효 스님의 전적이 있었다는 것이 또다른 의미를 지닌다"며 "보통 우리는 아시아 교류에 있어 페르시아 – 스키타이 문명이 한국에 영향을 준 것만 생각하지만 신라의 문화도 서역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김천학 동국대 HK교수는 기존 일본의 현재 유통본보다 300년 이상 앞선 〈대승기신론별기〉 최고본을 공개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은 일본 가나자와문고와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김천학 동국대 HK교수는 일본 가나자와문고 도츠 아야노(道津綾乃) 주임학예원, 도요(東洋)대학 동양학연구소 오카모토 잇페이(岡本一平) 객원연구원과 가나자와문고에서 가마쿠라시대의 〈대승기신론별기〉 사본을 발견했다.

김천학 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별기는 1313년 경 일본 담예 스님이 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수대장경〉 본의 저본인 일본 간본의 1659년보다 300년 앞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욱 동국대 HK연구단장(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은 "불교문화연구원은 원효탄신 1400주년인 2017년까지 원효 전적의 정본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번 전적 발견은 원효 스님이 동아시아 최고 지성인으로 당시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정본역주를 통해 원효 전기를 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이사회, 총장 후보 23일 재논의

1월 15일 5시간 동안 격론, 논문표절 의혹 검증 뒤

동국대 이사회가 총장 후보자 보광 스님의 논문표절 의혹을 검증한 뒤 다시 총장 선임 회의를 열기로 했다.

1월 15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열린 제288차 이사회에서 총장선출을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 뒤 23일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5시간 동안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이사회 회의 공개 여부와 채택 안건 순서에서부터 이사들간의 이견이 발생했다.

이사 1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인사안, 추가경정예산 승인안, 은석초등학교 교칙 개정안, 교육용 기본재산 수증 승인안,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총장선임안, 기타 등 7개 안건을 놓고 논의했다.

다수의 이사들은 총장선임안을 먼저 다뤄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사장 정련 스님과 일부 이사들은 계약직 교직원들의 생계문제가 달린 교원인사안과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오전 회의 동안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회 후 오후 회의에서도 안건 상정을 두고 언쟁만이 벌어졌다. 그러던 중 총장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문제가 제기됐다.

이사 성타 스님은 "보광 스님의 표절은 총장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다. 오늘 총장을 선출하고 나중에 검증하자"는 안을 냈지만 다시 언쟁이 높아졌다.

이사회 회의장에 배석한 박정극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 위원장(학술부총장)은 "동국대살리기 비상대책위와 개인 명의로 표절의혹 논문 30편 24건이 접수됐다"며 "논문진실성검증심사위원회가 20일 본회의가 열리며 본조사가 시작되면 본인이 인정한 논문 1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 내에 판정할 수 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가 걸린다"고 밝혔다.

이에 이사들은 논문진실성검증심사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23일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 총장 선임의 건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전통을 문화상품에 담아내다

문화사업단, 제7회 공모전 대상에 장태선, 김태은

14일 시상식… 순회 전시회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이 마련한 제7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대상에 장태선의 '이끌림' (전문가 부문)과 김태은의 '부처님과의 차담' (학생 부문)이 선정되고 1월 14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템플스테이와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 불교문화콘텐츠(본디나 전통문양)를 활용한 창의적인 문화상품과 기념품 630점이 접수됐다.

일반(전문가)부문 대상을 수상한 장태선의 '이끌림' 은 불교의 만(卍)자를 형상화하여 불교의 정신을 반영한 다용도 탁자로,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학생부문 대상을 차지한 김태은의 '부처님과의 차담' 은 평소 대중에게 익숙한 불교의 경전을 모티브로 한 티백 패키지로써,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차담과 더불어 불교의 좋은 글귀를 마음에 담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된 아이디어 상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박진아 · 민병훈의 '불교 경전함' 이, 서울시장상은 박지숙의 '전통놀이세트' 가 수상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은 김문정의 '세상을 보는 목탁 돋보기' 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 가운데 일부 작품은 사업단의 전통문화상품 전문브랜드 '본디나 (VONDINA)' 의 문화상품으로 새롭게 개발될 예정이다.

문화사업단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1월 12일~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살림터(1월 25일~ 2월 7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2월 9일~28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수상작 전시를 진행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스님은 "전통의 가치를 일상으로, 디자인을 삶의 일부로 만드는 이번 공모전 전시를 통해 잊혀져가는 우리 것을 되살리고 불교의 정서와 문화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7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대상 수상작인 장태선의 이끌림(일반부, 사진 왼쪽)과 김태은의 부처님과의 차담(학생부, 사진 오른쪽).

"쌍용차 해고노동자 해결 나설 것"

자승 스님 등 종교 지도자들 호소문 발표

"아직도 높은 굴뚝에서 엄동설한 칼바람을 온 몸으로 견디며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따뜻한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교 등 한국 7대 종교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의 대표자들은 1월 6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쌍용차 해고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7대 종교 대표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최근 다시 시작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문제는 노사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인간의 최소한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우리 종교계는 이를 방관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서 "따라서 회사는 해고노동자들의 복직문제에 관심을 갖고 원융회통의 전통에 따라 노사가 한자리에 모여 대화와 협상을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대 종교 지도자들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해 종교가 노력할 것을 밝혔다. 지도자들은 "한국의 종교계를 대표하여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중재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부디 쌍용차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 그들이 원하는 공장에서 땀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사정이 힘을 모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대강백이신 지안 큰스님과 함께 대승경전을 연찬할 스님을 모집합니다.

(서울불학승가대학원 학인 모집 공고)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대강백이신 지안 큰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을 모시고 대승경전을 강독하며 연찬하는 제7기 서울불학승가대학원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매주 2회, 총 2년간 진행되는 본 교육과정은 구족계를 받은 비구,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대승경전 4권을 전통강의법에 입각하여 자상하게 해석해줌으로써 대승불교의 진수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주지 등 소임을 살거나 포교에 전념하시는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모집대상
• 승 려 : 총 60명 내외(조계종 승려 및 타종단 승려 약간명)
• 재가자 : 총 20명 내외(※ 재가불자의 청강도 가능합니다)

모집방법 서류전형 (심사 후 개별통보)

교육시간 및 장소
• 학 제 : 2년 4학기, 학기당 30회(15주) 수업
• 수업시간 : 매주 화, 수요일 오후 6시 ~ 9시
• 교육장소 : 법련사 (서울 종로구 사간동 121-1) 2층 불일문화회관

수료자득전
•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을 졸업할 경우 3급 승가고시 응시에 필요한 교육경력 2년을 인정함.

교육과정(2년제 4학기)

학기	교 과 목	강의횟수	교수사	학사일정
1	금강경 오가해	30회	지안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고시위원장)	2015. 3. 17 ~ 7. 15
2	대승기신론	30회		2015. 8. 25 ~ 12. 9
3	법화경	30회		2016. 3 ~ 7
4	화엄경	30회		2016. 8 ~ 12

(※ 초파일 휴강 등 세부적인 학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
• 스 님 : 1학기당 700,000원
• 재가자 : 1학기당 1,000,000원

접수기간 2015년 1월 5일 ~ 2월 6일 까지

합격자발표 2015년 2월 13일 (개별통지)

신청방법
•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검색창에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을 검색하시어 첨부자료(입학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및 이메일 등으로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입학원서 (소정양식) 1부
• 승적증명서 또는 승려증 사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4) 1매
• 재가자는 신도증 및 종단에서 인가한 불교대학 졸업자인 경우 졸업증서 사본 1부

대한불교조계종
서울불학승가대학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부설)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주소 _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 전화 _ 02-730-6565 팩스 _ 02-732-4826 • 이메일 _ education@buddhism.or.kr
• 원서교부 _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일 주 문



동국대 병원 2000만원 기부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1월 13일 동국대 일산병원과 불교의학연구소에 발전기금 2000만원을 쾌척했다.



선원불사기금 마련 사진전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3월 8일까지 성보박물관에서 통도사 선원 및 요양병원 신축불사 기금마련을 위한 '송천 스님의 연꽃사진전'을 개최한다.



BBS부산불교방송 사장 취임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2월 1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부산 BBS불교방송 사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4년간이다.



3000배 철야정진 기도

구례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은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성도재일 맞이 철야 3000배기도 법회를 봉행한다.



수덕사 등 동안거 대중공양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1월 19일 동안거 정진 중인 덕숭총림 수덕사와 예산 정혜사, 계룡 무상사 선원을 방문해 대중공양을 했다.



열린선원 성도재일 철야정진

서울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은 1월 24일 오후 7시부터 성도재일 철야정진을 진행한다.



제7회 불교고전어 전문강좌 개설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 연구센터에서 제7회 불교고전어 전문강좌 '따시델레! 티벳어'를 개설한다.

한국불교대관음사 신임주지 수진 스님



대구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가 을미년 새해를 맞아 1월 10일 새 주지 수진 스님〈사진〉 취임식을 개최했다.

대관음사 신임 주지 수진 스님은 "은사 스님, 사제, 사형스님께 누가 되지 않게 정법수행과 한국불교대학의 자부심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 나가겠다"며 인삿말을 전했다.

수진 스님은 우학 스님을 은사로 동국대와 동대학원에서 불교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스님은 청소년 캠프, 재가불교 시민운동등 실천불교의 수행가로 활동했으며, 군승으로 임관해, 군포교에 매진해왔다. 미국 뉴욕 대관음사에서 총무를 맡은 뒤 대구 대관음사에 부임했다.

노덕현 기자

"종단신도조직 백년미래 준비할 것"

중앙신도회 이기흥 회장 신년사업계획 발표



올해 창립 60주년 맞아
신도조직 구성 완결 목표
6월 대전서 희망드림한마당

이기흥 중앙신도회 회장〈사진〉이 1월 15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기흥 회장은 "우리 사회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많은 분야에서 불교의 참여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며 "올 한해는 불교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는 중앙신도회는 지난해 개정된 신도법 개정을 바탕으로 전국의 교구신도회와 신도단체의 조직을 내실화하고 신도등록 확대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전국의 교구신도회 조직을 내실화 하고 사찰신도회, 신도단체 간 소통을 통해 명실공히 종단 대표 신도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진력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중앙신도회는 신도품계등록 배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신도품계등록사업은 신행과 종단 정체성 확립, 신도조직화 근간 형성 등 본래 목적이 분명히 있다"며 "신도등록 사업을 각급 신도회와 신도단체 회원의 조직화를 위한 우선과제로 두어 사찰 신도와 불자들의 자발적 신행운동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신도회는 오는 6월 13일 대전지역에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조계종 희망드림 한마당(가칭)'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봉축행사를 마무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스님과 신도들이 손잡고 오셔서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 신명나는 대동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3년차에 접어드는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범국민 사회공헌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올해에는 4월 24일 광화문광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천, 원주, 수원,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 랜드 마크 행사가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의 국고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행사를 더욱 의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앙신도회는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통해 10월 해외봉사, 12월 동지나눔 캠페인 등 연중캠페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지난 해 캠페인을 통해 모연된 1억 300여 만원을 전국의 모금주체가 추천해 준 259명의 이웃에게 1월 20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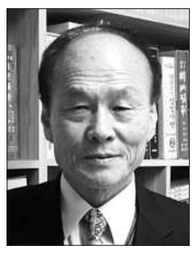
이 회장은 "신도운동이 6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에 국민을 기쁘게 하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 불자들이 사회참여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 아동문학이 포교 100년 좌우한다

한국불교아동문학회 회장에 이창규 씨 취임

한국불교아동문학회 회장에 이창규(75 · 사진) 씨가 취임했다. 이 회장은 〈본생경〉 불교동화 편찬, 초등학생 문학 공모전 등을 통해 불교아동문학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현재 경남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이 씨는 지방에서 중앙 회장직을 맡는 것은 처음이라며 상당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큰 직책을 맡은 만큼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불교 아동문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비록 지방에 있지만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국의 회원을 아우르며 불교아동문학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불교아동문학회는 앞으로 부처님 전생담인 〈본생경〉을 불교 동화로 엮어 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앞으로 불교 100년 을 내다본다면 아동을 위한 포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교 동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부처님의 뜻을 쉽고 재미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전국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 학생들이 불교문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계획을 전했다. 이외에도 연 2회 발행하던 회보집의 횟수를 4회로 늘려 회원들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재 회원이 100여 명이지만 소통이 잘 안됐던 것이 사실이다. 회보집 발간 횟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각 지방에 이사를 두어 지방과 중앙이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불교아동문학회는 앞으로 사찰 문학기행은 물론 사찰 관련 연수 및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에게 불교적 소양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혜숙 기자

봉은사, 남판우 신도회장 · 이경규 부회장 체제로

1월 17일 신도회장 취임식 및 발대식 개최



남판우 신도회장



이경규 부회장

방송인 이경규 씨가 서울 봉은사 신도회 부회장을 맡는다. 봉은사(주지 원학)는 1월 17일 보우당에서 2015년 신도회장 취임식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임 신도회장으로 남판우 NY Partners 영종도허브공원 회장이 위촉됐다. 또 이경규 씨를 비롯한 17명의 부회장단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또 민병련 사무총장과 지도위원, 감사, 110개 연등 소속 연등장 등 400여 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한편 발대식 후에는 가수 현숙, 윙크 등의 축하공연도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할리우드 배우 말코비치 조계사 방문



할리우드 배우 존 말코비치가 1월 13일 조계사를 방문했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조계사를 방문한 존 말코비치에게 차를 대접하고 담소를 나누었다. 존 말코비치는 대웅전을 둘러보고 연등을 살펴보는 등 한국 불교에 큰 관심을 보였다.

존 말코비치는 1월 14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서울바로크합주단 창단 50주년 특별 정기연주회' 출연을 위해 내한했다.

노덕현 기자

사상구불교聯, 청소년 장학금 전달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유정)가 1월 14일 부산 사상구 용운사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자비의 일일찻집'의 모연금으로 마련됐다. 사상구불교연합회는 불자 장학생 21명을 선정하고 모연금 가운데 일부를 회향했다. 또한 같은날 사상구불교연합회는 부산생명나눔실천본부에 난치병 환우를 위한 기부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강서구사암聯 이웃 돕기 모임



부산 강서구불교사암연합회(회장 운암)는 1월 11일 청량사에서 불우이웃돕기 자선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서구 기관장과 스님 및 신도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열렸다. 아코디언 및 색소폰 연주, 약천사 신도들의 통기타 연주, 산삼사의 노래 열창 등 각 소속 사찰에서 준비한 무대가 마련돼 훈훈함을 더했다. 이날 모인 성금은 강서구복지과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대원불교문화대학 2015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

대 학 2년 4학기

■ 모집학과

◐ 불교심리상담학과 (주간 • 야간 / 수 • 금요일)
자아초월과 심리치료 / 심리검사 및 평가 / 상담과 철학 / 상담면접기술 / 유식심리학 / 철학과 심리 / 동 · 서양 철학의 행복 / 성격심리학 / 집단상담 I / 상담심리학 / 발달심리학 / 긍정심리학 / 심리치료와 몸 / 불교심리학 등

◐ 명상학과 (주간 • 야간 / 수 • 목요일)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 / 뇌,불교수행 그리고 인식 / 자아초월과 심리치료 / 심리검사 및 평가 / 명상과 치유 / 불교수행과 실습 / 비교명상의 이해 / 유식심리학 / 철학과 심리 / 불교명상학 / 불교심리학 / 동 · 서양 철학의 행복론 / 불교와 마음치료 / 현대 명상의 이해와 실제 등

■ 입학자격 : 정규 고등학교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 이상을 이수한 분

■ 강의시간 :
· 주간 : 제1교시 14:00 ~ 15:30 / 제 2교시 15:40 ~ 17:10
· 야간 : 제1교시 19:00 ~ 20:30 / 제 2교시 20:40 ~ 22:10

■ 수업료 : 300,000원(학기당)

대 학 원 2년 4학기

■ 모집학과

◐ 불교심리상담학과(야간 / 수 • 목요일)
MBSR · 수용전념치료(ACT) / 개인상담 사례연구 및 실습 / 자아초월과 심리치료 / 심리검사 및 평가 / 집단상담 II / 부부 및 가족상담 / 유식심리학 / 철학과 심리 / 상담심리치료 / 정신병리학 / 불교심리학 / 동 · 서양 철학의 행복론 / 개인상담 실습 및 슈퍼비젼 등

■ 입학자격 :
· 본 대학 또는 불교교양대학 불교심리상담 과정을 이수한 분
· 정규대학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 이상에서 상담 관련학 전공으로 졸업(예정)한 분

■ 강의시간 :
· 야간 : 제1교시 19:00 ~ 20:30 / 제2교시 20:40 ~ 22:10

■ 수업료 : 400,000원(학기당)

특전 : · **장학혜택** : 성적 우수자, 근로장학생 외
· **수업료 할인혜택** : 스님. 동반가족(부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1인에 한해) **등록금의 50% 할인**

원서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홈페이지 : www.kbpf.org
◐ 전 화 : (02)707-1072
◐ 팩 스 : (02)3273-1618
◐ 우 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BBS불교방송) 3층 대원불교문화대학

■ 접수 및 전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www.kbpf.org에서 양식다운)
◐ 전형방법 : 서류전형(심사 후 개별통보)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5년 2월 27일까지**
◐ 개 강 : 2015년 3월 4일(수)
주간 : 오후 2시, 야간 : 오후 7시

■ 오시는 길 및 문의
◐ 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 문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02)707-107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여성불자들이 모여 '친절종'을 만들까요?

1월 13일, 일진 스님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출판 북콘서트 현장

두 비구니 스님이 얼싸 안았다. 40년 넘게 도반으로 지내오며 서로 마음으로 의지해왔다는 일진 스님(前 운문사 주지)과 정목 스님(유나방송 진행자)은 오랫만의 만남에 반가움을 표했다. 일진 스님은 정목 스님을 두고 '한국 불교계의 보배'라고 일컬었고, 정목 스님은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사람"이라고 일진 스님을 표현했다.

일진 스님의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출판 기념 북토크 콘서트 현장. 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국제회의장이 발 디딜틈 없을 정도의 청중들로 꽉찼다. 1백여명의 호응과 박수소리는 덤이었다 토크콘서트에 정목 스님은 사회자로 나섰다.



일진 스님의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출판 기념 북토크 콘서트가 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국제회의장에서 정목 스님(사진 왼쪽)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1백여 청중들은 함께 즐거워하며 콘서트 내내 두 스님에게 뜨거운 박수를 연발했다.



국악인 송석문씨의 대금 연주도 이어졌다.

정목 스님 : 바쁘신 분인 줄로만 알았다. 어떻게 승만경을 내게 됐나.

일진 스님 : (계속 일을하는 게) 성격에 맞는 것 같다. 가만히 있으면 출가자로서 밥값을 안 하고 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운문사 주지 소임을 내려놓으면서 조금 한가해졌다.

정목 스님 : 동국대 재학시절부터 여성성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기울인 것으로 안다. 계기가 있나.

일진 스님 : 아마 내게 여성 콤플렉스가 있었나보다. 동국대 재학시절 앞으로 어떻게 수행을 할까 고민하며 오대산 적멸보궁에 기도를 갔다. 아침에 산길을 내려오는데 비구 스님 한 무리가 지나가면서 "여자가 백년을 해봐라. 성불이 되나"라고 핀잔주듯 말씀하셨다. 맑은 산기운을 대하면서 청정해졌던 마음에 혼탁한 분심이 일었다. 행자시절 만났던 비구니 노스님도 생각났다. 기도를 참 열심히 하던 분이셨는데 늘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길 바라셨다. 정말 비구 스님들 말대로 비구니는 백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지 궁금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여성은 불가에서 열등한가' 라는 논문도 썼다. 그게 여성불교에 대해 관심을 가진 계기였다.

일진 스님은 "여성은 유약해서 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여성은 섬세하고 순수한 모성애를 지니고 있어 자비심이 발현될 여지도 크다"고 말했다. 일진 스님의 〈승만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그동안의 체험과 사유가 녹아들었다. 여성의 몸 그대로 성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경전이 승만경인만큼 일진 스님은 "옛날에 여성이 성불해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대신 사자후를 설하고 부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혁신적"이라며 "이 점만으로도 승만경이 주는 메시지는 크다"고 덧붙였다.

정목 스님 : 남성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왔지만 남성은 여성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불은 커녕 성불 씨앗도 갖지 못한다. 시대가 흐르면서 그런 인식이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지구촌에는 여성폄하가 만연해 있다.

일진 스님 :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자주 쓰이는 말이 무엇일까. 바로 '엄마' 다. 다분히 여성적인 말이다. 여성 불자들은 태생적으로 촛불처럼 헌신적이고 따뜻하다. 촛불이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듯 여성들은 세상을 따뜻하게 보듬고 살릴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이야기는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법으로 확대됐다. 두 스님은 여성이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해진다는 말에 공감하며 어떻게 이를 실현시킬 것인지에 관해 대화를 이어나갔다.

일진 스님
여자는 백년 해도 안된다고?
여성성불 관심 가진 것이 계기
여성 불자 헌신적 · 따뜻함 강점

일진 스님 : 여성이 행복해지는 법. 그것에 내 화두다. 다른 경전도 근본적인 행복의 진리를 담고 있지만 〈승만경〉은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이 성불할 수 있다는 여래장사상, 일승 사상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은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 승만경에는 승만 부인의 10대 서원을 통해 부처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천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정목 스님 : 사회적으로 힘든 고비가 많다. 때문에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승만경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듯 하다. 승만부인의 10대 원 중에서 스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일진 스님 : 승만경은 짧은 경전이다. 그 중 핵심은 승만부인의 10대원 가운데 세 번째 원인 중생에 대해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장율사는100만가지 탐심을 일으키는 것보다 1번 진심을 일으키는 게 독이된다고 하셨다. 독 중에서 가장 큰 독이다. 불교 신자가 화를 못 다스린다면 사실 가짜신도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나눔 역시 중요하다. 나누는 마음이 확산되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해진다. 나눔은 종교적 가르침과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안전망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재물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화를 내지 않아도 삶에 대단한 변화가 온다. 맑고 밝은 마음, 그 혜택을 가장 먼저 받고 행복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부처님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콘서트 도중 활짝 웃는 일진 스님(사진 왼쪽)과 정목 스님

정목 스님 : 대한민국이 분노공화국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분노를 안하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스님은 화날 때 어떻게 하시나.

일진 스님 : 학인 때는 분노에 휘둘리는 게 싫어서 입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이것 역시 대단한 교만심이고 보통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요즘은 화가나면 일단 웃는다. 화로써 풀지 않고 이를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정목 스님은 일진 스님을 두고 "일진(日進) 상냥, 일진 친절"이라고 농담처럼 칭하며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승만경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분"이라고 평했다. 이어 정목 스님이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에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다고 던진 말은 청중들 사이에서 가장 열렬한 환영과 공감을 이끌어냈다. 한국 불교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꼬집는 말이었다.

정목 스님
조금 덜 똑똑하더라도
따뜻한 출가자 많아진다면
절 찾은 이들 위안 받고 갈 것

정목 스님 : 책을 읽다 '한국 불교에 친절종은 없다' 는 문장을 읽고 무릎을 치게 됐다.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야 하는게 불교인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낯선 일이 되어버렸나. 친절종을 우리가 만들어야하나. (좌중 웃음)

일진 스님 : 비구니 스님들은 냉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청정하게 수행해 왔다는 아집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다. 스님들 처소에 관람객 출입제한 안내문을 걸때도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삼가해 주세요' 라는 문장조차 '들어오지마시오' 라고 완고하게 고칠 정도다. 흔히 말하는 '중물' 을 좀 뺄 필요도 있는 것 같다.

정목 스님 : 예전에는 "똑똑하고 유능한 이들이 불가에 귀의해 불교를 빛내주었으면 하고 바랐는데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 능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덜 똑똑하더라도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스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세상을 살고있고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이들이 마음을 추스르러 절집에 왔건만 내다보는 사람은 없고 눈 한번 맞춰주는 사람이 없다. 오로지 불사현수막만 황량한 바람에 나부낄뿐이다. 전국의 모든 사찰은 병원이고 치료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어떻게 하면 사찰이 차한잔 하고가라고 말할 수 있는 절이 될 수 있을까. 일진 스님은 그런 생각을 40년 넘게 해오는 분인 것 같다.

정목 스님은 끝으로 일진 스님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다. 일진 스님은 "따뜻한 노스님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스님은 "젊었을 시절부터의 꿈이다. 어떤 이들이 와도 누웠다 갈 수 있는 무릎을 내어줄 수 있는 따뜻한 스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청중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토크콘서트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끝났다. 정목 스님은 "밥 한끼를 대신할 수 있는 게 경전이다. 오늘 역시 수많은 이들에게 양식과도 같은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콘서트를 보기 위해 회사를 조퇴하고 왔다는 이유미(43)씨는 "최근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는데 두 스님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 한 켠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다"며 "책도 방금구입했다. 두번 세 번 반복해서 승만경을 읽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으로 2주 넘게 도반들과 공부하고 있다는 정적(40)씨 역시 "불자로서, 여성으로서 나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콘서트가 끝난 후 일진 스님에게 책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이뤘다.

글=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사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 한국불교미륵종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공고

최근 본종단 총무원장 선임에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종단 정상화를 위해 만암문도회와 애종심 있는 종도스님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2015년11월27일 만암당 송정대종사 1주기 다례재에서 본 종단 총무원장이신 덕운스님이 사의를 표한 바, 후임 총무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법인이사회에서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총무원장권한대행으로 감찰원장 묘각스님을 선출하였다.

종헌종법"제10항 총무원, 제46조(권한), 2)총무부장의 권한 제①항 총무부장은 총무원장을 보좌 하며 총무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법인이사 4명이 결탁하여 독단적으로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감찰원장 묘각스님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하였으며, 탈법과 편법이 자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종정스님은 종회를 해산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12월30일 종도대표로 만암문도회 회장스님이 종정스님에게 면담을 청하여 종정스님이 종무식에 참석한 종도들 앞에서 해명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은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자 종도스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묘각스님은 일면식도 없는 타종단 스님을 영입해 감찰원장에 임명하고, 종단 정상화를 염원하며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불법조직으로 매도하고, 전임 총무원부원장, 중앙종의회의장, 교육원장, 총무부장등에게는 권한대행 선임의 부당함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종행위로 간주하여 감찰원장 명의로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 했으며, 종단 홈페이지에 올린 종도스님들의 권한대행에 관련한 의견은 전부 삭제 해버리는 등, 독선과 독주로 파행적 종단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종단 정상화를 위해 확대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공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현 사태를 초래한 종정스님은 책임져라!
Ⅰ. 현 사태를 초래한 법인이사진은 물러나라!

(사)한국불교미륵종 비상대책위원회

- 위원장 : 영각
- 고 문 : 지운, 만성, 영탄
- 위 원 : 광명, 대일, 대현, 묘향, 법진, 성공, 성일, 수경, 수련, 영경, 영범, 영빈, 영성, 영운, 영인, 영조, 영지, 혜권, 혜능, 혜도, 혜동, 혜법, 혜빈, 혜안, 혜운, 혜중, 혜총,

2015년 1월 15일

(사)한국불교미륵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영각

새해 불교공부 제대로 한번 해볼까?

전국 불교대학 2015년 신입생 모집


전국 불교대학들이 2015년 강좌를 개설해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자료사진=현대불교)

신심 깊은 불자들이라면 새해에 불교와 관련된 수행이나 공부계획 하나쯤 세웠을 것이다. 올해는 발심해서 불교교양대학에 등록해보는 것은 어떨까. 전국의 불교대학들이 2015년을 맞아 재가불자들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인가받은 125곳의 불교대학이 3월 개강을 앞두고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불교대학은 주간반을 비롯해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과 주말반 등을 함께 운영해 자신에게 맞는 시간대에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도전문교육기관인 불교대학은 1년 또는 2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연간 96시간 이상을 들어야 한다. 필수과목으로는 〈불교개론〉과 〈부처님의 생애〉를 강의하며, 선택과목으로 〈금강경과 〈천수경〉〈법화경〉 등의 불교경전 강의와 함께 포교방법론과 현대사회와 불교, 초기불교, 대승불교, 한국불교사, 지역문화의 연구, 비교종교학 등 각 불교대학 마다 특화된 과목을 추가해 강의하고 있다.

불교대학을 졸업하려면 강의를 80%이상 수강하고 4시간 분량의 종단 필수 연수를 수료하고 종단 신도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신도전문교육기관을 졸업하면 조계종 일반 포교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어 조계종 포교사로서 포교일선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신도교육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대학 가운데 2014년 6월 기준 118개 대학 가운데 5천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으며, 졸업과 함께 부동품계를 품수 받았다. 불교대학 졸업 후에는 '불교대학원'에 입학해 불교를 보다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다. 이와 함께 가까운 사찰 및 신도 단체에서 1 · 2학기 과정으로 나누어 '불교교양대학'도 개설하고 있어 기초교리와 함께 다도 · 명상, 불교문화 등을 들을 수도 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포교원 사이버 신도전문교육기관인 '조계종 디지털 대학'이나 삼보사이버불교대학 등 사이버불교대학에서 강좌를 들을 수 있다.

특히 삼보사이버불교대학은 1년 과정의 사이버불교대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종범 스님(前 승가대 총장), 정병조 교수(금강대 총장),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수진들로 구성돼있다. 강좌는 석가의 생애, 초기불교의 교단, 불교교리의 특징 등을 강의하는 초기불교의 이해와 한국불교의 이해, 불교의 심리학, 포교의 이해와 실천 등으로 이루어진 포교사 강의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과정은 20강 정도로 온라인 강좌이기 때문에 수시로 입학이 가능하다. 반야사상 등 총 10과목을 1년 과정으로 온라인 서비스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6개월~1년이지만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만큼 수시로 입학할 수 있다.

이밖에 봉은사 봉은불교대학은 종단인가 전문교육과정으로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경전공부, 기도정진, 선수행, 자원봉사 등 다양한 신행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매주 수 · 목요일 주 · 야간반을 운영하며 불교개론, 부처님 생애(심화과정), 가정법회, 불교교리, 불교문화, 수련회, 경전, 성지순례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포교원 인가 불교대학 현황

불교대학명	전화번호	주 소
국제선센터불교대학	02-2650-2209	서울 신정6동 국제선센터 內
극락사불교대학	02-434-1717	서울 망우동 극락사 內
길상사불교대학	02-3672-0036	서울 성북2동 길상사 內
대성사불교대학	02-583-1475	서울 남부순화로328길
봉은불교대학	02-3218-4823	서울 삼성동 봉은사 內
불광불교대학	02-417-2551	서울 석촌동 불광사 교육관 內
삼보불교대학	02-352-6406	서울 역촌1동 삼보사 內
서울정각원 불교대학	02-2260-3016~8	서울 필동 동국대학교 內
수국사불교대학	02-356-2001	서울 갈현동 수국사 內
약사사불교대학	02-2662-2551	서울 금낭화로17길 261
연화불교대학	02-962-6186	서울 회기동 연화사 內
조계사불교대학	02-768-8600	서울 견지동 조계사 內
진관사불교대학	02-359-8410	서울 진관동 진관사 內
호압사불교대학	02-803-4779	서울 시흥2동 호압사 內
화계불교대학	02-997-6469	서울 수유1동 화계사 內
구름산불교대학	02-899-0408	경기도 광명시 소하2동 금강정사 內
김포불교대학	031-980-7753	경기도 김포시 중앙승가대학교 內
대덕사불교대학	031-283-3655	경기도 용인시 대덕사 內
보문선원불교대학	031-401-2540	경기도 안산시 보문선원 內
봉녕사심우불교대학	031-256-4127	경기도 수원시 봉녕사 內
봉선사불교대학	070-8802-1953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 內
봉영사불교대학	031-571-0555	경기도 남양주시 봉영사 內
안양불교대학	031-444-5935	경기도 안양시 지장선원 內
용주사불교대학	031-221-2324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 內
자재암불교대학	031-865-4045	경기도 동두천시 자재암 內
청계사불교대학	031-426-2348	경기도 의왕시 청계사 內
봉인사불교대학	031-574-5585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경인불교대학	032-427-8400	인천 남구 수미정사 內
나란다불교대학	032-434-9930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불교회관 內
인드라망불교대학	032-506-0108	인천 부평구 부개동 대현프라자 3층
인천불교대학	032-577-5108	인천 서구 가좌동 법명사 內
전등사불교대학	032-937-0025	인천 강화군 전등사 內
강릉불교대학	033-643-2985	강원도 강릉시 금학동 관음사 內
동해불교대학	033-534-7661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삼화사 內
신흥사불교대학	033-638-4807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원각사 內
원주불교대학	033-746-0248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보문사 內
월인불교대학	033-436-6624	강원도 홍천군 수타사 內
청평사불교대학	033-244-109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84
각원사불교대학	041-561-3545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 內
마곡불교대학	041-841-6221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 內
보문사불교대학	041-545-6531	충남 아산시 염치읍 보문사 內
서광불교대학	041-664-2002	충남 서산시 읍내동 556 서광사 內
세원사불교대학	041-934-1434	충남 보령시 주교면 세원사 內
수덕사불교대학	041-330-7710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 內
영평사불교대학	044-854-1854	세종특별시 장군면 영평사길 124
대전불교대학	042-222-3315	대전 중구 선화동 만불선원 內
백제불교문화대학	042-471-8214	대전 서구 둔산동 웅진빌딩 3층
수덕사대전불교대학	042-222-1159	대전 중구 대흥동 정수사 內
통도사대전불교대학	042-531-1332	대전 중구 태평동 용수사
법주사불교대학	043-542-4200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포교당 內
석종사불교대학	043-854-4505	충북 충주시 직동 석종사 內
중원불교대학	043-745-7788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3-10
직지불교대학	070-7675-108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222-3
청주불교문화대학	043-256-625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관음사 內
충북불교대학	043-273-2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용화사 內
고심정사불교대학	051-464-8450	부산 중구 중앙동 고심정사 內
내원불교대학	051-242-0691	부산 서구 서대신동 내원정사 內
로터스불교대학	051-853-8539	부산 연제구 연산5동 부산불교신도회관 內
범어사금정불교대학	051-866-7277	부산 연제구 거제동 안국선원교육관 內
법계사불교문화대학	051-783-2184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신동아오피스텔 5층
불지불교대학	051-816-2241	부산 부산진구 통도사부산포교원 불지사 內
여래사불교대학	051-466-4080	부산 동구 수정1동 대성빌딩 3층
여여불교대학	051-853-5486	부산 부산진구 부산불교회관6층 여여선원 內
영주암불교대학	051-754-2210	부산 수영구 망미동 950번지
원각불교교육대학	051-752-6624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민프라자 6층
인과불교대학	051-704-0332	부산 해운대구 좌동 부처님마을 內
홍법불교대학	051-508-0345	부산 금정구 두구동 홍법사 內
백양사불교대학	052-243-8712	울산 중구 성안동 819
여여불교문화대학	052-267-0108	울산 남구 신정동 여여선원
울산불교교육대학	052-266-3318	울산 남구 신정2동 성수빌딩 6층
정토불교대학	052-258-9944	울산 남구 옥동 정토사 內
황룡사불교대학	052-211-1949	울산 중구 학산동 황룡사 內
경북불교대학	053-792-1353	대구 수성구 욱수동 불광사 內
관오불교대학	053-472-0108	대구 남구 이천동 관오사 內
대구불교대학	053-256-3725	대구 중구 남산2동 보현사 內
마하야나불교대학	053-629-0408	대구 남구 대명2동 불교대구회관 5층
법왕불교대학	053-766-3747	대구 수성구 파동 법왕사 內
한국불교대학	053-474-8228	대구 남구 봉덕3동 대관음사 內
구미불교대학	054-453-0571	경북 구미시 봉곡동 화엄탑사 內
김천불교대학	054-429-1700~2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 內
남화사불교대학	054-452-6568	경북 구미시 남통동 남화사 內
문경불교대학	054-552-7006	경북 문경시 산북면 김룡사 內
보경사불교대학	054-262-1117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622 보경사 內
불국사불교대학	054-746-2211	경북 경주시 성건동 불국사문화회관 內
안동대원불교대학	054-858-2630	경북 안동시 목성동 대원사 內
예천불교대학	054-654-0682	
은해사불교대학	054-335-3318	경북 영천시 청통면 은해사 內
축서사불교대학	054-672-7578,9	경북 봉화군 물야면 축서사 內
포항불교대학	054-247-4688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죽림사 內
경남불교대학	055-266-8150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하이페르 14층
구룡사불교대학	055-294-3279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구룡사 內
대광불교대학	055-545-9595	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광사 內
도성암불교대학	055-533-2073	경남 창녕군 창녕읍 도성암 內
밀양불교대학	055-354-4464	경남 밀양시 가곡동 용궁사 內
봉림불교대학	055-237-2266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림사 內
불지수다라불교대학	055-262-6663,5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불지사 內
비사벌불교대학	055-533-2295	경남 창녕군 창녕읍 통도사창녕포교당 內
영축불교대학	055-242-8393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정법사 內
진불선원 선불교대학	055-275-322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진불선원 內
진주불교대학	055-759-1080	경남 진주시 상대동 298-4 3층
정종사불교대학	055-336-6867	경남 양산시 평산동 1040
통도사불교대학	055-382-7182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內
통도사전법회관불교대학	055-387-0108	경남 양산시 물금읍 671-5
해인사불교문화대학	055-934-3110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122 해인사
강진불교대학	061-434-7781	전남 강진군 강진읍 룸비니유치원內
목포불교대학	061-285-0576	전남 목포시 상동 대성빌딩 3층
삼호불교대학	061-461-1212	전남 영암군 삼호읍 축성암 內
영암불교대학	061-473-5122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사 內
완도불교문화대학	061-554-263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신흥사 內
해남불교대학	061-534-5502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 內
불일불교대학	061-755-5301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길 100
광주불교대학	062-375-7633	광주 서구 치평동 향림사 內
광주불교문화대학	062-228-9098	광주 동구 중앙로 202 현대예식장 3층
무각사불교대학	062-383-0108	광주 서구 쌍촌동 무각사 內
선덕사	062-263-4660	광주 동구 밤실로 136번길 8-21
남원불교대학	070 8881 0108	전북 남원시 도통동 선원사 內
이리불교대학	063-842-6652	전북 익산시 갈산동 관음사 內
정읍불교대학	063-536-8741	전북 정읍시 수성동 중앙2길 43
참좋은우리절불교대학	063-236-663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참좋은우리절 內
화엄불교대학	063-277-3497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불교회관 內
서귀포불교대학	064-733-8882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1696-2번지
제주불교문화대학	064-724-6830	제주 제주시 아라1동 관음사 內
대한불교조계종 디지털대학	070-8680-9288	
불교상담대학	02-737-7378	
대한불교교사대학	051-852-0852	

월정사, 청년마음출가학교 연다

2월 4~12일, 20 · 30대 청년 대상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출가 프로그램이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2월 4~12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청년마음출가학교'를 개최한다.

청년마음출가학교는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출가 프로그램으로 20 · 30대 초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자는 8박 9일간 인광 스님, 자현 스님, 재마 스님의 지도로 짧은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참가자들은 스님들의 일상인 예불, 참선, 발우공양에 참여하고 '마음, 자유, 수행, 자각, 힐링, 치유 소통, 문화'라는 주제로 불교계 대표 문장가 원철 스님, 지운 스님, 월호 스님 등 다양한 교수진의 강의를 듣게 된다.

청년마음출가학교를 담당하는 정원 스님은 "줄곧 내 안에 있었지만 내가 보지 못한 작은 빛. 그 빛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청년마음출가학교'"라며 "이번 체험은 청년들이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열린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아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늘 깨어있어 보다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2월 4~12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청년마음출가학교'를 개최한다. 오대산 숲길을 걷고 있는 청년 출가자들.

지원접수는 1월 28일까지 이며 접수방법은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033)339-6777

이나은 기자

"학생들 정서적 순화되고 재범 방지 향상"

파라미타, '참나를 찾아가는 여행' 성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보급해온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파라미타)가 사업을 마치고 결과보고를 밝혔다.

파라미타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프로그램인 '참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학교와 사찰 27곳에서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전했다.

'참나를 찾아가는 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 명상을 활용한 인성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예방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파라미타는 학습 부진 및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안정과 여유를 통해 집중력과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파라미타는 2011년부터 서울교육청 직무연수로 일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으며, 2013년에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심화교육을 실습했다. 그 결과 청소년 인성프로그램 기본과정을 15개 학교와 사찰에 보급해, 557명의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마쳤다. 특히 파라미타 회장 정여 스님은 선방에서 실행한 선수행과 명상을 접목한 '명상선기공 13식'을 개발해 청소년 인성프로그램 지도자양성을 직접 지도했다.


정석고 학생들이 명상 수행을 하고 있다.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을 실행한 고봉중고 이계경 지도교사는 "학생들의 정서적 순화를 통한 재범방지 효과가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보하는 곳!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공고

Ⅰ. 사정원칙 및 유의사항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불교학과 신입생은 통신반으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한다.
5.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불가)
6.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 · 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7.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통신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Ⅲ. 전형일정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4. 12. 22(월) ~ 2015. 2. 9(월)	• 총무원 교무부
서류심사 결과통지	2015. 2. 10(화)	• 개별통지
입학전형 (필기_실기_면접)	2015. 2. 12(목) 10:00 ~ 16:00	• 전승관1층 강당
합격자 발표	2015. 2. 13(금)	• 개별통지

*입학전형의 필기_실기_면접고사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Ⅳ.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Ⅴ. 접수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 통	1.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기본증명서 1부 4.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6.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7. 사진: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1. 총무원 교무부 직접 방문 및 우편 발송 접수 2. 접수처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교무부 T.(02)739-3450 내선101

Ⅵ. 전형료

불교학과_범패학과 : 50,000원

입학문의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교무부
www.taego.kr
120-15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112)
TEL:02)739-3450 FAX:02)739-3470

“어려운 이웃 찾아다니는게 일이죠”

본동복지관, 복지사각지대 이웃 67명 발굴한 나눔 실천가 사업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에는 이웃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돌보는 나눔실천가가 있다. 지역주민 중심의 나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마을에 나눔을 더하다’ 사업 일환으로, 동작구민들로 이루어진 나눔실천가들은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내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전달한다. 폭넓은 정보력과 활동력으로 이들은 현물지원, 일상생활지원 등을 담당하며 복지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

현재 나눔실천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12명. 마을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통장은 물론 사교성 좋고 발이 좀 넓다 싶은 이들이 가입돼 있다. 노인정, 시장, 미용실, 음식점 등 어딜 가든 동네주민들과 만났다하면 주위에 어려운 이들이 없는지 묻고 다니는 게 이들의 일상이 됐다. 그덕에 지난해 3월부터 한 해 동안 67명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낼 수 있었다. 대다수는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이다.

이렇게 발굴된 돌봄이웃들에게는 식료품, 생필품 전달부터 전기안전점검, 김장나눔, 도배, 방역서비스 등이 제공됐다.

이 중 김장나눔은 재료마련부터 전달까지 나눔실천가들의 자력으로 일구어진 온전한 나눔활동이었다. 복지관 옥상 텃밭에서 알타리무 등을 심고 가꾼 후 그 수확물로 김장을 해 이웃들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다.

직접 복지현장에서 활동한 나눔실천가들은 하나 같이 “생각보다 어려운 이웃이 많아 놀랐다”고 말한다. 다양한 계층의 이웃들과 평소 교류할 기회가 없다보니 막상 내 주변에 사는 이들이 어떤 처지에 처해있었는지 관심을 기울일 계기가 없었던 것이다.

참가자 중 한명은 “밥상에 흔히 오르는 김치조차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사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김장김치가 꼭 필요한 이웃에게 내 손으로 이를 전달해 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성자(74)씨는 남은 인생을 뜻깊게 살고 싶어 나눔에 동참한 경우다. 그는 “좋은 일을 함으로써 나와 이웃 모두 행복해질 수 있었다”며 “나눔이 곧 행복이라는 사실을 이제 겨우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업홍보를 위해 지하철역에서 모금활동도 펼쳤다. “가족도 돌봐주지 않는 우리를 챙겨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느끼는 보람덕분에 남사스러운 생각도 잠시라고 했다.


나눔실천가들은 지하철 역 앞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홍보를 하며 모금활동도 펼친다.

통장 등 주민 12명 실천가 활동
소외층 발굴 물품 · 정서지원 앞장
탄탄한 지역 공동체 조직 중

나눔실천가들의 역할은 물품지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주민들이 직접 이웃들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도움을 받는 이들 역시 이전에는 느끼기 어려웠던 친밀함을 느낀다. 한 어르신은 “이웃이 직접 챙겨주는 선물을 받으니 추운 날씨에 몸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라며 나눔실천가들의 손을 꼭 잡았다.

이처럼 나눔실천가들은 인력수급문제로 복지 현장에서 차상위계층 등을 일일이 챙길 수 없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십분 담당해내고 있다. 실제로 이들이 발굴한 이들 중 몇몇은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대상자로 등록되기까지 했다. 향후 복지관으로부터 지속적인 도움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박성수 복지사는 “지역 내 이웃에 대해 관심이 많은 주민들을 발굴해 교육 등의 활동지원을 통해 나눔이웃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은 물론 지역자원 연계,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통해 상시적 인적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돌봄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점이 많은 사업이지만 풀어야할 숙제도 있다. 한달에 한번 나눔실천가들이 모이다 보니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동아리, 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지원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체적으로 나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나눔실천가들과 돌봄이웃간 유대를 강화하는 것도 한층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 것이다.

나눔실천가들이 만든 나눔지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중이다. 나눔지도는 향후 후원처나 물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 기관, 업체 등을 권역별로 표시한 일종의 후원처 개발리스트다. 나눔실천가들은 지난해 동작구 본동, 흑석동, 노량진동 일대를 탐방하며 복지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곳들을 표시한 지도를 만들었다. 복지관측은 이를 기반으로 후원처 발굴은 물론 음식점 등의 홍보게시판을 이용해 돌봄이웃 추천 · 나눔실천가 신규 모집 등을 위해 요긴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보자기 책가방 대신 에코백 선물해요

더프라미스, 개발도상국 어린이 위한 에코백 페인팅 캠페인 전개

더프라미스에서는 에코백 페인팅 캠페인을 실시한다.

변변한 가방 없이 학교를 다니는 개발도상국 어린이에게 에코백을 선물하는 캠페인으로 후원자가 직접 색칠하고 꾸민 에코백이 현지 어린이들의 책가방이 될 예정이다.



가방은 미얀마, 동티모르, 스리랑카, 인도, 말라위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에코백이란 유럽에서 시작된 환경 보호 운동의 하나로 비닐백, 종이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보급하기 시작한 천가방을 이르는 말이다. 가볍게 들 수 있고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더프라미스의 에코백 페인팅 캠페인은 후원자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재능기부인 만큼 가방 1개당 봉사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완성된 에코백을 더프라미스측에 보내야만 봉사시간이 인정된다.

가방은 1개에 2만원이며 1인당 2개까지 구매 가능하다.

에코백 키트에는 밑그림 도안과 염색물감, 붓, 팔레트 등이 포함돼 있다. 그림은 미술작가 장형선씨의 작품과 한국민화 중 랜덤으로 발송된다.

더프라미스 측은 “아직도 보자기에 책을 싸서 학교를 다니는 개발도상국 어린 학생들에게 좀 더 편안한 등하굣길을 선물하고자 기획된 캠페인”이라며 “후원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현지 어린이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이 더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더프라미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http://thepromise.or.kr)

배현진 기자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10만평 지뢰 제거

‘지뢰없는 공생평화마을’ 사업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가 캄보디아 11개 마을에 지뢰를 제거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구촌공생회가 캄보디아에서 지뢰를 제거한 면적은 298,317㎡(90,400평)로 축구장 13개 크기에 해당된다. 지뢰 54개, 불발탄 270개, 폭발 잔류물 31,672개 등 총 31,996개의 전쟁잔류물을 제거해 3,044명의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졌다.

캄보디아 지뢰제거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 지난해부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지뢰없는 공생평화마을’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하며 지뢰제거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2013년에는 2개 마을에서 지뢰를 제거했지만 지난해에는 지뢰 피해 사고가 일어나 긴급 투입된 지역을 포함한 9개 마을에서 지뢰를 제거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뢰 위험성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캄보디아 ‘지뢰없는 공생평화마을’ 사업은 월주 스님과 2012년 8월 만해평화대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된 캄보디아 평화운동가 아키라씨와의 인연으로 시작됐다. 지뢰 폭발의 위험성을 강조한 아키라씨의 설명에 지구촌공생회가 캄보디아에 다량의 지뢰가 매설된 지역과 피해자 인원 등을 조사하고 제거 사업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캄보디아는 1965~2000년까지 일어난 전쟁으로 전국에 약 천 만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지뢰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으며 생명까지도 빼앗는 흉기로 작용하고 있다. 캄보디아 당국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11년까지 지뢰 폭발로 인해 6만 3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약 2만 명이 사망했다.

지구촌공생회측은 올해 지뢰를 제거한 마을에 학교 및 우물 건립을 진행해 지역의 자립 운영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배현진 기자


프레하비헤르주룸첵마을 입구에 설치된 위험한 지뢰가 제거되었음을 표시한 입간판이 설치되었다.



다례 배우며 봉사활동도 대치노인복지센터(센터장 손화정)에서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례교육을 하는 ‘친구야, 모두 다(茶) 사랑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센터내 어르신 재능기부팀 다담회가 주축이 돼 아이들에게 전통문화와 경로효친 사상까지 전달한다. 1월 한달간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학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다례를 익힌 청소년들은 치매 어르신을 찾아뵙고 차를 대접하는 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 예절도 익히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다는 이점 덕분에 청소년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강북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 서울지역 1위

불교계 장수복지관인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조석영)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14년 전국 장애인활동지원기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월 12일 밝혔다. 이는 상위10%에 해당하며 서울지역에서는 1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평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전국 15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관운영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서비스제공과정, 절차 및 내용, 기관의 운영개선 등이 평가항목이었다.

그결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용자 만족도 역시 최상위로 평가받았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측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특성을 고려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활동보조인 교육 및 관리를 꾸준히 진행한 덕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5년 동산불교대학 46기 신입생모집[2년과정]

■모집학과 불교학과 [2월 7일(토) 오후 5시 개강]
●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1년차	과 목	1. 인도불교 2. 중국 · 한국불교 3. 법화경 4. 화엄경 5. 대승불교와 정토 6. 밀교와 천수경
	교수진	법산스님(학장),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정엄스님, 주명철교수, 종석스님, 정성준교수
2년차	과 목	7. 불교개론(아함경 1), 8. 불교문화와 포교, 9. 선불교 10. 근본불교(아함경 2) 11. 반야심경 12. 유식불교
	교수진	최종석교수, 이미령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박희준교수, 김호귀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 선 · 명상학과(위빠사나) [3월 5일(목)]
• 불교다도학과 [3월 10일(화)]
• 불교미술학과 [3월 5일(목)]

■모집인원(불교학과) 120명(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40명)
■제 출 서 류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원서교부 및 접수 2015년 1월 1일 부터
■문 의 02) 732~1206~8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처 :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 732-1206~8, FAX 02) 732-1207 www.dongsanbud.net

출강 및 통신 2015학년도 제 24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불교교육(법사) 신입생 모집

뛰어난 불교교육과 공정한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법사교육에 24년의 전통과 학적을 근본으로 하여 법사자격의 신뢰와 품위에 법통을 갖출 수 있습니다.
◆ 공정한 법사자격을 갖추고 불교지도자로서의 신행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 하여 보십시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5년 2월 27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15년간 공직사회 신행활동 주도… 봉사와 보시행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부모은중경을 독송하고 있는 공불련 회원들.


2014년 6월 공불련 회원 및 가족 400여 명이 수덕사에서 열린 합동수계법회에 동참하고 있다.

불교와 종단 외호하는 공불련

그간 정부와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위는 숱하게 있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 봉헌' 발언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지도에 사찰이 사라지는가 하면, 경찰청장은 목사와 선교포스터를 찍고 형사들이 불교계 어른인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차량을 수색했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자 지난 2008년 8월에는 20만여 사부대중이 모여 종교편향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렇게 불교계에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 마다 불교계의 목소리를 낸 단체가 있다. 바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이하 공불련)다. 공불련 회원들은 국가를 위해 봉직하면서 보이지 않게 불교와 종단을 외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정부부처 기관 내 불자회들은 정부의 정책 집행 시 조금이라도 종교편향적인 요소가 사전에 발견되면 바로잡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정법을 잘 모르는 사찰과 신행단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친절히 돕는 데에도 힘을 모았다.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이제는 과거의 위압적인 공무원의 모습보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시점에서 봉사와 보시, 자비를 가르침으로 불교 신행활동을 하는 공불련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전국 170여 기관 2만여 회원 활동

오는 10월 15주년을 맞는 공불련은 2000년 10월 감사원, 국가안전기획부 등 전국 47개 기관의 공무원 불자 700여 명이 오대산 월정사에서 모인 가운데 그 첫발을 내딛었다.

'나랏일을 즐겁게, 국민에게' 라는 기치를 내건 공불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각급 행정기관의 공무원 불자들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신행모임이자 교계와 기관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가톨릭이나 개신교에 비해 공무원 불자회의 출범은 늦은 편이었지만 창립 이후, 해마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공직사회에 불교 포교의 바람을 불어 넣었다. 매년 성지순례 법회와 수계법회, 창립법회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공무원 불자들의 결속을 다져왔으며, 소외이웃을 위한 집수리, 김장담그기를 비롯해 복지관 사회봉사 활동 등으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으로 옮겼다.

이렇게 15년간 공직사회의 신행활동을 주도해온 공불련은 2014년 말 기준, 전국 170여 기관 2만여 명의 등록회원을 보유한 대형 단체로 성장했다.

공불련이 주로 하는 역할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단위기관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조직을 융합하며, 회원 상호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있다.

송남출 공불련 간사는 "전국 기관 내 개별적으로 신행활동을 하는 불교 소모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불련이라는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활동하는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불련으로 통합시키고 불자 공무원간 결속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청사 이전, 불자회 이전보다 활성

전국서 소모임으로 불심을 키워오는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2012년 말부터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공무원불자회의 모습이 활성화 된 것이 눈여겨볼만 하다.

18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 등이 대거 이동하면서 지난 2013년 2월 4일 정부세종청사 불자연합회가 창립한 것이다. 연합회에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10여개 부처와 기관별 불자회가 소속돼 매월 1회 각 부처 회의실에서 김밥을 나눠먹으며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다. 또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불편을 겪는 불자들은 카카오톡 등으로 좋은 법문 글귀를 주고 받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한다.

그 결과 과천정부청사시절에는 20명도 채 모이지 않던 법회가 세종으로 옮겨지더니 70~80명이 참여하는 꽤 큰 규모의 법회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공불련이 외형적으로는 큰 규모의 신행 조직으로 자리 잡았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있다.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신입회원 및 젊은 공무원 불자들의 확보다.

김상인 공불련 회장은 "정기적으로 신행활동을 하며 불자회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사찰과 유대를 강화하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며 "신입회원 확보를 위해 포교에 나서거나 불자회가 설립되지 않은 지자체에 불자회가 창립될 수 있도록 공무원 불자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의무 다하는 참다운 공직자 되길"

공무원불자연합회 김상인 회장(소청심사위원장)



짧은 기간 동안 양적인 성장을 이룬 공불련은 아직도 할 일이 많다. 김상인 회장(소청심사위원장)은 공불련 창립 15주년을 맞아 중장기 운영계획 등을 밝혔다.

김 회장은 "700여명의 공무원 불자로 출범한 공불련이 현재 170여 기관 2만여 명의 등록회원을 보유한 단체로 성장했다"며 "하지만 기관불자수가 전체대상 300여개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공불련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김 회장은 기관불자회 임원들과 중심이 돼 신규회원 모집을 비롯해 숨은 불자 발굴하기 운동을 전개해 불자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1992년 7월 〈금강경〉 1만독을 서원하고 매일 1회씩 읽는 수행을 하고 있다. 그는 "올해 새롭게 추가한 목표중 하나는 〈화엄경〉을 원문으로 1회독 하는 것이다. 또한 무비 스님이 현토한 4권본을 열심히 읽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공불련 활동을 시작하고 회장직까지 수락한 것은 신행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직장동료들끼리 의지해 부처님처럼 행동하자는 뜻에서다. 그는 공무원불자들에게 "'나랏일을 즐겁게, 국민에게 기쁨을' 기치로 공불련이 세워진 만큼 회원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공직자로서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길 바란다"며 "온몸으로 깨닫는 각자(覺者)가 되기는 어렵더라도 머리와 가슴으로라도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을 익히고 새겨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참다운 공직자가 될 때, 부처님 제자로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① 2014년 수덕사 합동수계법회 및 성지순례 ② 연등회에 참가하는 공불련 회원들 ③ 2014년 통도사 임원연수 신년법회 ④ 돈황막고굴 성지순례 ⑤ 2011년 사회봉사의 날 소외이웃을 방문해 청소하는 회원들 ⑥ 정부세종청사불자연합회 회원들

■ 공무원불자연합회 주요 연혁

2000. 7. 8 ~ 9. 속리산 법주사에서 열린 '제2차 전국 직장 · 직능불교단체 지도자대회'에서 공무원불자연합회 조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 결집
10. 7 ~ 8. 전국 47개 기관의 공무원불자 700여 명이 오대산 월정사에 모여 한국 공무원 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 창립 및 제1차 합동수계법회 봉행
2001. 3. 24~25. 제2차 성지순례 법회
10. 6~7. 창립 1주년 기념법회
12. 9. 제2차 합동수계법회
2002. 1. 30 신년하례법회 개최, 포교원 후원으로 공불련 사무실 개소
3. 25. 부처님 성도열반재일 108 참회 발원 정진법회
8. 12~17. 제1차 해외성지순례 (10개 기관, 36명, 중국: 북경 · 오대산 등)
2002. 9. 28.~29. 창립 제2주년 기념법회(경남 양산, 통도사)
2003. 1. 18 신년하례법회(서울 강남, 봉은사)
6. 7. ~ 8. 제10차 성지순례 및 제4차 합동수계법회
10. 4.~5. 창립 3주년 기념법회
11. 2. 사회봉사의 날 '중국동포 불자와의 화합 한마당'
2004. 8. 15.~22. 제3차 해외성지순례(중국, 티베트)
11. 27. 사회봉사의 날 중증장애인 시설(구로동 브니엘의 집)
12. 10. 제3대 김세호 회장 취임 및 송년법회(서울 종로, 조계사)
2005. 6. 25.~26. 제5차 합동수계법회 및 제11차 성지순례법회(계사: 혜남 스님, 통도사)
10. 1. ~ 2. 창립 5주년 기념법회(충남 공주, 갑사)
10. 26. 사회봉사의 날 김장담그기(서울 은평, 삼천사)
2006. 4. 8. ~ 9. 제12차 성지순례법회 및 제3차 총무단회의(부산 금정, 범어사)
7. 30.~8. 5 제5차 해외성지순례(중국 구화산)
12. 2. 사회봉사의 날 김장담그기(성북구 사명당의 집)
2007. 3. 24.~25. 제14차 성지순례법회 및 제4차 임원단회의(충북 보은, 법주사)
7. 22.~29. 제6차 해외성지순례(11개 기관 52명 동참, 중국: 곤명 · 여강 · 중경)
10. 6.~7. 창립 7주년 기념법회(경북 경주, 불국사)
12. 18. 제5대 하복동 회장 취임 및 송년법회(서울 서초, 구룡사)
2008. 4. 19.~20. 제15차 성지순례법회 및 제5차 임원단회의(전북 김제, 금산사)
10.11.~12. 창립 8주년 기념법회(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11.15. 재경지역 제5차 사회봉사의 날(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
2009. 12. 11. 제6대 하복동 회장 취임 및 송년법회(서울 서초, 구룡사)
2009. 12.19. 제6차 사회봉사의 날(중증 장애인요양시설 거제도 반야원)
2010. 4. 17.~18. 제19차 성지순례법회 및 제6차 임원단회의(전남 구례, 화엄사)
8. 28.~29. 임원 및 각 기관 불자회 임원 템플스테이(경북 문경 대승사)
10. 8.~17. 창립10주년 기념 전시회(서울 한국불교역사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
10. 9.~10. 창립10주년 기념법회(강원 양양 낙산사)
12. 4. 제7차 사회봉사의 날(서울 종로구 경운동-서울노인복지센타)
2011. 3. 11. ~13. 임원 불교문화체험(대만 불광산사)
4. 9. ~10. 제20차 성지순례법회 및 제7차 임원단회의(강원 평창, 월정사)
6. 11. ~12. 제11차 합동수계법회(계사 : 영원스님, 충북 보은 법주사)
6. 24. 제8차 사회봉사의 날(6개기관 20여명 동참,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12. 4. 28 ~29. 제21차 성지순례법회 및 임시대의원 총회, 제8대 김상인 회장 취임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1월 26일 까지
◆ 개강일시 : 2015년 1월 26(월요일)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5년 2월 中 (매주 목)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불교의식 제10기 학인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승가회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립니다.

〈교육과정〉

기본의식 (3개월 단기)	도량석, 종송, 향수하래,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명시식.
중급과정 (범음 · 범패)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위 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작 법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 작법, 법고 막바라 (살풀이 가능함)
사 물	북, 태징, 목탁, 요령

◆ 모집대상 : 승려, 재가불자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개강일시 : 2015년 2월 8일(일요일) 오후 2시
◆ 수 업 : 매주(금 · 토) 오후 2시 ~ 5시까지
◆ 신청접수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8길 73-7번지 (구. 도동44) 팔공IC 5거리
TEL 053)986-1080 H·P 010-9361-5566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불교대학 · 무파사 학장 일관 합장

불교와 가톨릭 모두 먹는 것도 수행 정진

박문성 가톨릭대 교수, 〈인도철학〉 42집에서 소개

동서양을 막론하고 출가 수행자들은 음식과 관련된 엄격한 규정을 따랐다. 그 이유는 세속을 떠나 절제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가톨릭 신부의 신분으로 인도철학 박사를 받은 박문성 가톨릭대 동양철학 교수는 최근 〈인도철학〉 42집에 인도 쉬바교 파슈파타 학파의 음식규정과 가톨릭 수도승 음식 규정의 비교 고찰 논문을 실었다.

파슈파타학파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계율에 따라 음식창고나 주방을 소유하지 않은채 탁발로만 생계를 유지했다. 또 발우에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손으로 탁발할 수 없었으며 탁발 외에 직접 따먹거나, 주워먹는 것도 금지됐다. 파슈파타학파의 수행자는 아침에 도시와 마을을 차례로 탁발하고, 부유한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선택할 수 없었으며, 어떤 음식이 준비되는지 알수 없도록 집 문턱을 넘는 것이 금지됐다.

박문성 교수는 "이러한 규정은 불상해를 첫 번째 덕목으로 실천하는 수행자에게 피할 수 없는 규정"이라며 "그들의 삶의 특징은 불확실하고 불규칙적인 미래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정진의 삶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교수는 "수행자들의 탁발은 넓은 지역을 돌아다녀야 하는 수고로움, 구걸을 위한 겸손함, 모멸감, 원치 않는 음식에 대한 당혹감 등이 함께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이는 속박의 원인인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동기부여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가톨릭의 정주 수도승들은 규칙적인 삶을 중시했는데, 이는 절제

가톨릭 신부 출신 인도철학 박사

인도 쉬바교 · 불교 · 가톨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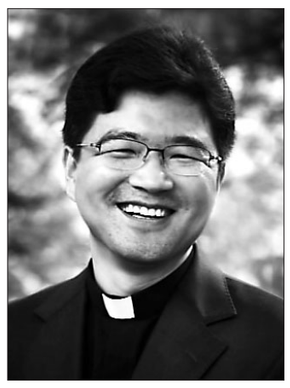
된 삶을 지향했기 때문"이라며 "탐식의 욕정을 다스리고, 수도승이 서원한 가난을 준수하고, 이 시간을 더불어 기도와 독서나 묵상과 같은 영적활동을 할 것을 함께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육식에 대한 파슈파타학파와 초기불교, 초기가톨릭의 관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파슈파타학파와 초기불교에서는 자신을 위해 죽인 것을 보고 듣지 않은 청정한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은 허용됐다. 하지만 불교는 사람, 코끼리 등 10종류의 고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먹을 수 없었다.

박 교수는 "가톨릭의 사막교부도 고기를 먹기 않는 것을 수행의 일부로 여겼다"며 "베네딕도는 '네발 가진 짐승의 고기'로 금지내용을 한정해, 조류와 물고기는 허용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수행자들에게는 식사시간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거나 입을 즐겁게 하는 시간이 아닌 종교적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시간임에 공통점이 있다"며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식사시간에 먹는 음식의 종류와 먹는양, 속도 등에 대한 자기 절제와 규칙성을 되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42집에는 △정호영 충북대 철학과 교수의 '시대와 삶과 학문과 불연이기영' △정승석 동국대 교수의 '향운(香雲) 정태혁 박사의 학문과 실천: 배우며 생각하며 수행하며 전념한 후학양성' △황용식 명상연구자의 '서경수 교수의 업적과 현대 인도철학에 의한 전망' △이태승 위덕대 교수의 '일본 근대 인도철학의 성립



박문성 가톨릭대 교수

과 하라탄잔(原坦山)의 역할' △박문성 서울대교구 신부의 '파슈파타학파와 그리스도교 수도승의 음식규정에 대한 고찰' △출라롱콘대 태국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법진 스님의 '동남아시아 빨리어 문자와 불교사본' △박경준 동국대 교수의 '대지도론에 나타난 대승의 염불과 선' △안성두 서울대 교수의 '삼무성론에 나타난 진제의 삼성설 해석의 특징' △황순일 동국대 교수의 '연기법송, 아리야 운율, 그리고 빨리 율장대품'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도철학불교학硏, '사찰음식' 학술포럼

동국대 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소장 정승석)는 2월 28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행복한 치유로 이끄는 한국 사찰음식, 근원과 방향 모색'을 주제로 사찰음식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학술포럼에서는 대전 영선사 주지 법송 스님의 '한국 사찰음식의 특징과 실제 현황' 기조발표를 비롯해 △이자랑 동국대 교수의 '진정한 미식(美食)은 무엇인가-불교 수행자의 음식 규정' △김재민 불교대학원 교수의 '고행 수행자의 음식과 식사법' △김미숙 동국대 교수의 '한 · 중 · 일 3국의 불교 사찰음식 비교' △허남결 동국대 교수의 '웰빙과 힐링의 사찰음식 윤리' △정승석 동국대 교수의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요가 명상수행자의 이상적인 식생활' 등이 발표된다.

이날 학술포럼에서는 연잎 쌈, 우유죽, 당근죽, 인도 차, 인도 커피 등 사찰음식과 인도 수행자 음식을 시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도 제공될 예정이다.

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측은 "사찰음식의 원형이라 할 불교 수행자의 생활방식을 가장 오래된 연원, 인도에서 찾아 불교 수행자의 식생활 원칙의 근거와 원류를 밝혀낼 예정"이라며 "21세기에 들어서 새로이 형성돼 가고 있는 신학문 분야인 불교음식학을 정립하는데 명실상부한 초석을 놓는 심포지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모집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원장 윤영해)은 2015학년도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계약학과)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각종 회의 및 전통사상서 번역, 템플스테이 운영과 지도 등 관광산업과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

학년 당 10명 내외의 정원으로 석사과정 5학기제로 운영된다. 지원 자격은 학사학위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이며, 원서 접수는 1월 28일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로 지원 가능하다.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의 신입생 전원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종단장학금으로 지급하며, 기숙사와 해외연수, 의료비 할인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홈페이지(http://gsb.dongguk.ac.kr)에서 볼 수 있다. (054)770-2392

노덕현 기자

"불교학계 쇄신해야, 시대 흐름에 앞서"

조명제 신라대 교수, '불교학회에 대한 성찰과 전망'에서 비판

불교학계가 학술업적의 양적 팽창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한 학자의 뼈아픈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조명제 신라대 교수<사진>는 한국불교사연구소가 발간하는 인문학 계간지 〈문학/사학/철학〉 2014 겨울호에서 '불교학회에 대한 성찰과 전망'을 통해 논문 양산 행태를 비판했다.

조 교수는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불교학은 권한도 어느 정도 확보했으나, 연구시각이나 학계 내부 문제 등에 관심을 갖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또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학계에서 그 것이 논의로 발전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BK, HK사업 등으로 국가 지원 연구사업이 진행되는 연구소 중심으로 학술기관이 재편되며 학회가 활력을 잃고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또 학회가 지나치게 전문화되지 못하거나 특화되지 못한 채 불교학 전반을 다루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꼽았다.

조 교수는 "한 마디로 학회의 차별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 불교사학회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 분야 전공자로서 부끄러울 정도"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학술 논문 게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뱉었다. 특히 학술지 간행 행태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 교수는 "연구비를 타먹으려는 이들로 논문이 쓰레기 논문이 양산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라며 "이로 인해 논문 투고에 있어서 원고료를 주기는 커녕 거꾸로 30만원 안팎의 게재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행태가 이어지면 비정규직 연구자나 대학원생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질적 성장이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논문에 대해 제대로 된 비평을 가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엄격한 실명 비판과 논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끝으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불교 분야 학문이 새롭게 대응하는 기반이 학회라고 생각한다"며 "연대와 협력의 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재가자 수행열풍, 학문적으로 어떻게 보나

불교학연구회 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진행

재가자들의 수행문화를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1월 24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재가자 수행열풍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겨울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재가자 수행현황에 대해 윤종갑 부산대 교수의 '부산지역 수행현황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되며 △중앙승가대 교수 재마 스님의 '템플스테이와 재가수행' △장재진 동명대 불교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의 '한국불교에서 재가수행의 역사 개관'이 각각 발표된다. 여기서는 신라, 고려, 조선, 근현대의 인물들이 개괄적으로 소개된다.

워크숍의 백미는 이후 진행되는 종합토론이다. 임순희 '릴라 선공부 부산모임' 지도법사,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박희승 한국문화연구원 교수 등이 종합토론에 나선다. 앞의 발표자들이 재가수행의 '현황'과 '역사', '템플스테이와 재가수행의 관련성'에 대해 이론을 발표하면 현장 전문가들이 수행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금강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임순희 지도법사는 부산대 등지에서 선수행모임을 지도하고 있다. 박희승 한국문화연수원 교수는 서울 지역 선수행 현황을 통해 재가수행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불교학연구회 측은 "한국불교계에서 재가불자의 수행단체가 속속 들어서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재가수행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재가수행이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지 진지하게 검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학연구회가 발간하는 〈불교학연구〉는 통권 41호부터 기존 종이잡지에서 전자저널 형태로 바뀌어 간행된다.

전자저널은 이북(E-Book)과 피디에프(PDF) 파일 두 가지로 만들어져 회원들에겐 전자메일로 발송된다. 〈불교학연구〉의 전자저널 간행은 지난 해 11월 29일 상임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학회 회원 및 연구자들 사이에선 사회의 디지털화에 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왔다.

그러나 불교학연구회는 종이잡지를 필요로 하는 회원들을 위해 비록 소량이지만 계속 전자저널과 병행해 발간키로 했다.

노덕현 기자

국가문화유산포털, 디지털콘텐츠 확대 개편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정보 개방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유산 디지털콘텐츠 통합 서비스인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을 1월 12일 개편했다.

사이버문화재탐방관은 디자인을 새롭게 단장하고 콘텐츠 30여 개를 보강했으며, ' 기록유산관 '은 〈조선왕조 의궤〉, 〈승정원일기〉 등 규장각과 장서각 소장 조선왕실도서의 원문 이미지, 텍스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열람은 1월 19일부터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고품질 3차원 영상을 제공하는 '문화유산 3D',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유산 이야기를 소개하는 '문화유산 이야기' 코너를 신설했다.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유산포털에 등록된 사진 3만 3800여 건과 도면 8만 8300여 건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또 수화와 자막, 음성해설이 반영된 영상 10편을 국가문화유산포털과 복지TV를 통해 제공한다.

한편, 국립국악원(원장 김혜숙)도 1월 7일 공공지식 정보개방과 확대를 위해 고서 277권, 1만 3741면 원문을 국립국악원 홈페이지(www.gugak.kr)를 통해 서비스한다. 고서 원문 전체는 PDF와 인쇄가 가능하며 SNS를 통해서도 공유가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불교문화〉 21집 원고 모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공동회장 이진오, 조수동)는 2월 15일까지 〈동아시아불교문화〉 제21집 원고를 모집한다.

논문투고 분량은 〈동아시아불교문화〉 편집 기준 25쪽 이내로 초과 시 추가비용이 부담된다. 심사료는 3만원으로 게재될 경우 연구비 수혜 논문은 전임 30만원, 비전임 20만원, 일반 논문은 전임 10만원, 비전임 5만원의 게재료가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www.easternasia.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 · 중급과정
-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 가지게

◆ 개강일시 : **수시모집 가능**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강주스님 :** 성 우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공주 마곡사 일대 문화관광 육성 추진

공주시, KTX 공주역 개통 앞두고 관광진흥책 일환

충남 공주시가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희망관광도시 조성에 나선다. 마곡사를 비롯해 갑사 등 계룡산 일대의 불교문화권과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 역사문화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1월 6일 공주만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유적을 최대한 활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관광콘텐츠를 개발,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의 2015년 3월 개통과도 연관되어있다. 공주역을 중심으로 크게 계룡산과 마곡사 일대, 공주 · 부여의 백제문화 등이 개발된다.

공주시는 이를 위해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공산성과 무령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마곡사 주변과 인근 무성산을 연결하는 광역 관광권역을 개발해 나간다.



'테마로 떠나는 신나는 공주 나들이' 관광안내 책자


공주시가 관광진흥 차원에서 지원하는 공주 마곡사 전경

공주 마곡사-무성산지구 연계
관련안내책자 3000부 사전 배포

공주를 대표하는 사찰로는 마곡사와 동학사, 갑사가 있다. 마곡사 관계자는 "백제시대 창건된 마곡사는 〈정감록〉이나 〈택리지〉에서 기근이나 전란의 염려가 없는 곳으로 꼽힌 곳"이라며 "일제강점기 김구선생님이 은거하기도 했다. 선생님이 다니던 길을 따라 만든 백범 명상길은 솔향기를 맡으며 산책하기 좋으며, 번뇌를 씻어내는 템플스테이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공주시는 계룡산, 갑사, 마곡사, 석장리 박물관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테마별로 묶은 '테마로 떠나는 신나는 공주 나들이' 관광안내책자 3000부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기존 '박물관 체험 나들이', '딱 한 시간만 걸어요', '근대건축물 돌아보기' 등 기존에 개발된 15개 프로그램에 '공주의 사방에 있는 석굴사원' '의승과 열사를 만나다' 등 불교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또 석장리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충남역사박물관,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과 선사시대에서 백제와 고려, 조선, 일제 강점기까지 도처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유적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아울러, 자전거여행, 산책코스, 캠핑, 농촌체험, 순례성지 등 주요 관광자원을 목적에 맞게 테마별로 엮어 관광객의 취향에 맞도록 선택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주맛집과 시티투어, 관광안내지도도 함께 수록해 관광객의 편의를 한층 도모했다.

이밖에도 관광 스토리 발굴, 팸투어 활성화, 선진형 관광홍보시스템 구축, 관광 자매도시 확대 등 적극적인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추진 중부권을 대표하는 관광중심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오시덕 공주시장 "2015년은 역사와 문화도시로서의 공주의 정체성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특히 불교와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중부권 대표도시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빛고을 전통등강습회 성료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서울 연등회 보존위원회의 지원으로 '빛고을 전통등 강습회'를 개최했다. 광주불교회관 전통등공방 열린 이번 강습회는 광주지역 사찰과 불교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엄등 4개를 만드는 과정으로 전체 4일간 36시간의 강습회가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덕사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으로

광주 선덕사(주지 원묵)는 1월 25일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 선포식을 봉행한다. '붓다로 살자'는 종단 자성과 쇄신 결사의 성과를 이어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부대중이 자발적으로 수행과 보살행에 참여하는 의식개혁운동이다.

선덕사는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광주도량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포교사찰로 작은 도서관인 '틔움'을 설치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마을사랑방 '씨앗이 바람을 만나'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전법 중심 도량으로서 지난해에는 15개 우수 사찰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신도 기본교육과정인 걸음마학당을 수시로 열었다. 2014년에는 신도 전문교육과정인 무등불교대학을 개설하는 등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포식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친필 휘호 전달과 함께 선덕사 청규 제창, 붓다로 살자 발원문 합송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덕사는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 선포를 계기로 향후 △걸음마 학당(입문교육), 불교대학 등 신도 교육 프로그램에서 '붓다로 살자' 불교관과 실천론을 교육하고 △선덕사 실천 청규를 제정하고 포살을 시행하며(붓다로 살자 실천 지침 마련 및 보급) △붓다로 살자 캠페인 등의 실천운동을 마련해 구체적인 삶으로 실현하도록 정진할 계획이다.

선포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본부장 도법 스님이 '붓다로 살자' 불교관과 실천에 대해 법문할 예정이다. 또 종정 진제 스님의 '붓다로 살자' 휘호가 전달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시설, 게이트볼 장 개소

13일에는 'Nanum Store' 착한사업장 1호점 현판식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에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책임질 게이트볼장이 개관했다.

고창사회복지시설은 1월 12일 선운사복지재단 대표이사 법만 스님, 이상호 고창군의회 의장 고창군 게이트볼장 연합회 김원식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고창군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의 개관을 축하했다.

대원 스님은 "고창군노인복지관 게이트볼 개소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며 "복지관에서는 게이트볼장의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군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은 총 1억 4000여 만원의 사업비로 대지 6,705㎡에 연면적 488.04㎡의 실내경기장으로 조성됐다.

고창노인복지관 회원 변영철 어르신은 "노인복지관에 게이트볼장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준 고창군과 복지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군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은 주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며 전문강사의 지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선운기초푸드뱅크는 13일 Nanum Store 착한사업장 1호점 현판식을 진행했다. Nanum Store 착한사업장은 지역에서 주민이 하나가 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문화를 보급 ·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산장학재단 장학금 수여 및 신년법회

총 1850만원 지역 학생 14명에게 전달… 5년간 7700만원

백산장학재단(대표이사 도영, 완주 송광사 회주)이 미래의 꿈나무 2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백산장학재단은 1월 14일 전주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제5차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전북제일고 김지은 학생외 6명의 고등학생에게는 각 50만원, 전북대학교 권기철 학생 외 14명의 대학생들에게 각 100만원 등 총 18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유남희 전북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삼귀의, 초전법륜경 봉독, 신년하례, 발원문 낭독, 경과보고, 장학증서 수여, 법어, 호남오페라 단의 공연순으로 진행됐다.

을미년 신년하례를 겸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백산장학재단 대표이사 도영 스님,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대전 죽림정사 주지 광진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송하진 전북지사 내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각 사찰의 신도 불자 600여 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도영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전법을 선언하셨듯이 무엇보다 인재육성이 가장 우선이라는 신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며 "항상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생각으로 생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최영현 군(원광대학교 교육학과)은 "오늘 받은 장학금으로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린 것같아 기쁘다" 며 "사회에 진출해서 이같은 장학사업에 힘을 보태겠다" 고 말했다.

한편, 백산장학재단은 도영 스님이 사재를 출연하고 기금 마련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3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지난 2010년 9월 출범했다.

출범 이후 5년간 총 150여 학생들에게 총 7700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꾸준한 재원확보를 통해 기본재산 6억 8000여 만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선임 파문

한국불교미륵종의 총무원장 권한대행 선임에 종도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불교미륵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영각)는 1월 13일 총본산 김해 관음정사에서 종단 정상화를 위한 종도 결집대회를 갖고 "현 사태를 초래한 종정스님은 책임을 지고 교시를 철회하고, 현 사태를 주도한 법인이사진은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법인이사 4명이 결탁하여 종도들을 배제하고,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권한대행을 선임 하였으며, 탈법과 편법이 자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종정 스님은 종회를 해산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선임된 권한대행은 독선과 독주로 파행적 종단사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남 창원지법에 '총무원장 권한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불교계 신문에 권한대행 선임의 부당함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27일 前총무원장 송정 스님의 1주기 다례재에서 총무원장 덕운 스님이 사의를 표한 후, 12월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후임 총무원장을 법인이사회에서 선임하기로 결의했으나 12월 23일 종정 무불스님 교지를 통해 묘각스님을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선임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종도 31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영각 스님은 "법인이사장과 수차례 만나 타협을 하였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탈법과 편법으로 선임된 직위로 행해지는 파행적 종무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종도스님들도 비상대책위원회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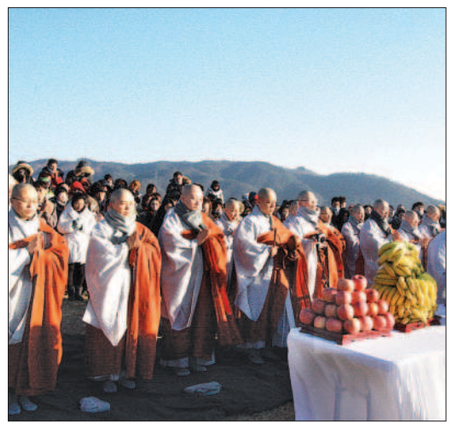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Again 1994’, 대행 스님 경주 지역 답사

제11회 한마음선원 청년회 전국연합 수련회 현장





한마음선원 청년회 전국연합수련회가 1월 9일~11일 한마음 선원 울산 지원과 경주일대에서 열렸다. 사진 오른쪽은 천도재, 왼쪽은 경주 답사 장면.

경주 답사하며 역사의 중요성 새겨

백희성 건축가 특강·촛불재도 눈길

전국 한마음선원 청년들이 경주 답사를 통해 통일과 화합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11회 한마음선원 청년회 전국연합수련회가 1월 9일~11일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 · 이하 울산지원)에서 열렸다.

수련회 첫날인 1월 9일에는 안양본원을 비롯한 전국 한마음 선원 15개 지원에서 참석한 350여 명의 참가자들과 청년지도부 법사스님들이 입재식을 가졌다. 이어 참가자들은 대행 스님의 법문 자료를 보며 전국청년수련회 개최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답사의 주제는 ‘허공을 걷는 길’이다. 이에 대해 울산지원 청년회 지도법사 혜자 스님은 “허공을 걷는 길은 대행 스님의 법어집 〈허공을 걷는 길〉에서 발췌한 제목”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돌아가는 것을 알고 허공처럼 걸림이 없는 대자유인,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면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답사 ‘허공을 걷는 길’은 1994년 대행 스님이 경주 역사 문화재를 돌아보고 역사와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되짚어보기 위해 개최됐다.

당시 대행 스님은 “삼국시대 원광법사의 세속오계는 신라백성의 정신지침으로 불교로써 백성을 교화시켜 나라의 기반을 잡도록 했으며 그 힘은 삼국 통일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삼국시대 각 나라 간의 전쟁은 많은 희생자를 낳았고 그 업으로 지금도 영향을 끼쳐 남북 분단과 각 지역의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음날인 1월 10일에는 본격적인 답사에 앞서 혜자 스님을 비롯한 법사스님들과 전국 한마음 선원 청년들이 황룡사지서 ‘화합제’를 열었다.

이 행사는 과거 전쟁 참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화합과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문화해설사와 함께 불국사, 감은사지, 국립경주박물관, 석굴암 등을 답사했다. 특히 불국사에서는 해체한 석가탑을 보고 불국사 무설전에 봉안된 석가탑 사리를 직접 친견하기도 했다. 답사 마지막 코스인 문무대왕릉에서는 회향식을 봉행하고 문무왕의 애국정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열었다.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온 이경택(22) 씨는 “대행 스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답사를 하니 감회가 남달랐다. 천도재를 지내는 곳곳마다 대행 스님의 말씀이 생각나 의미가 새로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보영(37) 씨는 “문화해설사의 설명 들으며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무엇인지 실감했다”고 전했다.

답사 후 프랑스 최고 권위의 건축상인 ‘폴 메이몽상’을 수상한 백희성 건축가의 특강도 이어졌다. 10년 전부터 파리에 살고 있는 백희성 건축가는 “출국 전 한마음 선원에서 공부하며 대행 스님이 강조한 관(觀)노트를 적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백 씨는 청년들의 꿈, 직업, 친구, 가정 등의 고민을 직접 듣고 문답의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촛불재가 열렸다. 촛불재에서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은 “통일에 대한 불교의 역할을 돌아보고 화합을 기원했던 여러분들의 발자취는 평화에 기여하며 헛되지 않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꽃등을 나눠 든 청년들은 서로 촛불을 이어 붙이며 ‘자성본래불(自性本來佛)’을 함께 외며 불심을 다졌다. 참가자들은 도량탑을 연이어 돌고 대웅전을 향해 ‘푸르게 살라’ ‘대장부’ ‘스승의 은혜’ 등으로 음성공양을 올리고 연꽃등을 대웅전을 향해 장엄하며 촛불재를 회향했다.

11일 마지막 날에는 각 답사에 대한 소감을 나누며 조별 발표와 회향식과 함께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

광명선원에서 온 권오현(24)씨는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했던 법우들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했던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며 “헤어짐이 아쉽고 다음에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며 참석 소감을 밝혔다.

울산지원 청년회 지도 법사 혜자 스님은 “앞으로 청년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생활지도로 꾸준히 정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전국 청년 수련회와 청법회를 개최해 나갈 것”이라며 계획을 밝혔다. 울산=하성미 기자

수행환경 방해하는 ‘케이블카’ 반대

1월 15일 울산시청서 대책위 구성 발족식

영축환경위원회(회장 보원 스님 · 통도사 사회국장)는 통도사 수행환경을 훼손하는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영축위환경위원회는 해남사 주지 만초 스님, 울산환경운동연합(대표 한상진)과 함께 ‘신불산케이블카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15일 울산시청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대책위는 기자 회견을 갖고 세금낭비, 자연공원 훼손하는 울산시와 울주군의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 반대를 주장했다. 영축환경위원회 회장 보원 스님은 “신불산 케이블카 중간 지주가 설치되는 곳은 70년 이상 된 숲으로 백두대간 낙동정맥이 지나는 구간”이라며 “울산시와 울주군은 자본의 논리만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스님은 “개발규제 완화의 희생자는 시민이라며 자연훼손 뿐 아니라 국비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적자일 경우 세금으로 운영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사업”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신불산 케이블카 대책위원회는 요구사항으로 신불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와 경관 평가의 공동조사를 주장했다. 대책위는 “울산시와 울주군은 신불산 사업예정지의 환경평가를 왜곡 축소 발표하고 있다”며 케이블카 사업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신불산케이블카 추진비용 증액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영축환경위원회는 “300억에서 500억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용편익 자료를 신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영축환경위원회 회장 보원 스님은 “신불산은 영축산과 2.8km 떨어진 지역으로 케이블카 설치 시 많은 관광객으로 인한 자연 훼손과 통도사 수행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님은 “올 하반기 실사예정인 통도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한편 울주군청 관련 담당자는 “케이블카 사업은 내부 검토 사안”이라며 “추진 여부를 말하기 어려우며 확정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하성미 기자



영축환경위원회는 1월 15일 울산 신청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등장학재단 제 10회 장학금 전달식

1월 14일 대구시교육청 강단서



제2석굴암 주관 연등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장면

연등장학재단 제10회 장학금 전달식이 1월 14일 대구시교육청 강단에서 열렸다. 조계종 팔공산 제2석굴암(주지 법등)에서 주관하는 대구 경북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행사에는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수혜자 학생들은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법등 스님께 고마움을 갖기를 바란다. 앞으로 사회로 나가 삶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일 교수(前경북대 총장)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 넘어 인내하고자 하는 원동력으로 사회, 국가와 세계를 바꾸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재단법인 연등장학재단 이사장, 조계종 팔공산 제2석굴암 주지 법등 스님은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과 자리이타의 보살도 정신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기둥과 대들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장학회를 설립했다”며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마음은 그리는대로 이루어진다면서 학생들은 마음에 아름다운 그림을 마음껏 그려,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진각종 부산 교구청, 신년하례법회

1월 13일 부산 범석심인당서



진각종 부산교구청 신년 하례법회

진각종 부산교구청(청장 효원 정사)은 1월 13일 부산 범석심인당에서 2015년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진각종 부산교구청은 2015년 청소년 포교와 문화 사업에 역점을 둘 것을 다짐했다.

진각종 부산교구청은 “청소년 포교를 위해 비로자나 청소년 협회와 연계해 청소년 캠프, 페스티벌, 국제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각종 어린이불교학교 ‘자성학교’를 위해 전담교사를 꾸리고 체계적 관리를 도모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문화사업을 위해 ‘회당문화축제’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회당문화축제는 진각종의 종조 회당 손규상 대종사가 탄생한 탄생지인 울릉도에서 진행된다.

효원 정사는 “작년에는 국가의 큰 재난으로 온 나라 온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비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효원 정사, 문연주 신도회장을 비롯해 부산 경남 심인당 소속 정사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한국불교대관음사 신년 교례회 및 포교 발대식

1월 10일 큰법당 옥불보전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회주 우학)는 을미년 새해를 맞아 1월 10일 큰법당 옥불보전에서 신년교례회 및 포교발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국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주지 스님들과 신도대표, 신행, 봉사단체 임원진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불교 대관음사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널리 펴기 위한 1만명 포교 발대식을 갖고 ‘참 좋은 공동체’의 원력을 서원했다. 또한 2015년 불교의 당면 과제와 포교활동 방안에 대한 계획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불교대관음사 신년교례회 및 포교발대식이 1월 10일 옥불보전에서 열렸다.

JJUN Heating System Mo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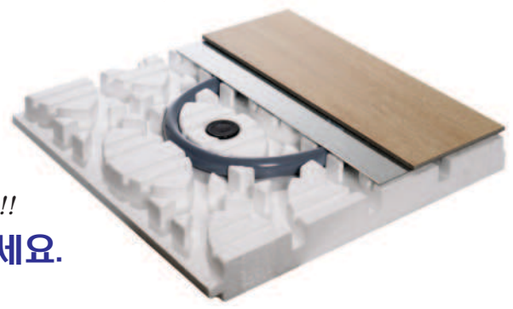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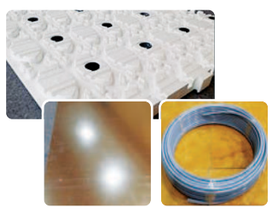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1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2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3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04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강북 : 010-9298-9608 익산 : 010-6610-2337 울산 : 010-4597-5577
여수 : 010-3612-7784 강남 : 010-5097-8291 광주 : 010-7119-1368
양산 : 010-6294-6126 남양주 : 010-9183-9729

대구불교의식 범음.범패



제3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염불경력 52년 팔공산 염불소리 최종 보유자!

음반제작, 사모곡, 참회곡, 예불천수경,
회심곡, 백발가, 장엄염불 (시판중)

■ 교육과목 :
● 요령목탁사용법 : 도량석,종성, 조석예불, 행선축원,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전시식, 화엄시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구병시식, 시련, 대령관욕, 시왕불공, (상가)시다림염불, 봉송편, 방생편,(각축원편)
● 작 법 : 복청게, 천수바라.화 의재바라. 오공양작법(별도)

■ 교육과정 : 전과목 10개월 (수시모집)
■ 개강일시 : 2015년 (양) 1월 28일 (음) 12월 9일 (수요일) 개강
■ 교육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2시간) 교재는 무료입니다.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문의사항 : 교육원으로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 문의전화 : ☎ (053) 781-4200.
H·P 010-7647-0108, 010-2542-2227



대구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장 동현 합장

내 마음을 사뿐히 내려놓는 寂滅의 공간

〈적멸〉

적멸보궁이 있는 사찰

① 홍천 자명사



산신각 밑 산허리에 자리잡은 적멸보궁이 위엄스럽게 자리잡고 앉아있다.



진신사리를 모신 탑이 유리창 너머로 멀리 보인다.



열반상을 모셔놓은 무설전 내부

사리탑에 태국서 가져온 진신사리 모셔

태국 승왕이 창건주 스님에게 하사

낙성식때 대만 스님들 108명 참석하기도

무설전에 조성된 열반상도 볼거리

1월 중순 강원도는 이제야 겨울답다. 눈 속에 산과 강이 잠겨 세상이 적요해지면서 비로소 겨울이 절정이다. 눈가뭄에 시달리다가 연거푸 내린 함박눈으로 삼라만상이 하얗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내린 눈이라 더 반갑다. 고만고만한 농가들이 눈 속에 잠겨 물결 같은 밭고랑 흔적만 남아있는 홍천 자명사 가는 길. 강원도에서도 홍천은 범속한 세상과 좀 떨어진 곳이다. 설원은 마치 스펀지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를 빨아 들인다. 도시의 소음에 시달린 여행자들이 고요와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곳. 세상을 피해 침잠하며 수행정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겨울 여행지로는 제격이다. 세상이 좋아지면서 길도 좋아졌다. 산은 깊지만 서울서 1시간 30분 정도면 자명사에 충분히 다다를 수 있다.

속가와의 경계는 일주문이다. 겨울이라 앙상한 나무가지만 도열해 있지만 숲을 걸어서 들어야 산사의 운치를 맛볼 수 있다. 일주문서 사찰 입구까지 700m 정도는 족히 돼 보인다. 거리는 짧아도 오르막이라 숨이 턱까지 찬다. 계곡과 나란히 걷는 길이다. 겨울 계곡은 눈으로 덮여 있다. 모난 바윗돌도 백설에 덮여 둥그스름하다. 설경이 곱고 아름다운 것은 이처럼 세상의 모든 뿔과 티끌을 덮고 있기 때문이다. 반쯤 얼어있는 개울에서는 물소리도 숨을 죽여 흐른다. 눈길에는 간혹 동물의 발자국만 또렷히 남아있다.

산세가 깊어 자명사는 일찍 해가 진다. 오후 2시밖에 안됐는데도 햇빛은 제몸을 잘게 부수어야 겨우 땅에 닿을 수 있다. 진입로에는 눈이 간간히 쌓였다. 발자국 소리만 정적을 깨는 눈길. 한 걸음에 추억이 되살아나고, 두 걸음에 마음이 고요해진다.

절집에 들었다. 자명사는 단출하다. 대여섯 채 가람들이 전부다. 이 작은 절집은 성지다. 적멸보궁에 모신 사리 때문이다. 산신각 밑 산허리에 앉은 적멸보궁 현판이 눈에 들어온다. 적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다. 적멸보궁에는 부처님 진신이 있기에 불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자명사도 마찬가지다. 적멸이란 번뇌를 깨치고 해탈한 경지다. 적멸은 곧 열반을 뜻한다. 적멸보궁으로 가는 길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한다. 이 길에서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적멸의 공간으로 향하는 데 무슨 생각이 필요할까.

자명사는 적멸보궁 때문에 생긴 절이다. 역사는 30년 남짓 짧다. 창건주인 효성 스님이 평소 인연이 깊었던 태국 승왕으로부터 진신사리를 받고 모실 곳을 찾으러 만행기도를 다니던 중 이 곳 문수산을 발견했다. 이 곳서 수개월간 산신기도를 하던 효성 스님은 어느날 꿈에 코끼리를 타고 하강하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이후 1천일 기도끝에 이 곳에 탑을 조성해 진신사리를 모시고 보궁을 지었다.

진신사리탑 낙성식에는 당시 똑같이 태국 승왕으로부터 사리를 받은 대만 자명사 스님들 108명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었다고 한다. 사리를 모신 기념으로 사찰명을 대만과 한국에 자명사로 똑같이 지은 것이다.

흔히 적멸보궁하면 양산 통도사,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정선 정암사, 영월 법흥사의 적멸보궁을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으로 친다. 신라 때 자장이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가져온 부처님 사리와 정골(頂骨)을 나눠 봉안한 도량들이다. 그런 천년고찰과는 비교도 안되지만 자명사는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며 소박한 기도처로 자리하고 있다.

주지 지명 스님은 "언제든지 누구나 찾아와 기도정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도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1천일 나한기도를 지난해 3월 입재해 진행중이며 앞으로 나한기도 전문도량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두루뭉술해서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자명사 가는 길. 법당을 모두 새로 올려 예스러움은 찾을 길 없지만 속세서 맺힌 마음의 매듭을 풀어놓을 만한 곳이다.

홍천 자명사=김주일 기자

주변 가볼만한 곳

▲겨울 스포츠 천국,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인 스키와 보드를 즐길 수 있는 스키장도 있다.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매봉산 자락에 있는 대명 비발디파크는 서울과 가까운 거리인 데다 대규모 스키장을 갖춰 겨울이면 스키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대명 비발디파크는 13면의 슬로프로 이루어져 있고 곤돌라 1기를 포함해 10기의 스키리프트를 운행한다. 하루에 최대 2만 명까지 수용하는 규모로 초급자 · 중급자 · 상급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자명사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다.



무궁화마을에서는 다양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무궁화마을

홍천은 무궁화의 고장으로도 유명하다.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는 있는 무궁화마을은 홍천에 오면 꼭 들려야 할 관광 명소 중 하나다. 독립 운동가이자 교육자였던 한서 남궁억 선생이 1918년 낙향한 곳이 지금의 무궁화마을이다. 마을에 학교와 교회를 지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일제의 감시 속에서도 겨레의 꽃 무궁화를 온 나라에 퍼뜨리기 위해 애썼다.

무궁화마을에서는 계절에 따라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사계절 가능한 무궁화 우산 만들기, 지끈공예, 짚풀공예가 인기 있다. 무궁화 티 파티, 무궁화 화전 만들기, 관람차 타고 마을 여행하기, 배바위 앞에서 카누 타기, 다듬이 소리 공연, 농사 체험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겨울축제

홍천군은 겨울 축제행사가 많다. 인삼한우 축제를 비롯해 발구타기, 팽이치기, 초가집 풍경과 전통문화 체험, 바람개비 거리, 맨손 송어잡기로 유명한 홍천강 꽁꽁 축제 등이다. 2월에는 방태산 고로쇠 축제가 열린다.



홍천군은 겨울 축제가 많다. 사진은 꽁꽁축제.

먹을 곳

홍천에는 민물매운탕, 감자옹심이, 화로구이, 막국수 등을 하는 집이 홍천강과 비발디파크 가는길에 많다. 그중 팔봉산 유원지 근처에 있는 식당 '꺼멍' 은 불자 김미경 사장이 운영하는데 특히 뚝배기에 나오는 김치찌개와 차돌된장찌개가 일품이다.

가는길

자동차

서울-경춘고속도로 남춘천 IC-양평, 비발디파크 방면-김유정로 따라 3.45킬로 -홍천, 부사원 방면-팔봉산로-운수골길-자명사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BORYEON 보련기획

자동 연등 승강 장치



인 등 시 공







1 사찰 직거래 ➡ 착한가격
2 공장직영
3 철저한 품질 관리
4 다량주문시 할인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발신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초파일 용품

※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만 월 등



공 단 등

황 금 등



연 꽃 등



보 련 기 획 H·P 010-9446-1862 / TEL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무애’의 가르침 묻고 답을 찾는다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신륵사는 남한강 상류 여강의 물이 감싸안은 나지막한 봉미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은 고찰이다. 원효대사의 꿈에 흰옷을 입고 나타난 노인이 ‘신성한 가람이 설 곳’이라 예언해 절을 창건했다고 한다. 사진제공=경기관광공사



삼막사는 원효·의상·윤필 대사가 관악산에 들어와 막사를 치고 수도하던 곳에 지어진 절이다.



원효·의상·윤필 대사가 함께 염불했다 하여 염불사라 이름지었다.



망해암은 원효대사가 미륵불을 모시고 창건했다고 한다.



수도사는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았다는 동굴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원효대사 발자취 따라 경기도 사찰순례 (하)

지난호에 이어 경기도관광공사가 선정한 ‘원효성지 순례 사찰 10’ 중 신륵사 삼막사 염불사 망해암 수도사 등 5 곳을 소개한다.

경기도관광공사는 원효성지 10곳 중 5곳 이상을 방문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연말 템플스테이 참여기회도 제공한다. 순례프로그램은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며, 사전 인터넷 신청을 통해 순례증명책자를 수령하여 각 사찰 방문 시 방문도장을 날인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관광포털(www.ggtour.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이번 순례프로그램으로 원효대사의 행적을 따라 유서 깊은 각 사찰의 창건설화 등을 알고, 경기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정서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효성지 순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관광공사는 순례를 돕기 위해 자료집 〈길 끝에 놓인 행복을 따라〉도 발간했다. 이는 원효성지 사찰 안내뿐만 아니라 원효대사 명언, 원효대사에게 묻는다 등 질의응답 형식의 글들도 수록돼 있다. **정혜숙 기자**

신륵사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하고 창건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신륵사는 남한강 상류 여강의 물이 감싸안은 나지막한 봉미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은 고찰이다. 이곳 역시 원효대사가 절을 창건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어느날 원효 스님의 꿈에 흰옷을 입은 노인이 어느 연못을 가리키며 “그곳은 신성한 가람이 설 곳”이라 말하고 사라졌다. 원효 스님은 그 꿈을 예사로 보지 않고 7일 동안 기도를 올리며 정성을 다했다. 그러자 연못에서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하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그후 이곳에 절을 지으니 그 이름이 신륵사다.

여주 8경 중 하나로 신륵사는 여주를 찾는 이들이 첫 번째로 찾는 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시인들과 묵객들이 머물며 이곳의 자연을 예찬하고 탐미했다고 하니 신륵사의 아름다움은 천년 세월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다고 할 수 있다.

삼막사

세 명의 스님이 막사 치고 수도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삼막사는 신라 때 원효, 의상, 윤필 세 대사가 관악산에 들어와 막사를 치고 수도하였다. 그 뒤 이곳에 원효대사가 절을 짓고 삼막사라 칭하였다.

이후 신라 말 도선 스님이 중건해 관음사라 개칭하였는데, 고려의 태조가 중수하여 삼막사라 했다. 이후 나옹선사가 머물며 수도했고, 이후 조선 태조 때에는 왕사 무학 스님이 머물며 국운 융성을 기원해 1398년 왕명에 의해 중건되기도 했다.

삼막사에는 어느 어부의 어머니가 극진한 기도를 올려 풍랑에 휩쓸려간 아들을 구조한 놀라운 일화가 있다. 1958년, 아들이 바다 한 가운데서 널빤지에 의지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 때 홀연 흰 쌀밥이 담긴 놋쇠그릇이 나타났고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려 목숨을 구했다. 이후 아들이 감사함에 삼막사를 찾았는데 바다에서 봤던 놋쇠그릇이 이곳 불전에 공양을 올리던 불기와 똑같았다고 한다.

망해암

미륵불 모시고 중생의 행복 기원

원효대사가 직접 이곳에 미륵불을 모시고 절을 지어 ‘망해암’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경기도 안양에 위치. 1407년(태종 7) 한양의 백호(白虎)에 해당하는 관악산의 산천기맥을 누르기 위해 왕명으로 몇몇 사찰을 중창할 때 함께 중건하였고, 1803년(순조 3) 홍대비(洪大妃)의 시주로 중건했다고 한다. 이후 1863년(철종 14) 대련 스님이 중창하였다.

이후 6·25전쟁으로 폐사되었다가 청봉 스님이 용화전, 삼성각, 요사채 등을 재건하고 사적비를 세우는 등 사찰을 새롭게 정비했다.

망해암 용화전 안에는 높이 3m의 화강석으로 만든 미륵존불이 봉안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조선 세종 때 조세를 운반하는 배가 인천 월미도 부근을 지날 때 심한 풍랑으로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렀다. 망연자실해 있는 선원들 앞에 갑자기 한 스님이 나타나 선원들을 진정시키고 인도하여 무사히 위기를 넘겼다. 풍랑이 잠잠해진 뒤, 한 선원이 어디에 계시는 스님이냐고 묻자 관악산 망해암이라고 말한 뒤 홀연히 사라졌다.

한양에 도착한 선원들은 은혜를 갚기 위해 망해암을 찾았으나 스님은 없고 그 용모가 아주 흡사한 부처님만이 법당 안에 봉안되어 있었다. 그들은 깨달은 바가 있어 나라에 상소를 올려 이 사실을 알렸는데, 이를 가상히 여긴 세종은 매년 한 섬씩 공양미를 불전에 올리도록 하였으며, 이는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하루가 기울어가는 저녁, 일몰과 함께 안양시 전체가 바다처럼 펼쳐진 장관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수도사

해골물 마시고 깨달음을 이루다

평택 수도사는 852년 염거 스님이 창건하였다. 그러나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시고 득도했다는 동굴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창건 전에 작은 암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던 중 수도사 근처 바위굴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는데 원효대사가 밤에 목이 말라 주변을 더듬어 보니 바가지에 물이 들어 있는 것 같아 시원하게 마셨다. 그러나 다음날 일어나 물을 마시던 바가지가 해골인 것을 보고는 구토를 하고 말았다. 이에 원효대사는 모든 것이 마음에 있음을 깨닫고 생즉종종법생(心生則種種法生)이요 심멸즉종종법멸(心滅則種種法滅)의 오도송을 남겼다. “마음이 나야 모든 사물과 법이 나는 것이요, 마음이 죽으면 곧 해골이나 다름 없도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후 수도사는 도적 침입, 산사태, 전쟁 등의 숱한 역사적 시련을 이기고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는 한국전통사찰음식체험관이 자리하고 있어 사찰음식의 묘미를 맛볼 수 있으며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을 건립중에 있다.

염불사

도반과 함께 염불하며 정진

원효 의상 윤필 세 대사가 함께 염불하던 곳이라 하여 염불사라 이른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염불사는 연주암, 삼막사와 함께 관악산의 3대 사찰로 꼽힌다. 삼성산의 가파른 암벽 아래에 자리하고 있어 경치가 매우 빼어나고 웅장하다. 아마도 세 대사가 위용에 탄복하고 매료되어 이곳에 머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위태로운 암벽과 어우러진 웅장한 산들, 물 흐르는 소리, 숲 냄새 가득한 시원한 그늘 그리고 원효대사의 염불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고즈넉한 산사. 염불사에 오면 누구나 평화로움을 선물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화엄의 꽃 절집 천정

〈25〉 태화산 마곡사 대광보전

부처와 경전세계를 펼친 불국토

숱한 화승 배출한 경산화소 중심

마곡사(麻谷寺)는 태화산 능선들과 희지천 물길이 서로를 S자형으로 감아도는 '산태극 수태극(山太極 水太極)' 의 태극형 길지에 입지해 있다. 〈택리지〉, 〈정감록〉 등에서 '유마지간 십승지지(維麻之間 十勝之地)' 라 하여 공주 서쪽 유곡과 마곡 사이의 땅이 전란이나 흉년, 전염병 등의 삼재가 침범하지 않는 전국 10대 명당 중의 한 곳으로 손꼽아 왔다. 그러다 보니 마곡사 인근은 변동의 시대에 생명과 안전을 의탁하여 찾아드는 사람들로 붐볐고, 후천개벽을 실현하려한 허균의 홍길동전 서사와 동학교도들, 민족독립을 위한 백범 김구선생에 이르기까지 두루 발길이 닿아,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천 사람의 목숨을 살릴만한 '가활천인지명(可活千人之命)' 의 땅으로 뿌리 깊게 인식되어 온 것이다.

불교회화사에서 마곡사가 차지하는 위치 또한 특별하다. 사찰에서 불상을 조성하거나, 단청을 입히고 불화를 그리는 장인을 '불모(佛母)' 라 한다. '불모' 는 부처님을 나투시게 한 어머니라는 의미다. 불모 중에는 스님도 있고, 속인도 있다. 불모인 스님을 화승(畵僧), 또는 '금어(金魚)' 라 부른다. 조선불화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금어가 17세기 충청지역의 신겸, 팔공산 동화사 권역의 의균, 지리산 일대에서 뚜렷한 자취를 남기며 조선 최고의 금어로 불리웠던 의겸스님, 그리고 임한, 상겸, 축연, 철유스님을 거쳐 근대의 약효스님에 이르기까지 당대에 이름을 떨쳤던 화승들이다. 화승들을 전문적으로 기르고 배출하는 사찰이 '화소사찰(畵所寺刹)' 이다. 조선후기 대표적 화소가 경산화소, 북방화소, 남방화소다. 경산화소는 서울경기지역 화소로 남양주 흥국사가 중심이었고, 북방화소는 금강산 일대로 유점사가 중심에 있었다. 남방화소는 공주 계룡산을 권역으로 해서 '계룡산화파' 로도 불리웠는데, 태화산 마곡사가 중심이었다. 남방화소는 의겸스님의 제자 금호당 약효스님으로부터 근대의 보응당 문성, 일섭을 거쳐 현대의 석정스님에 이르는 불모의 계보로 이어져 조선불화사의 큰 맥을 이어왔다. 빛과 그림자의 음영을 통한 대비, 파격적인 구도운용, 원근법의 도입 등으로 현실감과 대상의 실체감을 드러내는 화풍을 진작시켰다. 조선말 마곡사에 상주한 스님이 300여명에 이를 무렵 불화를 배우는 스님만도 80여명에 이르렀다는 불모비의 기록에서 마곡사 남방화소의 위상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어 보인다. 조선불화사의 흐름에서 마곡사의 위상을 반영하듯 영산전, 대광보전, 대웅보전, 응진전 등 여러 불전에 장엄된 단청과 벽화, 불화, 천정장엄 등은 곳곳에서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한 사찰에서 이만큼 다양한 고전의 천정장엄을 간직하고 있는 사찰은 양산 통도사, 순천 선암사, 구례 화엄사 등 몇 몇에 지나지 않는다. 파랑새 불모들의 흔적이 삼밭의 삼대처럼 빼곡한 마곡(麻谷)의 숲을 이루었다.



대광보전에 장엄된 문양 세부. 선학, 모란, 연화문양은 내소사 대웅전, 대원사 극락전 장엄과 매우 유사하다. 육엽연화문에 부처와 경전의 세계를 함장하고 있어 놀랍다.



천정 가장자리와 중앙부의 장엄. 가장자리에는 결계를 치듯 빙둘러 선학을 배치했고, 중앙부 핵심 세 우물반자에는 화엄경, 법화경 등 교상판석한 경전을 모셔 주목된다.

나한도, 화조도에 생명력의 민화풍
약효, 문성스님 등 佛母들의 숲
석존, 아미타, 약사불 모신 천정
교상판석 경전 담은 희유의 장엄

사방벽면 벽화 가득한 박물관

대광보전은 마곡사 북원 영역의 금당이다. 남향한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이지만, 법당에 모신 비로자나불은 부석사 무량수전 아미타부처님처럼 서쪽에 결좌해서 동쪽으로 보고 계신다. 교리에 따른 건축적 해석의 산물이 아니라, 많은 대중을 수용하고, 충분한 예경공간확보를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같은 사실은 대광보전 내부에서 상부의 하중을 받치는 큰 기둥이 5개뿐이다는 점, 특히 예경의 중심영역인 불단 앞에는 고주가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 칸에도 1개뿐인 사실은 통도사 대웅전에서처럼 의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도임을 유추할 수 있다. 내부공간의 사방벽면은 벽화의 세계다. 긴 건물에 내부열주가 세워져 있고 사방벽면에 벽화와 불화 등이 가득하니 대광보전 자체가 하나의 불화 갤러리이자 박물관 같다. 불교미술의 훌륭한 미적체험 공간으로 손색없다.

벽화소재의 모티브들은 나한과 고사인물도, 화조도, 백의수월관음도 등이다. 벽면 가득 큼직하게 그린 나한과 고사인물들이 취한 자세와 지물들이 특이하고, 특히 배경이 되는 바위 등의 묘사에서 19세기 민화풍의 형태가 다분해서 주목을 끈다. 평방에 베푼 화조도는 영락없는 민화다. 오리를 닮은 조류의 머리에 공작의 깃을 닮은 깃털을 뿔처럼 그려 넣는 등 발상이 대단히 창의적인데, 후불벽 뒷칸의 천정 판벽의 구름문양 역시 규범을 벗어난 파격적인 형태를 보인다. 구름을 사자, 코끼리 형상을 취하여 법당에 충만한 신령한 기운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구름의 형태를 빌렸지만 구름이 자연의 구름이 아닌, 미묘한 에너지임을 조형언어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의적(寫意的)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기법은 민화의 화조도, 또는 모란 그림에서 바위를 여러 동물의 형상을 취해서 바위에 깃든 애니미즘(animism)적 신령과 생명력을 드러내는 원리와 다르지 않고, 동아시아 장엄예술에서 공간에 뻗치는 신령의 에너지를 용의 역동적인 용틀임으로 표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학→ 연꽃→ 모란→ 범자문의 전개

대광보전의 천정은 상하층을 갖춘 층급 우물천정이다. 천정문양의 소재들은 선학, 쌍학, 모란, 육엽연화문과 범자문양으로 서남해안지역, 이를테면 내소사, 미황사, 선암사 대웅전과 대원사 극락전 등의 모티브들과 매우 유사한 패턴이다. 결계를 치듯 선학(仙鶴)을 천정 가장자리에 빙 둘러 배치하고, 선학→ 연화문→ 모란문→ 범자(한자)연화문 순으로 점차 개체 수를 줄여 나가면서 겹겹이 중중의 중심부로 향하는 방식이다. 선학과 직립 연화문, 모란문은 어느 절의 문양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닮았다. 이러한 문양양식의 유사성의 접근을 통해 마곡사를 중심으로 한 남방화소의 화맥이 어느 지역까지 미쳤으며, 활동중심지역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분야이든 고전의 원형은 다양한 해석과 융합 등을 통하여 지평이 보다 확대되고 재해석되기 마련인 까닭이다.

그런데 대광보전의 천정장엄에서 가장 주목되는 문양은 중앙 핵심부 범자연화문이다. 6엽연화문의 한가운데에 범자 '옴' 을 넣고 여섯 잎엔 한자(漢子)를 넣어 문양 내부에 불어넣은 예술가 내면의 의지를 신비감보다는 보다 대중적인 계몽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먼저 어칸과 닫집칸 천정의 한자연화문은 천정의 꽃이 부처의 세계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여섯 꽃잎에 각각 '나무아미타불' , '나무석가문불' (나무석가모니불 일곱자를 여섯 꽃잎에 맞추어 '모니' 대신 '文' 을 넣었다), '나무약사존불' 을 새겼다. 일반적으로 대웅보전에 모시는 삼존불의 존상이다.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신 대광보전의 성격과 합치되지 않아 의아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화엄교리적 측면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빛도 없고, 형체도 없는 법신 그 자체다. 법신이라는 말도 진여의 인격화에 다름 아니다. 오직 진리 그 자체다. 단지 중생을 위해 부처님의 자재력(自在力)으로 여러 불보살로 나투신다. 석가모니불은 법신불의 일체이시다. 가장 정중앙의 핵심 자리에 석가모니불의 명호를 모신 것도 그 까닭일 터이다. 결국 천정장엄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진리의 광명이 가득한 비로자나불의 연화장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조형들은 꽃으로 장엄된 천정의 화엄세계가 본질적으로 부처의 세계임을 우리의 인식을 거듭 환기시켜 준다.

천정에 화엄경, 법화경 등 경전 모셔

그런데 우리의 안일한 인식을 일깨우는 더욱 놀랄만한 천정문양은 어칸 바로 옆 천정에 베푼 범자 육엽연화문이다. 이 협칸의 천정중앙에도 동일한 문양의 세 한자연화문이 있다. 어칸의 한자연화문이 부처의 세계라면. 이 협칸의 연화문은 경전의 세계를 드러낸다. 여섯 꽃잎에 각각 '대화엄경원교(圓敎)' , '대법화경종교(終敎)' , '대반야경시교(始敎)' 의 한자를 입혔다. 비로자나불을 모신 법당의 성격을 고려한 듯 화엄경을 가장 중앙에 배치했다. '원교(圓敎)' , '시교(始敎)' , '종교(終敎)' 의 개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간적 순서, 내용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소위 '교상판석(敎相判釋)' 과정에서 정립된 용어들이다. 마치 피카소의 화풍을 크게 청색시대, 장밋빛시대, 입체주의 시대로 구분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부처님께서 행하신 설법 시간순서에 따라 가르침을 다섯가지로 분류한 중국 천태 지의스님의 '5시8교' 가 대표적이고, 이후 화엄학자들에 의해 5교판석이 이루지면서 아함경-소승교, 반야경-대승시교, 법화경과 열반경-대승종교, 능엄경과 원각경-대승돈교, 화엄경-대승원교로 교판하였던 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화엄경, 법화경, 반야경을 천정에 보장한 것이니 미증유의 장엄세계가 아닐 수 없다. 통도사 영산전이나 금탑사 극락전에서 '묘법연화경' 의 진리를 천정에 갈무리한 사례는 있지만 교상판석의 대강으로 팔만대장경의 진리를 압축하고 있는 경우는 유일한 사례에 해당한다.

특히 통도사 영산전과 마곡사 대광보전은 사찰천정이 불보살과 경전을 담은 진리의 세계이자 불국토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와 문화재적 희소성의 가치에 무게를 더한다. 마곡사 대광보전의 천정이 부처와 팔만대장경의 삼밭이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벽면 가득 장엄한 벽화들. 수월관음도는 흙벽에 그린 벽화가 아니라 한지에 그려 겹겹이 바른 종이벽에 붙인 것이다.



층량에 그린 용 탄 동자상과 평방에 베푼 민화풍의 화조도. 대상에 대한 묘사력과 색채운영능력이 상당히 훌륭하다.



마곡사 대광보전 전경.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웅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 점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DWKS-108
DWKS-3000

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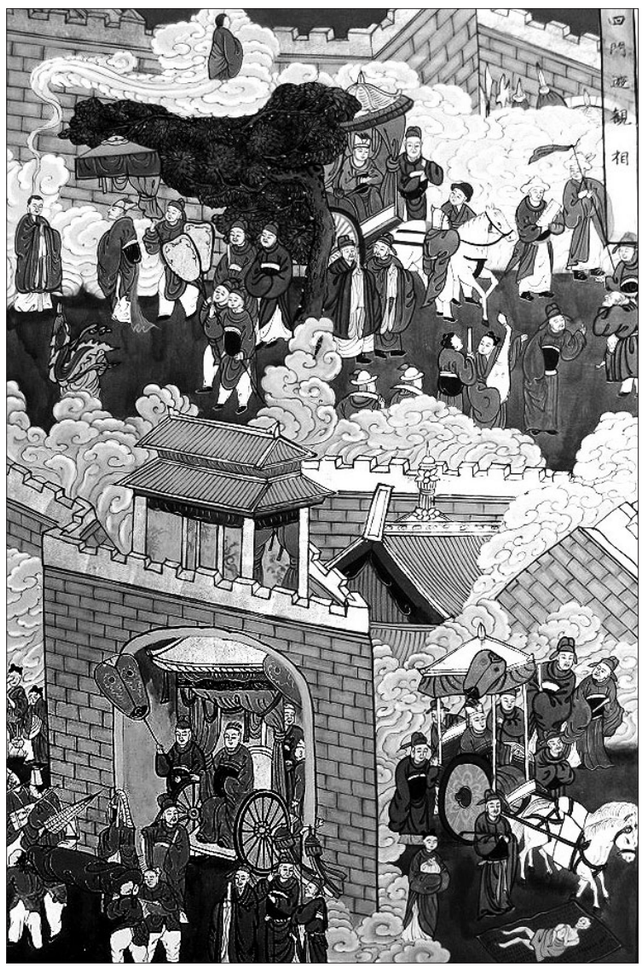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부처님이 설한 진리의 법칙성 '연기'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금강대 총장 편역)

4. 법에 귀의하며 받들다


지라산 천은사 팔상전의 사문유관도. 부처님은 출가 전 왕성 네 곳에서 생노병사의 모습을 보고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원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인간은 의지할 곳이 있다

앞에서 사람은 도대체 무엇에 의지하여야 할 것이냐에 관해서 부처님이 가르친 바를 살펴 보았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그대들이 의지할 곳은 사물이 아니며, 재산이 아니며, 사람이 아니며, 다만 법 뿐이다"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불멸 이후 불제자들에게도 분명히 파악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얼마가지 않아 아난다는 왕사성 교외의 죽림정사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곳에서 아난다는 전부터 친분이 있던 나라의 대신을 만났다. 대신은 부처님 사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걱정스레 물었다.

"세존(世尊)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누가 세존에 의해 '이 사람이야 말로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이 의지할 곳이라' 라고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난다가 말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승가가 인정한 장로들에 의해 추천된 지도자가 있습니까?"

아난다가 재차 답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所依)도 없으면서 당신들은 어떻게 화합할 수 있습니까?"

그때 아난다가 대신을 향해 대답한 말은 매우 명쾌하다.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지 않습니다. 법이야말로 우리들이 의지처입니다."

그러면 법이란 무엇일까. 이제 그 문제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법이라는 말의 세 가지 용법

법이라는 말을 불교적으로 사용할 경우 대략 3가지 경우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제법무아(諸法無我)' 와 같은 경우로서 '존재 자체' 라는 뜻이 있다. 그러나 존재 자체의 모습은 이것을 관찰하며 하나의 법칙성(法則性)이 내재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래가 이 세상에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거나 상관없이 이것은 정해지며, 법으로서 정해지며, 법으로서 확립한다."

이것이 법이라는 말의 두 번째 용법이다. 이 법은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으며 인간에게 설명한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은 또 "여래는 이것을 증득하며 이것을 안다. 증득하며, 알며, 가르치며, 보이며, 선포하며 그런 연후에 '그대는 보아라' 라고 말한다"라고 설명하셨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인간의 능력에 맞춰 설명하신 가르침인 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 법의 세 번째 용법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그 사용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하더라도 그 근원에는 법칙성이 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논사(論師)들은 이 법을 지적해 근본진여(根本眞如)의 법이라고도 부른다. 법이란 무엇이냐는 문제는 이러한 법칙성으로서의 법을 파악하는 데 있다.

존재 모습으로서 법칙성

법을 옛날의 논사들은 가끔 '궤지(軌持)' 의 두 글자로 표시했으며, 또 '능지자성, 궤생승해(能持自性 軌生勝解, 능히 자성을 보존하며 궤로써 승해를 생겨나게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설명은 오늘날에도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능히 자성을 보존하다' 는 말은 언제나 변함없음을 뜻한다. 자주 변하는 것은 일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며 진실한 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을 옛 논사들은 '지(持)' 라는 한 글자로서 지적하고 있다.

또 '궤(軌)' 라는 것은 궤범(軌範) 즉 법칙의 뜻이다. 모든 것에는 그것의 모습이 있다. 모든 존재에는 그것을 통해서 존재하는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알며 사람은 비로소 모든 것의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법칙 또는 법칙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법을 말하는 것이다. 법칙 그 자체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그와 함께 법칙은 또 그것에 의해서 사물이 규정되는 것이다. 즉, 논사들이 "법이란 '궤지(軌持)' 이다"라고 주석한 것은 오늘날 "법이란 법칙성"이라는 말과 같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러한 법칙성으로서 법을 존재 그 자체 모습 속에서 발견했다. 모든 것은 흐른다. 일체는 무상하다. 그러난 존재의 흐르는 방법 일체의 무상한 모습 속에는 법칙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존재의 법칙성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대로 인간 현실의 모습을 설명하는 법칙이며, 인간이 좀 더 향상된 모습을 실현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비로소 무상한 세계 속에서 무상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고, 흘러가는 존재의 중심에서 변하지 않을 것을 얻었으며, 사물도 사람도 의지할 바 없는 세상에서 마침내 의지할 바를 파악한 것이다.

연기라는 것

그러면 법칙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려 한다.

첫 번째는 법 자체를 모든 존재에 결부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관계성' 으로서 규정할 수 있다. 〈화엄경〉은 세계를 모두 '중중무진(重重無盡)' 으로 서로 관련돼 있으며 그것은 마치 하나의 큰 그물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성' 으로서 법을 모든 존재에 즉시 응해 파악하는 것은 말하기는 쉬우나 이것을 내 이해로서 확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관점을 우리에게 옮겨 생각해보면 제2의 표현으로서 '상의성(相依性)' 으로 규정할 수 있다.

'상의성' 이라는 말은 부처님 스스로 법을 설명하며 쓴 말이지만 다시 사리불을 위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갈대의 묶음은 서로 의지함으로서 비로소 설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의 일부로서 내 몸 주변을 살펴보아도 모든 사물은 서로 관계하며 서로 의지하며 존재하고 있다. 그런 것들도 또한 모두 이 법의 표현이지만, 그것은 '상의성' 으로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로 이 법은 '인과성(因果性)' 으로서 규정할 수 있다. 관점을 더욱 요약해서 어떤 개체에 관해서 보면 그 사물이 있는 것은 모두 여러 가지의 인(因) 혹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因), 과(果)의 관계 속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이 법의 표현이다.

부처님은 이 같은 법의 상의성 혹은 인과성을, 하나의 공식적인 표현 방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것이 있음으로 연(緣)해서 이것이 있도다.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생기다. 이것이 없음으로서 인해서 이것이 없도다. 이것이 멸(滅)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멸하도다."

공식적인 표현을 요약해서 말하면 '인연하여 생겨난다' 연생(緣生)과 '인연하여 말한다' 연멸(緣滅)로 줄여서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예부터 '연생연멸' 법칙이라고 말하는 데 다시 요약해 '연기(緣起)' 의 법칙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부처님과 제자들은 '연기' 의 공식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생각해 왔다. 한 예로 '늙음(老)' 과 '죽음(死)' 이 문제라고 한다면 '무엇에 의해서 늙고 죽음이 있는 것일까' 라고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 해결은 '무엇을 멸함으로서 늙고 죽음은 없어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법은 '연기' 의 공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경전에서는 이를 이렇게 말한다. "진실로 세존에 의해서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 그의 연기를 본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경계에 집착해 살아가는 중생들 삼계화택을 벗어날 道를 알아야

1. 佛法은 학문의 군더더기인가 ㊤

문 그대가 부처를 논함은 오로지 성(性)을 위주로 할 뿐이니, 성이라면 유자도 또한 밝혔으므로 이단(異端)에서 취할 것은 없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학문의 군더더기며, 천하에 이익이 없음이 아니겠는가.

답 불교와 유교의 성(性)을 말함이 이름은 같지만 알맹이는 다른데, 그대는 오히려 구별하지 못하므로 다시 그대를 위해 분석하겠다. 중용(中庸)에 말하기를 '천명(天命)을 성(性)이라 말하고, 성(性)을 따름을 도(道)라 말한다' 했으며, 맹자(孟子)는 곧 '성의 착함을 말하면 반드시 요 · 순(堯 · 舜)을 일컬었다' 했으며, 또 말하기를 '그 마음을 극진히 한 자는 그 성을 알며, 그 성을 안다면 그 하늘을 안다' 했으며, 주자(朱子)가 인 · 의 · 예 · 지(仁 · 義 · 禮 · 智)로써 사람 성품의 강령(綱領)을 삼은 것 등은 마치 불의 성질은 뜨겁고, 물의 성질은 시원하다 말함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물과 불이 말미암아 일어난 바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니 이는 곧 하늘보다 뒤이며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다. 능엄경에는 말하였다.

'각해(覺海) 성품은 맑고도 원만하며 맑고도 원만한 깨달음은 크고도 오묘하다. 원명(元明)이 비치어서 소(所)를 생(生)하고 소(所)가 성립되면 비추는 성품은 없어진다. 미망(迷妄)하여 허공이 있고 허공을 의지하여 세계가 성립되며 국토를 이루니 깨닫고 아는 것이 곧 중생이다.'

이는 착함과 악함, 생각이나 의논으로 미칠 곳이 아닌데, 그 꿈 경계에 집착하여 실제 있는 줄 여기고 밝게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 수치(修治)함이 있겠는가.

슬프다. 생령(生靈)이 이를 미혹함이 오램이여, 이들 미혹함을 따라서 삼계화택(三界火宅)의 꿈 속에서 윤회(輪回)를 쉬지 못하고 모든 고뇌를 받음으로 모름지기 초탈(超脫)하는 도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가르침의 시설하심은 권교(權敎)가 있고 실교(實敎)가 있으며, 시교(始敎)가 있고, 종교(終敎)가 있으며, 점교(漸敎)가 있고 돈교(頓敎)가 있으며, 현교(顯敎)가 있고 밀교(密敎)가 있으며, 다시 원교(圓敎)의 불사의승(不思議乘)으로써 두루 넓게(恢張) 중생을 거두어 교화(攝化)하셨다.

최후에는 정법안장 열반묘심(正法眼藏 涅槃妙心)을 가섭 존자에게 부촉하시어 역대로 서로 전하며 교외(敎外)에 따로 행하시니, 모든 부처님의 교문(敎門)이 갖추지 않음이 없으며, 중생의 기의(機宜, 선근이 있어 교화하기에 알맞음)가 다하지 않음이 없다.

슬프다. 그 가르침이 동진(중국)에 진작(振作)함이 늦어 성인이 없기를 1천여 년이 됨이여, 그러나 듣고 아는 자가 또한 행과(行果)를 갖추지 않음이 없이 크게는 성인이 되고 지인(至人)이 되며, 작게는 현인(賢人)이 되고 선사(善士)가 되어 모두 성불(成佛)의 정인(正因)을 잃지 않았으며, 겨우 서사(書寫)하여 수지독송(受持讀誦)함에 이르러서도 공덕이 한계가 없으며 복도 끝이 없었다.

이러하므로 시방의 진제(眞諦)와 천지의 신기(神祇)가 또한 그 도를 존중하지 않음이 없이 그 법을 받들어 있는 곳을 따라 지키고 보호하였다.

그러므로 그 책으로 천지에 제사 지내면 천지가 감응하고 귀신에게 요구하면 귀신이 따른다.

어찌 천지와 귀신만 홀로 그러할 뿐이겠는가. 온 나라의 영토(率土)의 광대함과 모든 백성(兆民)의 중성(衆盛)함에 이르기까지 그 법을 들은 자는 감격하여 교화되지 않음이 없음으로 상 · 벌(賞 · 罰)의 수고로움을 기다리지 않고 미연(靡然)히 나아가 스스로 교화되고 변화하여 극치(極致)의 백성이 되니, 양양(洋洋, 한 없이 넓음)하다. 그 성대함이여.

또한 사람이 완악하고 사나운 자는 비록 가르쳐도 되지 않지만 만일 그 부모의 명령이라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그 어버이를 사랑하고 그 덕에 감화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처님은 대자 · 대비 · 대성 · 대혜 · 대이익 · 대인연으로 사생의 자비로운 어버이가 되어 인간 · 천상의 마음을 감격케 하시니, 진실로 세간 부모와 족히 비교할게 아니다.

세간의 부모는 형체를 받은 부모이고, 부처님의 어버이 됨은 성품을 받은 자비로우신 어버이시니, 어찌 차마 스스로 순종하지 않겠는가.

저 공자의 말씀에 '다스리지 않아도 어지럽지 않으며,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믿으며, 교화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하여, 탕탕(蕩蕩, 마음이 유연한 모양)하여 백성들은 무엇이라 이름 붙일 수 없다' 하셨는데, 믿을만하다 하겠다.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불교사업에 투자 하실분

1.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상대로 현재 진행중 소자본 1억에서 3억으로.
• 고소득 보장 월 소득 투자금 1억에 1천만원 가능.
• 매일 매일 소득보장. 투자금에 대한 담보 가능 돈을 벌고 싶으신분.
• 직접 방문 요함.

2. • 납골 봉안당 투자 하실분.
• 경기 남부 지역.
• 서울에서 1시간 거리.
• 오천구 허가필.
• 자세한 내용은 전화 바람.

▪문의전화 : 안성 백련사 031)673-7227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사주학 무료 공개 강좌

❶ 일 시 : 1월 26일 (월) 오전 11시
1월 28일 (수) 오후 1시
1월 29일 (목) 오전 11시
❷ 과 목 : 명리 · 기문 · 관상 · 수상 · 육효 · 육임
❸ 장 소 : 정운 역학 연구원
H·P : 010-7154-8835
02)867-9681
난곡 입구 사거리 버스정류장(서울 신림동)
정자당 약국 뒷 건물
❹ 강 사 : 전 동아 불교문화센터 명리 · 기문학 강사
전 호서대 대학원 사회교육원
동양학부 주임교수

처음 명리를 접하시는 분이나
이미 공부를 하셨어도 오행학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그동안 공부한 실전 감정비법을
활용 자세히 지도해 드립니다.

정운 역학 연구원

탐라 百年之大計 불사…

〈백년지대계〉

제주도 前 서귀포불교대학장 현수언



현수언 前 학장은 … 1935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출생했다. 1955년 초등교사 교편생활 시작했으며 1976년 서귀포서화 동호인회 가입을 시작으로 서예생활을 시작했고, 소암 현중화 선생으로부터 17년 간 서예를 배웠다. 2000년 서귀포불교대학 1기로 입학해 2003년 서귀포불교대학 학장에 취임했다. 학장을 역임하면서 경전 암송대회, 수계법회시 1080배 실시, 매년 설악산 오세암 · 봉정암 성지순례, 매월 격월로 신행 · 산행법회 봉행, 성도재일을 앞두고 철야정진 수련회 개최, 사경노트 제작 등 2013년 퇴임까지 9년 8개월 동안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명문불교대학으로 부상에 노력했다. 2009년 분다대상을 수상했으며, 2005년부터 제주를 찾는 신혼부부 1700여명에게 자신이 쓴 휘호를 선물했다. 매해 입춘절마다 '입춘대길' 휘호 를 지인들에게 선물하며 서예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

1990년 후반 2000년 초에 접어들면서 제주지역에 '불교대학' 설립 붐이 조성됐다. 제주지역 불자들도 정법불교를 통해 '기복신앙' 에서 벗어나 '참 불자' 의 언덕을 건널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특히 인구 16만의 소도시 서귀포시 유일의 '서귀포불교대학' 은 지난 2000년 4월 문을 연 후 지금까지 2천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다.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지역 유지 등도 서귀포불교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지역 내 교류가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서귀포불교대학의 위상과 명성은 높다. 타 종교인들도 불교를 알고자 문을 두드릴 정도다. 서귀포 불교대학이 '제주 불교대학의 메카' 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종단을 초월해 지역 스님들이 교수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학 강의와 신행활동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주효했다. 또한 그 중심에는 2003년 7월 학장을 맡아 2013년 3월까지 9년 8개월 동안 서귀포불교대학과 함께한 현수언(80) 前 학장이 있었다.

불교에 대한 목마름… 불교대학 1기 입학

초등학교 교편을 잡고, 취미 생활로 서예를 즐겼던 현 前 학장은 처음부터 열렬한 불심을 가진 불자는 아니었다. 초하루에 아내를 절에 데려다 주는 것 외에는 사찰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귀포시 법환초 교장 퇴임을 앞둘 무렵이었다.

현 前 학장은 "당시 교편을 잡고 있던 법환초 어머니회장이 바로 불자 탤런트 고두심 씨의 친동생 고두실 씨였다"며 "친하게 지내는 지인 역시 독실한 불자였다. 자연스럽게 법우들과 함께 한마음선원 제주지원과 혜국 스님이 창건한 남국선원 등을 참배하면서 불심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고, 정년퇴임 후에는 사찰을 순례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연스레 불자가 됐다"고 회상했다.

당시만 해도 사찰에 가면 불교에 대한 기본교리를 가르치는 과정이 전무했던 터라 현 前 학장은 불교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했다. 1999년 정년퇴임 후 2000년 3월 불교대학이 개원하자마자 바로 입학신청을 했다. 1년 동안 불교대학에 입학, 불교에 대해 알아가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회향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또 서귀포시의 저명한 서예가소암 현중화 선생으로부터 서예를 배웠던 그는 불교대학 졸업 후 약천사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법구경과 경전 등을 사경하며 불심을 돈독히 쌓아나갔다. 한지에 먹물 들 듯 그렇게 현 전 학장에게는 시나브로 불자의 색이 입혀졌다.

"당시 약천사 주지 성공 스님은 대보름이 되면 경내에서 달빛축제를 열었어요. 졸필일지 모르지만 저나름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말씀을 부채에 써서 그날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20~30개를 보시했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 불자로서의 첫 작품 활동이었던거죠."

"서귀포불교대학의 구원투수가 돼 달라"

붓으로 금강경 전편을 사경하는 등 불심이 타오를 무렵, 현 前 학장은 뜻하지 않은 전화를 받게 됐다. 당시 서귀포불교대학 교수협의회장이었던 시몽 스님(前 법화사 주지)으로부터 서귀포불교대학장을 맡아달라는 전화였다. 그가 사찰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시몽 스님이 현 씨를 서귀포불교대학을 이끌 적임자라고 눈여겨 본 것이다. 당시 평균 40여명을 웃돌았던 입학생들이 8~9기에 접어들면서 10여명으로 급감했고, 서귀포불교대학에게는 급한 불을 꺼 줄 수 있는 구원투수가 필요했던 셈이다.

"처음에는 불교대학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망설였지만 끝내 수락을 했죠. 입학생 모집이 당장 발에 떨어진 불이었기 때문에 40여 곳의 사찰을 순회하며 스님들에게 신도들의 불교대학 입학 권유를 일일이 당부했습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10기는 35명, 11기는 49명이 입학하는 등 입학생 숫자는 점차 늘어갔다. 그래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불교대학에 강의를 받으러 오는 학생들마다 대학 입구에서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입학생들의 불교에 대한 호감도는 자연스레 높아졌다.

점차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약 30평에 지나지 않던 기존의 강의실이 비좁아졌다. 서귀포시 서홍새

2003년 서귀포불교대학 학장 취임
2년 뒤 90명 수용 가능한 새 보금자리로
등기부 등본 확인안해 한때 경매 위기도
1080배 등 힘든 수행체험 과정 도입 호응
2009년 (사)분다대상 수상자로 선정
2천여 졸업생 배출… 인재 불사에 앞장
2005년부터 가훈 휘호 신혼부부에게 보시
2013년 학장직 퇴임 후 신행에 전념

마을금고 2층 건물을 임대해서 쓰다 2005년 6월 동홍동으로 이전, 약 3배에 달하는 80평 규모의 건물로 이사를 가게 된다. 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참선실, 휴게실, 행정실 등을 갖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교 5년 만에 학교 이전을 통한 새로운 출발의 전기를 마련한 야심찬 도전이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학장을 비롯해 모든 임원들이 무보시로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며 입학생들의 입학금을 조금씩 모아 목돈을 마련해 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 건물의 매입을 맡았던 임원이 등기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건물이 담보로 잡혀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법원에 경매 공고가 떴다.

"12기가 졸업할 시기였는데 학생들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던지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임원들과 해결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방법이 나오질 않았어요. 경매에 참여를 했고 혼자 법원에 가서 결과를 지켜봤지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조마조마합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곳 중에 교회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낙찰받게 됐어요. 바로 불법을 널리 펴라는 부처님의 가피지요. 그 일로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욱 힘 쏟을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됐지요."

명문불교대학으로서 부상

이후 서귀포불교대학은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서귀포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하며 명문불교대학으로 부상하게 된다. 결국 80명도 모자라 90명으로 입학 정원을 늘려도 대기자가 밀려 2~3년 동안 적체되는 현상까지 빚어졌다.

현수언 학장은 서귀포불교대학에 교육과정을 확실하게 뿌리내렸다. 학생들이 힘든 수행 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수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서귀포불교대학생이 되면 졸업을 한 달여 앞두고 수계법회가 봉행된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업을 1080배를 통해 참회하면 수계증을 받을 수 있다.

현 前 학장은 수계법회 날 1080배를 하는 이유에 대해 "수계는 진정한 계율의 상징이자 '참 불자' 가 되는 첫 걸음"이라며 "이를 불교대학에서 이론 공부를 했다고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신의 참 본래 모습을 발견할 때 자신의 법명 역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서귀포불교대학 재학생들은 성도재일을 앞두고 매년 1월 초에 철야용맹정진 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회는 발우공양은 기본이고 불자의 서원과 발원문 작성, 포살자자, 웰다잉 강의, 유서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학생들에게 불성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현 전 학장은 격월로 신행과 법회를 봉행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신행법회는 둘째 주 일요일마다 교수 스님들의 사찰을 순회하며 다양한 수행을 체험해볼 수 있다. 이론공부만으로는 부족하기 쉬운 수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불교대학이 단지 불교지식만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정한 불성을 심을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만드는데 주력하고자 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현 前 학장은 "불교대학을 졸업했다면 기본적인 경전을 독송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불자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경전 암송 시험을 치른다. 시험과목에 선정된 경전은 반야심경 · 천수경 · 이산 · 혜연선사발원문 등 총 6개로 포교사가 시험관으로 나서 심사를 한다.

"지난 2005년부터 경전 암송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각 경전별로 완벽하게 독송해야 완독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학사관리가 철저하기로 유명합니다. 경전암송 이외에도 사경, 출석 등 6가지 신행점수를 종합해 졸업식 때 시상하고 있고요. 최우수상은 제가 경전을 쓴 8곡 병풍을 선물로 선사합니다. 최고 인기죠. 경전 암송은 시험공부처럼 억지로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해요. 경전을 모두 외웠다고 자만에 빠지면 오히려 독이 되기에 공덕을 쌓는 마음가짐으로 늘 생활 속에서 수지독송하는 습관을 들이고자 경전 암송시

KS정품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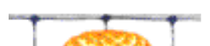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

방수전선-22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1m / 6cm연등

방수전선-25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2.5m / 8cm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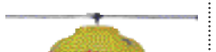
방수전선-30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5m / 8cm연등



방수전선-50cm
할인가 75,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25m / 13cm연등



방수전선-1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 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방수전선-2m
할인가 80,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25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바림등(8cm)

비닐만월등 ▶
판매가 150,000원
• 1BOX : 100개
• 등지름 : 30㎝
할인가 3,200원 (30개이상)
정 가 3,800원
• 1BOX : 30개 • 등지름 : 24㎝
• 빨강,보라,주황,분홍,진분홍,흰색



국산 LED전구
100,000원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전구(10W)
@ 250원
1BOX: 100개
제조원: 베트남



PVC영가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 기 : 8.5㎝×21㎝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기:8.5㎝×21㎝ • 진분홍, 연분홍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4,000원
판매가 10.5cm 4,500원
판매가 12cm(한제)10,000원
※1묶음당 100개를 만들수 있음.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
※ 1묶음당 50개를 만들수 있음.



▼10.5cm
한지 칼라등지 완성품



플라스틱 등표연결집게
판매가 15,000원(100개)
• 연두색 / 흰색 中 선택



PVC등표 전용펜
판매가 2,000원
• 제 조 사 : 사쿠라 (일본)
• 가는 글씨와 굵은 글씨를 쓸수 있는 양면 펜.
(★검정색)



• 바림등(6㎝) @2,700원 (60개이상)
• 바림등(8㎝) @3,200원 (30개이상)
• 바림등(10.5㎝) @6,000원 (16개이상)
• 바림등(13㎝) @13,000원 (6개이상)
• 바림등(20㎝) @35,000원 (2개이상)
• 바림등(30㎝) @80,000원 (1개이상)
• 공단등(6㎝) @3,000원 (60개이상)
• 공단등(8㎝) @3,600원 (30개이상)
• 공단등(10.5㎝) @7,000원 (16개이상)
• 공단등(13㎝) @15,000원 (6개이상)

• 비닐만월등 A형(100개) 150,000원
• 비닐만월등(국산100개) 170,000원
• 연화만월등(100개) 200,000원
• 영가만월등(100개) 200,000원
• 장만월등(국산100개) 220,000원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 등철사(100개)
6㎝ 75,000원 / 8㎝ 80,000원
10.5㎝ 85,000원 / 12㎝ 100,000원



일반연잎(소/대) 6,0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바림연잎/한지바림연잎
7,500원 / 8,5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천바림연잎 30,000원
진분홍/ 주황/ 빨강/ 연분홍 / 보라
수량 : 약 1,200장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불교대학 교육과정 체계화



2009년 (사)붇다클럽 대상을 수상하고 있는 현수언 前 학장(사진 오른쪽)



서예전을 열기도 한 현 前 학장은 서예에 조예가 깊다.



불교대학 수계식서 연비를 해주고 있는 현수언 前 학장



현 前 학장은 2005년부터 제주를 찾은 신혼부부에게 가훈을 써주고 있다.

험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또 현 前 학장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설악산 오세암 · 봉정암 성지순례를 교과과정에 편입했다. 이는 재학생들의 불심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톡톡히 하며 많을 때는 200여명이 동참할 정도다. 덕분에 예기치 않은 효과까지 생겼다. 설악산-봉정암 순례가 인기 코스로 자리잡으면서 동문과 재학생들이 봉정암의 '깔딱고개'를 넘기 위한 예행연습으로 한라산을 함께 오르며 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것이다.

도민들에게 불법의 징검다리 놓아줘

이처럼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현 전 학장은 제주를 불심의 땅으로 더욱 공고히 다졌다. 그는 지난 2009년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사)붇다클럽에서 제정한 '붇다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주도민들이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의 징검다리를 놓아준 것이다.

현 前 학장은 재학생들의 신심 구축뿐 아니라 사경의 생활화 확산에도 몸소 노력했다. 노트형 사경집을 직접 제작해 배포한 것이다.

"기존 사경집은 금강경과 법화경 등 경전별로 글자 위에 베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100장 분량의 백지에 줄만 그어진 노트 형태로 사경집을 제작해 자신의 근기에 맞게 사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낱장의 사경지는 사경 후 부처님께 봉안하거나 집에 보관하면서 분실되는 경우를 쉽게 보았기 때문에 정돈된 형태의 사경노트를 통해 부처님법을 정성스럽게 써 가보로 물려주는 사경운동도 함께 펼쳐보고 싶었어요."

현 前 학장에게 서예는 사경과 더불어 또 다른 수행의 한 방편이 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불교대학 강의가 없는 날이면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앞날에 행복이 깃들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곳곳에서 휘호를 무료로 써주고 있다. 장소는 주로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인 산방산과 천지연 폭포, 이중섭 거리 등이다. 그는 신혼부부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라며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휘호 선물을 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2천여 부부에게 글을 써 주었다는 현 前 학장은 "관광객들로부터 듣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미묘한 공양구가 되어 신심을 불러일으킨다"며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돕는 포교사가 되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다.

지난 2013년 학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서예인으로, 포교사로, 불자로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현 前 학장은 "서예를 통해 사경에 주력할 것이고, 부처님의 교리를 꿰뚫는 불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일까. 매년 입춘이 돌아오면 손수 먹을 갈고 화선지를 접고 입춘글을 받아볼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새해를 축원하는 글을 정성스럽게 써 내려간다. 멀리 있는 사람에겐 우편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만나서 새해 인사를 나누며 새해 축원을 담은 입춘글을 전한다. 이러한 현 학장의 입춘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주 너머까지 퍼져있다.

"전남 불심사 주지 스님은 매년 불자들에게 나눠줄 입춘첩을 부탁해요. 불심사 불자들은 집안에 그 글을 걸어두고 한해를 건강하고 무탈하게 보내려는 마음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 인연이 깊어져 불심사 수계식에는 인쇄된 수계첩 대신 제가 직접 쓴 수계첩을 준다고 들었어요. 법명을 받은 불자들은 수계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고 말하더군요. 부끄럽지만 가장 뜻 깊은 일이죠.."

그 인연이 닿아 현재 현 前 학장은 불심사 무창포불교대학 학장 소임을 맡는 등 인재불사와 끊을 수 없는 고리를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조계종단에 116개 불교대학이 있지만 재가불자가 학장을 하는 경우는 서귀포불교대학이 유일한 곳이다. 더욱이 입학생이 적체되는 등의 성공사례는 보기 드물다.

이처럼 서귀포불교대학이 불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꼭 가고 싶은 명문불교대학으로 부상하게 된 데는 현 前 학장의 노력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병철 제주불교 기자

전법일기

스님은 왜 화를 안 내세요?

백양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본사급 사찰에서는 해마다 학생들의 방학에 맞춰 수련회를 진행한다.

자발적으로 수련회에 참여하는 경우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해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강요에 의해 수련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반발심이 무척 강하다. 더구나 그런 학생들은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과 서로 결속하여 따로 무리지어 행동하려는 경향이 많아서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

언젠가 중 ·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입재식을 하기도 전에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여중생 네 명이 지급받은 수련복을 품에 안고 창가에 흩어져 앉아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첫 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다음 날 새벽이 되어 아이들을 깨우러 갔다.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놔두면 끝까지 일어나지 않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수련회를 할 때는 늘 아이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깨워야한다. 아니나 다를까 그 네 명의 여중생들은 끝까지 일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 억지로 이불을 걷어내자 아이들은 집에서도 이 시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며 더욱 완강하게 이불을 끌어당겼다. 하지만 나도 지지않고 여기는 집이 아니라 절이기 때문에 이곳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득해서 결국 모든 아이들을 다 깨웠다. 한 번 봐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날 아침에는 첫 날 보다는 덜 힘들여서 아이들을 깨웠고, 마지막 날에는 산



그림 · 박구원

각각 엄마와 함께 온 네 명의 여중생들이 똑같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수련회에 참석한 것이었다. 더구나 사찰수련회를 처음으로 참석한 것이어서 모든 것이 낯설었기 때문에 그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 한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다.

나는 이왕에 왔으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친구도 사귄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자고 설득했다. 이미 경험이 있어서 알아서 척척 수련복도 갈아입고 처음 만난 또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아이들을 가리키며 너희들도 저 아이들처럼 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고 달래고 또 달래주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휴대폰을 돌려달라던 아이도 너를 보내면 모두 다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안된다고 완강하게 거부하자 어쩔 수 없이 체념한 듯 지급받은 수련복으로 갈아입었다.

우여곡절 끝에 입재식을 마치고 준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우려했던 대로 네 명의 여중생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맨 뒤에서 따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동변상련이라고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하였기에 네 명은 서로 금방 친해졌다.

행을 하며 카메라를 들이대자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서로 찍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모여들기도 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수박과 차를 준비하고 아이들과 차담을 나누었다. 아이들에게 소감을 묻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늘 들어왔던 출가 이유와 삭발을 하는 이유가 어김없이 나왔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던 네 명의 여중생 가운데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다. "스님은 왜 화를 안 내세요?" 그 학생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심할 정도로 일부러 짜증을 냈다고 고백했다. 내가 화를 내면 그걸 핑계 삼아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웃으면서 화내지 않은 이유를 말했다. "스님도 너희들과 같은 나이에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속을 많이 태웠단다. 그래서 그 때의 잘못을 되돌려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화를 낼 수가 없었어. 해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걸 보니까 아직 더 되돌려 받아야 되나봐. 하하"



수안 스님 (前 백양사 포교국장)

謹賀新年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붇다
위드붇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빼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붇다를 검색하세요.

이슬람 국가에서 핀 자비의 연꽃

자제공덕회 말레이시아 지부, 수재민 돕기 나서

이슬람을 국교로 삼은 말레이시아. 이곳에서 연꽃이 수놓아진 카키색 조끼를 입은 일군의 봉사자들이 이재민을 도우며 선근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Malaymail〉 지는 1월 13일(현지시간) "자제공덕회(Buddhist Tzu Chi) 말레이시아 지부 회원들이 마넥 우라이 라마(Manek Urai Lama) 수해 지역을 방문, 이재민을 위로하고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를 함께 치웠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해 말 사상 최악의 폭우로 켈란탄 등 5개 주 곳곳에서 침수 사태가 일어나 9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20만여 명이 대피하는 등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켈란탄 주였다. 켈란탄의 주도 코타바하루에서는 일부 하천이 범람하면서 37곳의 도로가 끊기는 등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고, 대피 인원 역시 가장 많은 3만2343명이었다.

다른 지역 역시 테랑가누 2만8900여명, 파항 2만4300여명의 사람들이 대피했고, 북서부 페라크와 보르네오섬 북동부 사바, 서부 최북단 페를리스 주 등지에서도 대피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마넥 우라이 라마 지역은 코타바하루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설명한 코에이(Koay) 씨는 "도움의 손길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이곳에서 이재민을 돕는 게 바로 불자의 도리"라며 "오늘의 봉사가 내일의 인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만 자제공덕회 말레이시아 지부 회원들이 마넥 우라이 라마 수해 지역을 방문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9만명 이재민 발생
500여 봉사자들 외바퀴 수레 끌며
침수 가옥 진흙더미 치워
"불교의 참모습 생각하는 계기 돼"

코에이 씨는 마넥 우라이 라마 지역을 방문한 자제공덕회 말레이시아 지부 회원을 이끌고 있다.

〈Malaymail〉 지는 코에이 씨의 말을 인용, "자제공덕회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번 수해를 맞아 500명의 청·장년층 회원들이 19회의 봉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으며, 매 회마다 7대의 트랙터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자제공덕회 말레이시아 지부는 자원봉자를 20개 그룹으로 편성, 5개 주요 수해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Malaymail〉 지는 "이들은 이재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직접 외바퀴 수레를 끌고 다니며 침수 가옥의 진흙더미를 치우고, 거리 곳곳에 뒤엉켜 있는 가재도구를 정리·세척하는 등의 노력도 마다하지 않는 등 이재민의 아픔을 나누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해를 당했을 때 다시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는 이재민 말릭(Malik · 31) 씨는 "종교가 다른 이들의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 마을은 점차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금도 우리를 돕는 데 요긴하겠지만, 사람의 따뜻한 손길만큼은 아니다"고 말하는 이재민 하산(Hasan · 28) 씨는 "우리와 같이 수마의 흔적을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낙담은 떨치고 희망은 품을 수 있었다"며 "이제는 흰색 반바지에 카키색 조끼를 입은 자제공덕회 봉사자만 보아도 삶의 길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제공덕회는 청엔 스님이 '불교의 인간화와 보살의 세계화'를 목표로 1966년 대만에서 설립됐다. 현재 40개 국가에 231개 지부를 두고 수백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확보, 자선 의료 교육 문화 등 4대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다.

"아픔을 나누는 데 '동체대비' 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는 탕뱅(Tang Beng · 54) 씨는 "우리의 스승 청엔(Cheng Yen) 스님은 항상 '돈보다는 사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마넥 우라이 라마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청엔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탕뱅 씨는 자제공덕회 말레이시아 지부의 의료단을 이끌고 있는데, 이번 봉사에는 동료 의사 5명과 간호사 6명과 함께 했다.

〈Malaymail〉 지는 "자제공덕회 말레이시아 지부는 2000년에서야 설립되었는데, 전 국민의 55%가 이슬람교도인 말레이시아라는 점을 비출 때, 늦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전하고 "이번 대규모 봉사활동은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자제공덕회'의 역할 나아가 불교의 참모습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홍수 피해가 늘어나자 긴급 복구 예산으로 약 5천만 링깃(15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섰고,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에 전력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일본 사원서 고양이 '마케팅' 한창

고양이 보려는 관광객 증가 … 사원 재정 증가로 이어져

일본의 사원에서 '고양이 마케팅'이 한창이다.

〈Japan Today〉 지는 "버려진 고양이들이 새로운 삶을 찾고 있는 사원이 있는 가하면 행운을 불러오는 고양이 마네키 네코(maneki neko)로 경내를 가득 메운 사원도 있다"고 전했다.

이들 사원은 키티 사원(kitty temple)으로 알려진 고탄조(Gotanjo) 사원과 마네키 네코 사원으로 알려진 고토쿠지(Gotokuji) 사원이다.

〈Japan Today〉 지는 "고탄조 사원은 버려진 고양이를 거두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고토쿠지 사원은 행운을 불러오는 고양이 인형을 경내에 세우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최근에는 두 곳의 사원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사원 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과 고양이의 관계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000여 년 전에는 이미 상류 계급의 반려동물이었고, 뒤이어 일반 서민들의 삶에도 깊숙이 들어서면서 '행운을 부르는 동물'로 여겨졌다. 이후 일본 각지에서는 고양이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도 생겨나고, 민간 신앙의 일부로도 자리매김하게 됐다.

"사원에서 고양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하는 관광객 요시모토(Yoshimoto · 54) 씨는 "사원 스님들이 불교와 얽힌 재미있는 고양이 관련 설화를 들려주는 것도 좋고, 평온한 모습으로 경내를 기웃거리는 고양이 모습도 좋다"며 "집에 돌아가서도 이곳의 고양이들이 떠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요시모토 씨는 일본 가코시마에서 '키티사원'을 방문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행운을 불러오는 고양이 마네키 네코로 경내를 가득 메운 고탄조 사원(사진 왼쪽)과 버려진 고양이들이 새로운 삶을 찾고 있는 고토쿠지 사원의 모습(사진 오른쪽).

순직 중국계 류 경관 불교식 장례로

미국 브루클린서… '경관장(葬)'에 이어


美 뉴욕 브루클린에서 1월 4일 열린 웬지안 류(Wenjian Liu) 경관 장례식 모습

20대 흑인 청년의 총에 숨진 중국계 웬지안 류(Wenjian Liu) 경관의 장례식이 중국계 스님들의 집전으로 지난 4일 열렸다. 수천여 명의 NYPD 소속 경관이 뉴욕 브루클린 거리를 메운 가운데 마련된 '경관장(葬)'에 이어 불교장례식도 함께 진행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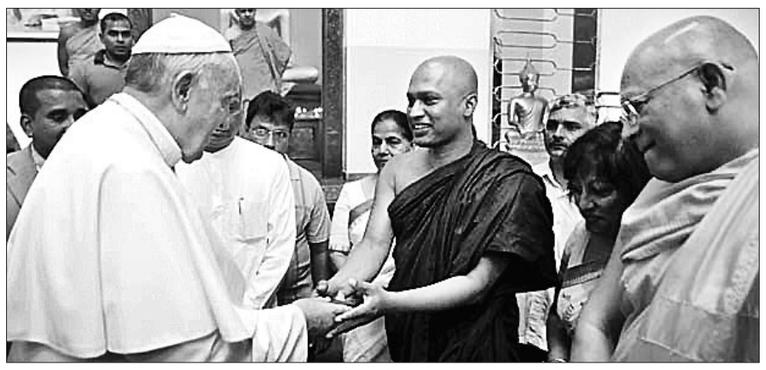
지난 달 순찰 근무 중 흑인의 기습 총격을 받아 사망한 류 경관의 장례식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과 경찰에 대한 총격으로 전국적 이슈가 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한편 장례식에 참가한 일부 경찰들은 빌 드블라지오(Bill de Blasio) 뉴욕시장이 추모사를 시작하자 등을 돌렸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비무장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비난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유화적 태도로 대응해 경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프란치스코 교황, 스리랑카 사원 방문

마지막 일정 바꾸고 불교 사리탑 의식 참관


스리랑카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1월 14일(현지시간) 수도 콜롬보 시내 아그라슈라바카 불교 사원을 방문해 불자들과 손을 잡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스리랑카 불교사원을 방문해 눈길을 끈다.

AP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1월 14일(현지시간) 스리랑카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바꿔 수도 콜롬보의 한 불교 사원을 방문했다. 교황은 사원에서 경의를 표하고 부처님의 제자 2명의 사리탑을 공개하는 불교 의식을 참관했다.

바티칸 측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도승이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귀 기울여 경청했다"고 전했다.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는 "교황이 다른 사원 방문자들이 하는 대로 신발을 벗었지만 기도를 하지는 않았으며, 막판에 갑자기 결정된 일이어서 방문 시간은 매우 짧았다"고 말했다.

불교에서 사리탑은 1년에 한 번 공개하며, 신도들은 존경을 표하고자 며칠 동안 줄을 선다.

아그라슈라바카 사원 주지인 바나갈라 우파티사 스님은 전날 콜롬보 공항 환영 행사에서 교황을 만나 초청했으며, "우리가 교황에게 표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4년 태국을 방문했을 때 불교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나은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사)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제13기생 학인모집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에서는 신라의소리 영남범패의식을
6개월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모집하여 개강하고져 합니다.

아 래

■ 자 격 : 삭발염의한 스님 (일반불자 제외)
■ 개 강 일 : 2015년 3월 9일 (음력 1월 19일 월요일) 오후 3시
■ 매주 월·목요일 오후 3시부터 강의합니다. (주 2회)
■ 장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장사 (진영포교당)
■ 과 목 : 초급반 – 예경의식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등)
중급반 – 사시불공, 49재및 천도재의식. 관음시식, 사물다루는법
상급반 –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사물다루는 법
■ 강 사 : 한파스님 (학장스님께서 직접 내외전 강의하십니다.)
■ 보조강사 : 수암스님 (010-5488-7060)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055)343-2267~8700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 · 연구보존회

불기 2559년 | 한기 4348년 | 서기 2015년

백초스님의
핵심래정택일지
乙未年 을미년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 매일 운세 보는 법 공개!!

365일 매일 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훤히 볼 수 있는 래정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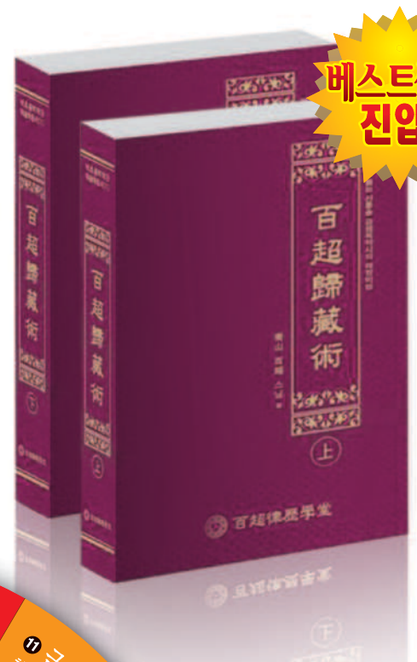
베스트셀러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4×6배판/ 칼라제본/ 458쪽/ 정가 25,000원
문고판(포켓용)/ 칼라제본/ 458쪽/ 정가 13,000원

백초율력학당 도서를 구매하시는 분께는 정가 20,000원 상당의 『한 눈에 쉽게 보는 백초귀장술 원도형』을 무료로 드립니다

베스트셀러 진입!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 (041)943-6882, 010-3813-4443
입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 임현주

마하연 겨울 추천상품

- 매주 출발가능
- 추가경비 없음
- 가이드+기사 경비, 미얀마비자 비용 포함
- 타사 비교필수 (호텔, 식당, 불자가이드 등)

마하연투어 since1994
문의처 : 02) 365-7747
청정행 두손모음

특별함
1 직영운영으로 중간마진을 뺀 가격 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2 오랜 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 불교행사, 봉사단체, 패키지여행





www.mahayeon.com

– 황금 불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4박 6일
  출발일 : 3월 11일. 3월 21일
- 대만 3대 사찰순례 5일
- 대한항공 직항 부탄 / 네팔 8일
- (초특급 + 3대옵션 포함) 방콕/파타야 5일



인천 또는 부산 출발 순례 상품

- 특급호텔 • 추가경비 없음 • 타사비교필수

세계문화유산 루앙프라방 포함 꽃보다 청춘 라오스 6일
라오항공 직항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방비엥

대한항공 직항 스리랑카 6일
출발일 : 2월16,27,3월17

[3대성지 순례] 미얀마 7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출발일 : 2월10,25

[앙코르왓트]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노이–양곤] 베트남–미얀마 6일

[지장도량 / 관음도량] 상해/항주/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출발일:3월 11, 26일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5월26일.6월2일.6월9일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출발일:5월29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5월29일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인도–네팔 8대성지 11일
출발일:2월12일

하와이 5일 매주 출발가능
동유럽 3개국 9일 매주 출발가능
서유럽 4개국 8일 매주 출발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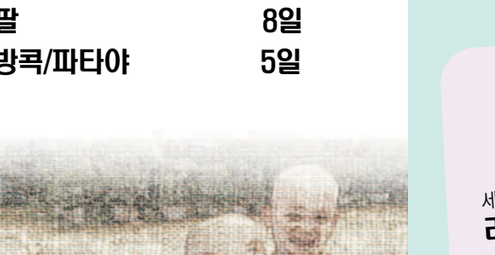
www.hyunbulshop.com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 불 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뜻깊은 만남 … 진리의 말씀 화폭에 담는다 … 색깔있는 전시

2015 미리 보는 불교계 전시

2015년 올 한해 볼만한 전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올 한 해도 불자들을 감동시킬 다양한 전시들이 마련된다. 비공 스님 선화전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동행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 마련전, 부디스토리의 샤카디타 세계여성불교대회 전시, 어라 스님의 부산 쿠무다 카툰전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작가들의 다양한 전시를 한데 모았다.

1월 – 비공 · 원응 형제스님 작품 한자리에

평창동 금보성아트센터(구 김흥수 미술관)에서는 1월 24~30일 두 개의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비공 스님의 '비움의 선면전' 과 원응 스님(촛불재선원장)의 개인전이 함께 열린다. 두 스님은 속가의 친형제 사이로 나란히 전시를 열어 눈길을 끈다.

비공 스님은 선과 면을 활용한 그림으로 그동안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지만 원응 스님은 이번 전시가 처음이다. 선방수좌로 살아온 형 원응 스님과 선화가 비공 스님의 그림을 나란히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비공 스님은 2월 25일부터 인사동 박은선 갤러리에서도 개인전을 갖는다.



4월 – 동행,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마련 전시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 앞둔 4월 아름다운동행 아프리카 탄자니아 농업기술학교 건립 사업을 위한 나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조계사 직장직능전법단은 4월 2일~7일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2014년 한국문인화대전 대상을 받은 최효임 씨(직장직능전법단 자문위원)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수익금은 아름다운 동행에 후원한다.

이어 아름다운 동행 역시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선서화전을 연다. 스님들과 불화가들의 작품을 기부 받아 4월 20일~25일 조계사 나무 갤러리에서 전시를 갖는다.

5월 – 성륜 스님 선화전 '소요유'



선화가 성륜 스님은 5월 20일~29일까지 윤갤러리에서 개인전 '소요유' 를 연다. 물고기의 움직임을 통해 선의 미학을 이야기하는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25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소요유는 원색적인 색감을 활용해 유유자적한 삶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보여준다. 뉴욕과 파리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이번 전시는 국내 관람객들에게도 성륜 스님의 '소요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6월 – 페미니즘 주제 '불화' 인도네시아서

젊은 불화작가들의 모임 부디스토리는 6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샤카디타 세계여성불교대회에서 전시를 개최한다. 권지은, 김민지, 김윤정, 서혜진, 신지영, 예상희, 오선혜, 이혜원, 정해진, 출팀놀부, 현승조, 호종현 12명의 작가들로 구성된 부디스토리는 페미니즘을 주제로 여성성을 강조한 불교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비구니 스님 체험 등 부대행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7월 – 불자작가 임무상 화백 프랑스전

프랑스 이태리 중국 등 해외전시를 통해 호평을 받고 있는 임무상 불자 화백은 프랑스 브레따뉴 퐁테홀에서 7월 27일~8월 2일 초대전을 갖는다. '해송' 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에서는 대서양 해송을 작품으로 펼쳐낸 30여점을 선보인다.

또한, 삼성미술관 리움은 '세밀가귀 한국미술의 품격' 전을 갖는다. '아미타삼존도' , '청동은입사보상당초봉황문 합' 등을 선보인다.



8월 – 지찬 스님 부산서 카툰의 향연 펼쳐

어라 지찬 스님은 8월 19일~9월 18일 부산 송정 북카페 쿠무다에서 전시를 갖는다. 불교 카툰으로 포교에 나선 지찬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30여점의 작품을 전시 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카페 쿠무다는 주석 스님이 운영하는 북카페로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는 명소이기도 하다.

9월 – 국립중앙박물관 고대불교 조각전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 이전 개관 10주년을 맞아 고대불교 조각대전을 9월 개최한다. 중국 한국 일본의 고대 불교조각 150점을 모은 대규모 특별전으로,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이 소장한 중국 4세기 후반의 '금동여래입상' 을 비롯해 대영박물관, 베를린 동아시아박물관, 도쿄박물관 등 세계 유수 박물관의 대표 명품을 선보인다.

10월 – 김용덕 작가 불교 일러스트 전시



영담 한지박물관장 영담 스님은 미국 필라델피아 와이파이어 전시관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스님은 우리 한지로 만든 작품 24점을 전시해 해외 관람객들에게 한지미술의 아름다움을 알려나간다.

오채현 작가 역시 10월경 조계사 국제축제와 더불어 전시회를 갖는다. 미륵불 등 총 15점의 작품을 전시 조계사 국화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불심의 향기를 전해준다.

김용덕 작가(불교일러스터연구소장)도 10월경 서울 종로구 사간동 법련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내 스스로 내 안의 불을 밝히자' 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반야심경 12폭의 단색 그림에 글귀를 넣는 등 총 30여 점의 일러스트 작품을 선보인다.

정혜숙 기자

"세상 통섭하는 불교의 이상 詩에 담아내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유심〉 복간 15주년 맞아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발행하는 시전문 월간지 〈유심〉(주간 홍사성)이 복간 15주년을 맞았다. 1918년 만해 한용운 스님이 창간했지만 3회 발행으로 그쳤던 유심은 신흥사 조실 오현 스님의 발원으로 2001년 복간했다. 계간에서 격월간, 월간으로 발행주기를 늘리며 2015년 1월 현재 81호를 발행, 〈유심〉은 복간 15년 만에 국내 시전문지 중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며 한국 시문학을 이끄는 대표 잡지로 발돋움했다.

〈유심〉은 불교단체에서 발행하지만 불교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홍사성 주간 〈사진〉은 "1918년 창간 당시에는 시사 불교 잡지로 출발했다. 하지만 복간하면서는 시전문 잡지를 표방했다. 그 이유는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앞서 〈불교평론〉을 발행했기에 〈유심〉은 시를 통해 종교, 인종, 이념을 뛰어넘어 세상을 통섭하는 불교의 이상을 담아내고자 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유심은 기존 시전문지의 구성 형식을 탈피, 다양한 기획과 섹션으로 독자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해 왔다. 홍 주간은 "6.25특집으로 '북으로 간 시인, 남으로 간 시인' 가정의 달 특집 '아버지를 그리워하다' 등 다양한 기획을 해왔다. 이는 많은 독자들이 시를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돕고자하는 의도가 담겼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앞으로도 유심은 '한국 여성 시단을 개척한 시인' 등 흥미로운 기획을 통해 독자들에게 시의 감동과 새로운 정보는 물론 잡지를 읽는 즐거움을 전해주고자 한다.

다양한 기획 '시읽기의 즐거움' 선사
국내 시전문지 중 최대 부수 발행
신인상공모 등 시 저변 확대에 최선

또한 잡지의 첫 코너에는 '유심이 주목하는 젊은 시인' 을 배치, 젊은 시인들의 문학적 성장을 돕는 역할도 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작품상 시상, 신인상 공모, 아카데미 및 창작교실 운영 등을 통해 시문학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유심 작품상은 현재까지 40여 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유심 신인상 공모를 통해서 60여 명의 신인을 배출했다. 오세영 시인이 운영하는 시창작교실과 홍성란 시조시인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역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유심 전문지 〈유심〉이 복간 15년을 맞았다. 1918년 만해 스님이 창간했지만 3회 발행으로 그쳤던 〈유심〉은 신흥사 조실 오현 스님의 발원으로 2001년 복간했다.

현재 30회에 이른 유심 문학토크도 주목할 만하다. 매월 김남조, 유종호, 황동규, 신경림 등 유명 시인들을 초대 문학 토크쇼를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어왔다. 홍 주간은 "김지녀 시인이 진행하며 독자를 대신해 묻고 초대된 시인들이 답하는 형식이다. 그 내용은 다음 호 〈유심〉에 실어 재미를 더했다"며 "올해부터는 형식을 바꿔 두 달에 한번씩 진행하는데, 1월 달에는 이근배 시인이 초대됐다"고 귀띔했다.

앞으로도 더욱 내실을 다져나갈 것이라는 유심은 "매너리즘을 경계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구성하는데에 최선을 다해, 시를 통해 세상을 아우르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청정한 불국토 세계 꽃으로 승화

고승희 작가 1월 21일~27일 인사동 경인미술관서

몸과 마음의 깨우침 발원
'극락화' 주제 13 작품 발표
다양한 문양의 꽃 진리 표현

중생들은 고통 없는 행복한 삶을 원하며 죽어서도 극락행을 기원한다. 이는 분명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을 등불 삼아 삶의 고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참된 행동을 실천할 때에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고승희 작가(동국대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초빙교수)가 진리의 말씀을 '극락화'에 담아 대중들을 찾아간다.

고 작가는 1월 21일~27일 인사동 경인미술관 아틀리에에서 '극락화' 를 주제로 등 13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그는 "아름다운 꽃을 소재로 맑고 청정한 불국토의 세계를 형상화했다. 지난 전시 '불향' 에서도 고고하고 화려한 연화와 모란화 그리고 보상화 등으로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깨우침의 향기를 묘사해 보았는데 이번 전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한다.

작가는 아름다운 꽃의 이미지로 온 세상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다. 넓고 깊은 진리의 꽃, 법의 꽃을 상징하는 연화와 보상화, 행복과 화려함을 상징하는 모란화 등을 화폭에 펼쳐낸다. '아미타삼존래영도-극락향기' 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아미타삼존이 수사발심(隋事發心)과 순리발심(順理發心)의 깨달음으로 왕생한 이를 맞이하는 장면을 주제로 표현했다. 삼존상을 하나로 감싸고 있는 연꽃잎 광배와 상단에는 연화 천개(天蓋)를, 하단에는 삼존상을 받들고 있는 다채롭고 화사한 꽃들을 마련해 극락정토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극락화 Ⅰ-법의 향기' , '극락화 Ⅱ-진리의 향기' 는 광대무변(廣大無邊)한 부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형상을 표현했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로 펼쳐진 꽃들은 붉은색 계통의 온화함과 다양한 색채의 화려함으로 극락화를 묘사했다.

'아미타래영도-마중' 은 화사한 분홍빛 색감으로 바탕색을 올리고 여러 가지 빛깔의 신성한 길조의 묘사로 왕생자를 맞이하는 환희의 순간을 그려냈다. '불향 Ⅰ' , '불향 Ⅱ' 는 '부처님은 꽃이며, 꽃은 부처님' 이라는 관계의 의미를 묘사했다. 시공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진리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천으로 만든 꽃을 부처님 형상과 형상을 제외한 바탕부분에 올렸다.

고 작가는 "2015년도 오직 향기로운 부처님의 말씀과 진리에 의지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채워나가고자 한다. 찬란한 빛, 진리의 향기를 품고 있는 '극락화' 처럼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향하는 대중들의 마음속에도 진리의 세계를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 작가는 갤러리 한옥에 주최하는 '현대 화조화 모색전' (1월 23일~2월 5)에도 참여한다. 송영방, 유지원, 오명희, 한은경, 고승희, 최지윤, 정해진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꽃비는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데' 와 '마음에 담으니 연꽃으로 피었네' 등을 출품한다. 고려불화에 나타나는 꽃을 소재로 현대 화조화를 모색한 고 작가는 '고려불화 속의 화조화' 를 주제로 강연도 갖는다.

고승희 작가는 현재, 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초빙교수이며, 대전광역시 문화재전문위원, 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조형연구소 학술연구팀장, (사)단청문양보존연구회 감사, (사)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고승희 작가의 '진리의 향기' . 고 작가는 다양한 꽃의 모양을 통해 진리의 세계를 표현했다.

금강경 가르침 '천상의 목소리' 로 탄생

콘텐츠코리아 불자뮤지션 이미우이 〈금강경〉 발매

불교의 핵심사상이 담긴 〈금강경〉이 불자 뮤지션 이미우이의 목소리로 재탄생했다. 콘텐츠코리아가 전세계 베스트 & 스테디 셀러로 알려진 〈금강경〉명반을 발표했다.

이미우이는 말레이시아 화교계 불자 가수로 불교 만트라를 하나의 음악장르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뮤지션이다.

이 앨범은 악기반주에 맞춰 노래로 부르는 음반이다. 유려한 멜로디에 이미우이는 '천녀지성(天女之聲)' 의 목소리가 가슴 속 깊이 스며들어 끝없는 평온과 환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녀의 노래는 듣기만 해도 커다란 공덕을 쌓게 된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이미우이 〈금강경〉 앨범 표지

또한 이 음반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한문 금강경〉원문을 한글세대 누구나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무비 스님과 대심거사 조현춘 박사가 우리말로 공역한 〈가사체 금강경〉, 금강경과 음반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담긴 76페이지 스페셜 책자가 별도로 삽입되어 있어 금강경 공부에도 매우 유익하다.

정혜숙 기자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가족을 이끈 원동력… 무주상 보시

영화 '국제시장'

"당신 인생인데, 그 안에 왜 당신이 없노?" "내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기 참 다행이라꼬."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역사현장을 온몸으로 치열하게 살아온 영화 '국제시장' 에서 윤덕수(황정민 分)의 대사다. 며칠전 관람객수가 1천만명이 넘어섰다. 대중문화는 그 시대 그 사회 구성원들의 목마른 심적 갈증을 가장 잘 표현할 때 소위 대박에 성공한다고 한다. 요즘 극장가에는 가족영화의 흥행이 돋보이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냉혹하고 각박한 이 사회에서 인간의 따뜻함에 목말라하는 우리 세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얼핏 들으면 영화 '국제시장' 은 진부할 것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흥행 열풍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가족 생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오직 가족을 지켜내고자 했던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힘겨운 시대에 혼자 살아내기도 버거운데 가족을 우선으로 여겼던 지난한 그때 그 시절. '괜찮다' 웃어보이고 '다행이다' 눈물 훔치며 힘겹지만 꿋꿋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덕수의 삶은 부처님의 전생담을 다룬 자타카의 '원숭이 왕' 이야기를 연상케도 한다. 인간 세상의 왕이 원숭이 사냥을 하러 병사들을 이끌고 숲속으로 쳐들어오자 원숭이 왕은 백성들을 이끌고 도망쳤다. 하지만 그들이 다다른 곳은 막다른 절벽이었다. 그 순간 원숭이 왕은 자기 몸을 다리로 만들어 그 위를 가족 원숭이들이 밟고 도망갈 수 있게 했다. 그렇게 마지막 원숭이가 왕을 밟고 무사히 절벽을 건너가자 원숭이 왕은 힘이 소진돼 숨이 끊어졌다.



덕수네 가족사진이 담긴 포스터

덕수, 우리시대 아버지상 투영
자타카 '원숭이왕' 과 보살도 유사

인간 왕은 가족에 대한 살신성인과 보살행의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 받아 살생하려던 마음을 뉘우쳤다고 한다. 이 원숭이 왕이 부처님의 전생이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던진 덕수의 삶도 원숭이 왕과 매한가지다.

그 시절 아버지들의 삶은 이렇듯 고단했다. 포탄이 쏟아지는 베트남으로, 매일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던 독일 광산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선 전세계 어디든 마다하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 를 위해서다. 바로 가족이다. 가족에 대해 베푸는 덕수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이다. 그 사랑은 단순히 가장이라는 책임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비로운 인간애로부터 발로한다.

남동생의 대학등록금, 여동생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과감없이 덕수는 자신의 꿈인 마도로스가 될 수 있는 길도 포기한다. 온 몸을 다해서 가족들에게 헌신한다. 무주상 보시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원래의 뜻은 법(法)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로 표현되었다. 이 보시는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다' 라는 자만심 없이 온전한 자비심으로 베풀어주는 것을 뜻한다. '내가 남을 위하여 베풀었다' 는 생각이 있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라고 볼 수 없다. 내가 베풀었다는 의식은 집착만을 남기게 되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상태에까지 이끌 수 있는 보시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허공처럼 맑은 마음으로 보시하는 무주상보시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고 있는 덕수는 일은 고되지만 힘들어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통을 기쁨과 보람으로 승화시킨다. 조선 중기의 휴정(休靜) 선사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한몸이라고 보는 데서부터 무주상 보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보시를 위해서는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살림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모든 중생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참된 보시라고 보았다. 덕수의 보살도로 가족 모두가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았다.

가족이 편안하면 나라가 평안하다. 덕수 같은 우리네 아버지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논하며 괄목할 만하게 발전해 왔다. 영화를 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한 나라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한 공동 운명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뜻이 다르더라도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며, 손을 잡고 나아가는 모습은 아름답다고. '동주공제' (同舟共濟)의 마음으로 한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발원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안 계시지만 힘껏 안아주며 말하고 싶다. 우리 아버지에게.

"아브지, 저희들 먹여 살리시느라 힘든 세상 열심히 살아주셔서 참말로 고맙습니데이. 그라고, 정말 미안합니데이"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9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덕사 이어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 중 27권 출간! 파릉, 향림, 동산 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해 변재에 자유자재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변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 대원선사 토끼뿔 〉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7 ~ 1/1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여기깨어있기	법륜	정토
2	인생수업	법륜	휴
3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원철	불광출판사
4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5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6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7	백일법문 세트 (전3권)	성철	장경각
8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만다라	Carlton Books	담앤북스
9	낭송 금강경 외	신근영	북드라망
10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	자명	민족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관념의 감옥에서 탈출해야 자유로워 진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우리 모두는 자유를 구하지만
우리가 이미 그 자유이다

보다 단순하게 생활하면
일상서 스트레스 사라져



기쁨의 천가지 이름
바이런 케이티, 스티븐 미첼 지음
김윤 옮김
침묵의 향기 펴냄 | 1만5천원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사막지대의 소도시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던 바이런 케이티는 이혼을 계기로 십여 년에 걸쳐 우울증이 심해지고 자살충동에 시달리다가 요양원에 입원했는데, 1986년 2월의 어느 날 아침, 홀연히 사람들이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절대 기쁨의 상태로 깨어났다.

"나를 괴롭히던 모든 분노와 생각, 내 모든 세상, 온 세상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동시에 깊은 곳에서 웃음이 솟아 나와 넘쳐흘렀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무엇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케이티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것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그것 자신이었습니다."

그때 바이런 케이티가 발견한 진실은 단순한 것이었다. 모든 스트레스와 괴로움의 원인은 '생각'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 생각을 믿으면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생각을 믿지 않으면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믿을 때는 고통을 받지만, 그 생각을 믿지 않을 때는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는 그처럼 단순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발견한 기쁨은 한 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 기쁨은 언제나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녀는 깨어나면서 '작업'을 발견했고, 생각의 족쇄에서 해방되는 단순하면서도 경이로운 이 방법을 그 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있다.

어떤 영적 스승도 없이 스스로 깨어난 그녀는 당연히 어떤 영적 전통에도 속하지 않았고, 영적 고전을 접한 적도 없었다. 그런 그녀에게 영성문학 작가인 남편 스티븐 미첼은 자신이 의역한 도덕경을 한 장씩 읽어 주고 여기에 대해 바이런 케이티가 한 말을 기록하여 책으로 펴냈다.

이 책에서 그녀는 남편의 요청에 응하여, 말할 수 없는 도(道)에 대해 말한다. 도덕경 1장부터 81장까지 차례차례 이어지는, 도에 관한 그녀의 말들은 마치 저마다의 광채로 빛나는 보석들로 촘촘히 장식된 화환과 같아서 그 다채로움과 깊이를 몇 마디 말로 요약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그녀가 가리키는 궁극의 진실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를 떠나 있지 않으며, 나와 따로 있는 어떤 고매한 것이 아니며, 길고 고단한 수행이나 노력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경지도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언제나 지금 있는 것이며, 바로 나 자신이지만, 단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인, 어떤 분리도 없는, 언어 이전의 무엇이다. 도덕경 1장에 대해 케이티는 말한다.

"언어 이전의 이 세계에는 오로지 실재하는 것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뉘어 있지 않고, 파악될 수 없으며, 지금 여기에 이미 현존합니다. 분리되어 보이는 것은 어떤 것도 실재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이름을 붙여 창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실재하지 않는 것도 아름다워집니다. 왜냐하면 실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무'나 '너'나 '나'라고 불리는 어떤 분리된 것도 보지 못합니다. 믿든 믿지 않든 이런 것들은 상상일 뿐입니다."

도(道)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형형색색의 언어들과 엮이면서 이 책의 무늬를 이루는 또 하나의 큰 줄기는 도(道) 자체로서 살아가는 바이런 케이티의 모습이다. 도(道)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해서 금세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생각에 대한 믿음은 뿌리가 깊고, 생각의 속도는 빛보다 빨라서 순식간에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모든 생각, 모든 관념의 감옥에서 해방된 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책 곳곳에는 그런 대자유인의 삶을 생생히 보여주는 모습들과 에피소드들이 푸짐하게 담겨 있으며, 그런 그녀의 삶은 그녀의 말들이 어떤 이론이 아니라 진실로 그러한 것임을 증언한다. 스티븐 미첼은 서문에서 그런 삶의 예를 몇 가지 언급한다.

"이 책은 또한 그녀가 아기 손녀와 춤을 추고 있든, 그녀의 집이 도둑들에게 다 털리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든, 그녀를 죽이려 하는 남자 앞에 서 있든, 또는 주방을 향해 걸어가는 모험을 떠나든, 그녀가 실명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듣든, …… 암 진단을 받든, 언제나 흔들림 없이 기뻐하는 한 여성의 모습을 담은 초상이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삶이 바이런 케이티나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면, 평범한 다수의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소수에게만 가능한 삶이라면, 이런 말이나 글은 별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온 우주에서 어떤 분리도 보지 못하는 바이런 케이티에게는 그녀가 곧 우리 자신이다. 그리고 모르고 있을 뿐, 우리가 이미 찾으려 하는 그 자유이며, 그녀가 그 길을 발견했으므로 우리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다고 단호히 말한다. 그리고 변함없이 "어떻게?"를,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나는 고통에 대해 알고, 기쁨에 대해 알며,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나는 곧 당신입니다. 아직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해도……. 어떤 이야기도 없을 때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고, 되어야 할 사람도 없고, 모두가 좋습니다."

책속의 밑줄 긋기

"궁극적으로, 실재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생각될 수 없고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기의 눈을 보고 있고, 자기의 귀를 듣고 있으며, 자기 상상의 세계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애초에 당신의 마음이 창조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창조하고, 그것에 온갖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현실에 '무엇'을 덧붙이고, 다음에는 '왜'를 덧붙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근원적인 생각은 하나의 '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있기 전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생각은 무(無)에서 태어나며, 즉시 나온 곳으로 돌아갑니다. 만일 생각들의 이전, 사이, 이후를 바라본다면, 한없는 빈 공간만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르는 공간입니다. 그것이 참된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시작과 중간과 끝이……."

불교수행 일환으로 전해진 '만다라'
…화엄사 등 템플스테이에 활용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만다라

담앤북스 펴냄 | 1만2천원





이 책은 만다라를 소재로 한 컬러링 북이다. '만다라(Mandala)'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로 '원'을 뜻한다. 그래서 만다라에 관련된 그림은 대부분 원이다. 우리가 만다라 하면 으레 티베트 승려들이 만든 '모래 만다라'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티베트 승려들이 모래 만다라를 만드는 과정은 인터넷 동영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름 모를 한 사찰, 티베트 승려 한 사람이 바닥에 만다라 밑그림을 그린다. 분필로 그린 듯한 흰색 밑그림이 완성되자 스님들 여럿이 모여 색색의 모래로 밑그림을 채워 나가기 시작한다. 채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모래로 만다라를 완성해 가는 스님들의 손길은 마치 점묘화를 그리는 화가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만다라 문양 중에는 엄지손톱만큼 작고 복잡한 것도 많다. 먼지처럼 작은 모래알로 문양 하나하나를 표현하기 위해 스님들은 코가 땅에 닿을 듯 연신 허리를 굽힌다. 그야말로 고도의 집중과 정성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런 작업을 짧게는 사나흘에서 길게는 서너 달 지속한다. 이토록 공들여 완성한 후에는 붓으로 모두 쓸어버린다. 사방으로 흩어진 모래는 항아리에 담아 강에 버린다. 그동안 흘링 정성과 노력을 결코 아까워 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만다라를 만드는 일은 예술 활동이 아닌 수행이기 때문이다. 모래 만다라는 불교의 세계관인 무상(無常)의 진리를 일깨우는 수단이다. 세상 모든 존재가 영원불변할 수 없음을, 스님들은 지극정성으로 만든 만다라를 제 손으로 없앰으로써 깨닫는 것이다.

불교수행의 하나로 전해져 온 만다라가 최근 명상과 미술치료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구례 화엄사를 비롯해 국내 여러 사찰에서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만다라 명상'을 진행한다. 모래 대신 여러 색으로 물들인 소금으로 직접 만다라를 만들거나 만다라 그림을 보며 호흡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만다라 명상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잡념을 버리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준다.

만다라를 활용한 심리 · 미술치료는 20세기 초 스위스 정신의학자 칼 구스타프 융(1875~1961)이 맨 처음 시작했다. 융은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에 자신이 직접 그린 만다라를 통해 자기 내면의 변화를 알아차리게 된다. 이러한 경험 이후 환자들에게도 만다라 그리기를 권했다고 한다. 융은 환자들이 그린 만다라를 통해 그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자 했다. 융 이후 만다라는 심리와 미술치료 분야의 대표적인 치료 기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오늘날 만다라를 활용한 미술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무늬나 문양이 그려진 만다라를 색칠하는 것이다. 주로 어린이나 미술치료를 처음 접하는 어른을 위한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직접 만다라를 만드는 것이다. 미술치료사는 상담자가 사용한 색이나 직접 그린 무늬 · 그림을 통해 상담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준다.

명상 및 미술치료 도구로 인기
난이도 따라 패턴 138개 수록

이 책에는 원형의 만다라를 포함해 모두 138개의 패턴이 담겨 있다. 책에 실린 만다라를 색칠하다 보면 자연스레 만다라 명상과 미술치료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완전함과 안정감 그리고 균형의 미를 고루 갖춘 원형의 만다라는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효과가 있다. 색칠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쓸데없는 걱정이나 망상을 버림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몰입의 즐거움과 성취감은 덤이다. 또 마음 가는 대로 이런저런 색을 칠함으로서 자연스레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 자신이 색칠한 만다라를 매개로 미술치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면 그간 의식하지 못한 자신의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 만다라 컬러링북을 펼칠 때마다 조용한 음악을 틀어 두면 그 시간 자체를 '나만의 치유 시간'이나 '명상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그림의 난이도가 세분화돼 있다는 것이다. 기존 컬러링북은 그림이 너무 단순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복잡한 것, 둘 중 하나가 많았다. 이 책에는 다양한 만다라 패턴이 수록돼 있다. 선이 굵고 단순한 것부터 선이 아주 가늘고 세밀한 것까지, 난이도가 매우 다양하다. 덕분에 미술 초보자는 물론 컬러링 경험자, 미술 전문가 모두가 활용 하기 쉽게 구성돼 있다. 김주일 기자



"고립된 마음서의 탈출… 최고의 무문관"

궁극의 행복

종사르 잠양켄체 지음 | 팡세 펴냄 | 2만원



티베트불교의 영적 스승이며 세계적인 영화감독이기도 한 저자는 사람들을 기분좋게 하기 위한 가르침에는 어느 것도 '핵심적' 내용과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만약 기분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다르마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전신마사지를 받든지, 희망을 심어 주고 인생을 긍정하는 음악을 듣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소개한다. 다르마 가르침은 우리의 기운을 북돋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다르마는 우리 허물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우리가 정말 끔찍한 기분을 느끼도록 특별히 고안된 일종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영적 수행, 적어도 예비수행은 사람들 대개가 간절히 바라는 위안과 안락 같은 것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 목표가 깨달음이라면 반드시 예비수행을 해야 한다. 이 책은 수행하고자 하는 이가 수행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이 담겨져 있다.

저자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에 앞서 먼저 행복한 상태가 정말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호화로운 생활을 애호하는 최고 유명 인사나 태평스런 기식자의 범주에 속하는 이들에게, 다르마는 행복에 대한 당신들의 이상을 달성시키는 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에 대한 여러분의 전망이 부와 명성보다는 세간의 모든 관심과 욕망을 초월하는 데 있다면, 다르마는 여러분이 찾고 있는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렇다고 이 책은 불교에 완전 처음 입문하는 이들을 위한 책은 아니다. 불교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해도 불법을 이해하는 데 전념하는 사람들 혹은 수행하는 데 강한 열망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다. 특히나 티베트불교 전통의 금강승을 수행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붓다 다르마(佛法)에서 이른바 예비수행이라 불리는 많은 수행들 중에는 매우 특수한 전문 용어들로 표현된 독특하고 심오한 가르침들이 포함돼 있다. 처음에는 매우 난해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점차 익숙해지기 때문에 수행의 끝에 이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따라서 예비수행 수준에 맞게 처음부터 올바로 소개된다면, 그 용어들과 거기에 내재된 아주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헌신적이고 성실한 수행자라면 그 심오한 의미를 발견할 때까지 10년, 어쩌면 20년 동안이라도 매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용어들을 되풀이할 것이다. 예컨대 '보리심' 이라는 말은 불교수행자들에게 친숙하다. 대부분은 이 단어가 우리 마음에 머물도록 해야 하는 선하고 친절한 생각과 연관돼 있다고 확신하지만, 사실 보리심의 진정한 의미는 한량없는 세월 동안 수행을 한 후에야 비로소 드러날 것이다.

오늘날 수행을 위해 완전히 홀로 있는 시간을 찾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다르마의 핵심은 일상에 있다
독특한 전문용어도 수록
홀로수행, 공덕중 가장 위대

함께 지내는 가족이 있다면 이상적인 수행 장소를 마련하는 건 상상조차 힘든 사치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저자는 "일상을 단순하게 유지하면서 매일 한두 시간 정도는 철저히 혼자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한다. 저자에 따르면 수많은 공덕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혼자 머물러 수행에만 전념하는 것이다.

온 세상과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다 공양 올려도 홀로 수행하는 기회를 얻을 공덕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윤회계의 결함과 열반의 이로움을 볼 수 있는 것도 오직 고독 속에 홀로 머물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언젠가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되기를 가슴깊이 간절히 갈망해야 한다.

아직은 고독한 삶을 살아갈 기회와 올바른 조건을 만들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마음을 혼란에서 떼어 놓으려 애쓰라고 저자는 갈파한다. 야구장 같은 곳에서 군중들 사이에 휩쓸려 있을 때라도 잠시나마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깨어 있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고립의 모든 경험 중에서 마음을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무문관이요, 최상의 고독이며, 최고의 은둔처임을 명심해야 한다.

저자는 말한다. "수행을 시작할 가장 완벽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수행을 미루고자 내세우는 이런저런 좋고 나쁜 갖가지 사정은 실은 수행과는 무관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일이 좀 정리가 되거나 로또에서 대박이 나거나 아니면 연인이 떠나 버린 일을 좀 추스르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때를 기다려 본다지만, 인생은 한순간도 이런저런 장애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므로 일이 자리를 잡기를 기다리는 한 절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굴곡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수행을 시작할 최고의 시간입니다."라며 주저하지말고 바로 당장 수행을 시작하라고 당부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각자가 실참 수행 통해 공안타파 하는것이 궁극의 목적

은그릇에 흰눈을 담다

김상백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3천원



재가 수행자인 저자가 한 달 동안 마음공부 기간을 정하고, 하루에 하나씩 화두를 들고 참구해 들어간 내용을 정리했다. 저자 자신이 수행해 가는 길을 점검하기 위해 사유하고 또 한 결과물들이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내용을 공유 내지 점검 받고, 나아가서는 뒤에 오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펴냈다고 저자는 밝힌다.

저자는 이 책에서 "나 스스로 어떤 사유체계를 갖고 화두에 접근하는지를 보고 싶었다. 물론 실참에서의 공안은 이런 사유수보다는 강력한 의심으로 시작해 의단독로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체득하는 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이런 실전적 단계를 독자 역시 스스로 거치지 않는다면 이 책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라고 토로한다.

저자의 고백처럼, 그는 아직 깨달음이라는 강을 건너지 못한,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향해 길을 걷는 중일 뿐이다. 따라서 저자가 펼쳐놓은 30개 공안에 대해, 깨달은 선지식으로서 눈밝은 명안종사의 할을 기대하긴 어렵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중생들에게는 더 유용할 수도 있다. 어쩌면 비슷한 수준의, 혹은 한발 앞선 고민과 사유와 해결책이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경계를 넘어간 사람들의 경계 너머 이야기를 중생들이 알아듣기란 여간해서 어렵다.

저자는 화두 하나하나에 대해 사유에 사유를 거듭한다. 때로는 어구 하나에, 때로는 공안 전체에, 때로는 공안의 주인공에 대해 등등. 여기서는 익숙한 공안뿐만 아니라, 다소 생소한 공안도 있다. 그리고 풀어나가는 방식도 세련되거나 정밀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종횡으로 전개되는 저자의 사유체계를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선가 탁 걸려드는 곳이 있을 수 있다. 그 지점이 저자가 바라는 포인트이다. 바로 그때부터 책을 덮고 실참하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은 하나의 실마리일 뿐, 결국에는 각자가 실참 수행을 통해 공안을 타파하는 것만이 수행의 궁극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선어(禪語)들은 거창하지 않다. 일상 속 의문들을 저자는 치열하게 타파한 흔적이 보인다. '배고프면 밥먹고 졸리면 잔다' 와 같은 경우는 방거사의 일화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방거사가 초막 암자에 홀로 앉았다가 갑자기 말했다. "어렵고도 어렵구나, 백 섬의 참깨를 나무 위에 펼쳐놓는 일이로다." 방 거사의 아내가 듣자마자 말했다. "쉽고도 쉽구나, 백 줄기 풀잎 끝에 조사의 뜻이로세." 딸 영조가 말했다.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구나, 시장하면 밥을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잔다."라고. 유복한 집안서 자란 방거사는 친구인 단하와 관리뽑는 시험을 치러가던 중 어떤 스님으로부터 '관리보다는 선불장서 부처가 되는 것이 으뜸' 이라는 말을 듣고 단하와 함께 석두와 마조선사 문하로 들어가 공부해 도를 성취했다. 이후 방거사는 많은 재물을 모두 수장시켰으며, 가족들도 수행을 하도록 했다. 특히 딸 영조는 아버지인 방거사를 능가할 정도로 선적 안목이 매우 높아 후세에도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 책 속에는 이런 내용을 자세히 담았다.

조주 스님에 대한 일화도 마지막에 소개돼 있다. 한 납승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승찬대사가)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것이 없고 오직 간택을 그치면 된다' 고 했는데 어떤 것이 간택하지 않는 것입니까" 조주 선사는 답했다. "남의 이야기나 해대는 앵무새 같은 놈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한달동안 마음공부 기간 정해
30개 공안 체험 가미해 설명
내용 함축된 삽화 윤활유

사리분별의 밝음이 바로 간택이다. 이 멍청이야." 그리고 선사는 말을 이었다. "천상천하에 오직 나홀로 존귀하니"라고. 저자의 설명을 들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다. 무아를 그렇게도 가르치시더니 선사는 어째서 이 대목에서 '나' 라고 했을까?

저자는 "무아란 내가 없음이 아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 위한 말의 도구이니 그곳으로 따라가면 '공(空)' 에 빠져서 영원히 죽음을 면치 못한다. 조주 선사가 말한 여기서 '나' 란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마음' "이라고 말한다.

한편, 각 공안마다 그려진 삽화들은 내용에 대한 함축뿐만 아니라 책을 읽어나가는 데 따른 고도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여기에 실린 선문답은 주로 〈만공법어집〉 〈경덕전등록〉 〈벽암록〉 〈무문관〉 등에서 가려 뽑은 것들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 **김상백**은?
1961년에 태어나, 중앙대를 졸업했다. 대학 1학년 때 선배를 따라 경북 풍기에 있는 성혈사에 갔다가, 당시 주지였던 봉철 스님과 인연을 맺고 시창(是窓)이라는 불명을 받았다. 그리고 20년이 훌쩍 지나서야 봉철 스님과의 인연이 다시 이어져, 2004년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다. 지은 책으로 〈행복을 좇아가지 마라〉가 있다.

불심가득한 서정적 시어 끌어내

사랑하는 나의 붓다여

김정분 지음 | 은빛 펴냄 | 8천원



저자 김정분은 1945년 부산에서 태어났고, 결혼 후에는 진주에서 살고 있다. 늦은 나이지만 처녀 적 꿈이 아른거려 시를 쓰기 시작했고, 2013년 8월 월간 〈문예사조〉에 '그리움이라 말못하고' 외 3편의 시로 등단했다. 어릴 적부터 더불어 살아온 불가의 인연으로 불심가득한 서정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늦깍이 시인 김정분이 칠순을 넘기며 펴낸 첫 시집이다. 〈경계〉 외 68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노년의 삶을 풍부하게 할, '황혼기 글쓰기' 의 한 성취이고, 새로운 노년 삶의 모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분 시인의 시들은 짙은 불교적 정조로, 삶과 자연, 세계와 생명에 대한 서정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움 그 말 말고 더 지독한 말 어디 없나요
뼈마디 속 골짜기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색깔 섞어 혈관 속 타고 흘러나온 그 색깔
보며 날말 만들고 싶어요
〈그리움이라는 말〉 중에서

김 시인은 그리움의 중독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리움보다 더한 그리움의 말 찾아서 쓰겠다는 것이다. 그는 불교 신앙을 깊고 넓게 배양해 온 사람이므로 그의 시의 첫 자리는 마땅히 불가적 체현의 세계가 된다. 움직이는 곳에 부처가 있고 흔드는 자리에는 불심이 자리해 앉는다. 어디로 가도 불계의 손바닥 안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그의 곁에 임재한 것이 부처뿐이라는 생각은 좁게 보는 것이다. 그에게는 남다르게 산과 물, 자연을 가까이 두고 애환의 물레는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상의 고삐를 쥐고 삶의 강을 건너가고 있다. 그냥 쉬엄쉬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별리의 애간장과 휴식의 수레바퀴와 참회의 눈시울을 거느리고 간다.

김주일 기자

함축과 절제 그리고 섬세한 독해력

와온의 저녁

유재영 지음 | 동학사 펴냄 | 1만원



무설전앞 자벌레 한마리
가던 길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든다.
조용히 떨어지는 나뭇
잎 한 장
가을 천수경
-〈이순의 시간 중에서〉

위 시에서 시인은 인간의 언어로 쉬이 다가설 수 없는 그러한 느낌들, 생각의 파문들에 주목한다. 가을날, 마치 유영하듯 유유히 떨어지는 한 장의 나뭇잎은 그의 가슴에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잔잔한 파문을 불러 일으킨다. 그 파문을 통해 그는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가닿기 어려운 어떤 진리 세계의 문턱을 밟은 느낌을 받게 된다.

유재영 시인의 시에서 우리는 극서정의 실체를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다. 그의 시는 노숙하는 가랑잎 가족, 소복한 야생오리 발자국, 초식동물의 영혼, 옥색긴꼬리 누에 집, 물잠자리 그림자, 토란잎에 고인 이슬, 죽어가는 동물 턱관절 내려놓는 소리 등에 민감하다.

우리 시단의 과작 시인으로 알려질 만큼 염결성과 함축과 절제가 돋보이는 이번 시집은 등단 40년 만에 출간한 네 번째 시집이다. 〈고욤꽃 떨어지는 소리〉 이후 9년 만에 출간한 시집이라는 점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문학평론가이며 서울대 교수인 김유중은 시집 해설에서 '인간의 언어로 쉬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느낌, 생각의 파문' 을 주목하며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는 시인의 지혜가 돋보이는 순간들' 이라고 지적했다. '떨어지는 나뭇잎 한 장에서 경전의 깊이' 를 읽는 감성적 공간 확보와,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사물에 대한 짧고도 선명한 그의 섬세한 독해력은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꾸준히 '한국시의 새로운 인식' 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그것은 시인 유재영만이 갖는 특별한 은유의 공간이자 내밀한 서정의 기록이다.

김주일 기자

원인 모를 질병!! 원인을 바로 알면 방법이 보인다!



- 본인 또는 부모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찾으면 길이 보입니다 -

정보 홍수의 시대 - 바로 알고 노력하면 하늘도 도와준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인간의 병에 세 가지가 있으니, ①지수화풍의 불균형, 즉 생활습관이나 음식의 문제로 생기는 병 ②전생의 업으로 인한 병 ③귀신으로 인한 병이 그것이라 했다.
이에 일광선생은 말한다. "지수화풍에 의한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으나, **업으로 인한 병이나 귀신으로 인한 병은 오로지 도통한 도인만이 고칠 수 있다.**"

- ***8세 미만의 자폐증, 뇌성마비 환자***
- 정신질환자(빙의된 경우가 70%, 일반 질환이 30%로 추정됨)
-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꿈에 죽은 사람이 자주 보이고 가위눌림에 시달리시는 분
- 음식을 잘 못먹고 몸은 아픈데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없는 분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질병의 원인을 알고 싶은 분은 010-5040-7679 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지은이 / 일광(逸廣)
신국판 / 312쪽
우리출판사 313-5047 / 9,500원

저자 일광〔逸廣〕선생은
오로지 천지인(天地人)의 궁극적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 전국 산하를 주유하면서 도(道)를 참구해온 일광선생께서 문득 회통의 빛을 보았으니 오대산의 한 토굴에서 였다. 인간의 생로병사와 사후세계가 우주 자연의 인과의 법칙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후 선생은 불치환자들의 병의 근원을 보고 병고와 생활고 등으로 평생 멍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책을 썼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돌고 돈다”

불교로 읽는 古典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김영래
고려대 연구교수
한마음과학원 연구위원

“나는 유럽의 붓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인도에 붓다가 있다면 유럽에는 니체가 있다고 말이다.”

-니체 〈유고집〉-

니체(Friedrich Nietzsche: 1844-1900) 하면 일반적으로 위버멘쉬(초인)의 철학자, 특히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이하 짜라투스트라)의 저자로 알려져 있듯이, 이 저술이 니체의 대표작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니체는 매우 압축적이고 간결한 언어 속에 많은 비유와 암시, 상징들을 직조(織造)하면서, 마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山上垂訓)과도 흡사한 설교 형식으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읽기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마치 손으로 움켜쥐어도 어느새 빠져나가 버리는 미끄러운 물고기와도 같이, 그 본래 의도가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또한 이 책은 니체의 사상적 편력의 원숙기에 쓰여진 작품으로 이전에 쓰인 비중있는 작품들—특히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아침놀〉, 〈즐거운 학문〉 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는 점도 이 책에 대한 이해를 간단치 않게 만든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짜라투스트라의 토대가 되는 니체 사상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붙여보고자 한다.

니체의 인식비판

최초의 인간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낯설고 혼돈스러웠을 것이며, 따라서 세계는 인간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인류가 언어를 발명하게 되자, 언어는 이윽고 세계에 ‘인위적’으로 질서를 부여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나아가 사람들은 세계를 이해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들인 개념, 이념, 정의, 논리, 공식, 이론 등을 고안해서 사용하면서 이에 매료되어 결국 이것들을 ‘진리’로 신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본래 ‘현상’을 표현하고 지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수단들을 ‘현상’ 자체보다 훨씬 더 높은 의미의 진리라고 여기는 전도(顚倒)가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인류는 언어적, 수학적 진리를 신봉하게 되면서 사물의 실상(참다운 진리)으로부터는 오히려 멀어지는 역설에 빠지게 된 것이다. 니체는 특히 논리학과 수학, 자연과학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논리학은 고대 이래로 진리획득의 규칙이라고 간주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현실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태인 ‘사물들 사이의 일치’, ‘상이한 시점(時點)에 놓인 동일 사물의 동일성’ 등을 가정함으로써 성립된 것이다. 이러한 동일성의 개념은 전통 형이상학의 실체(實體: Substanz)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데, 실체란 대상에 내재해 있다고 믿어지는,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근거 내지는 본질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자체로 동일한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변치 않는 실체라는 것도 없다. 따라서 논리학이란 비논리, 즉 관념적 허구위에 세워진 자기모순적인 학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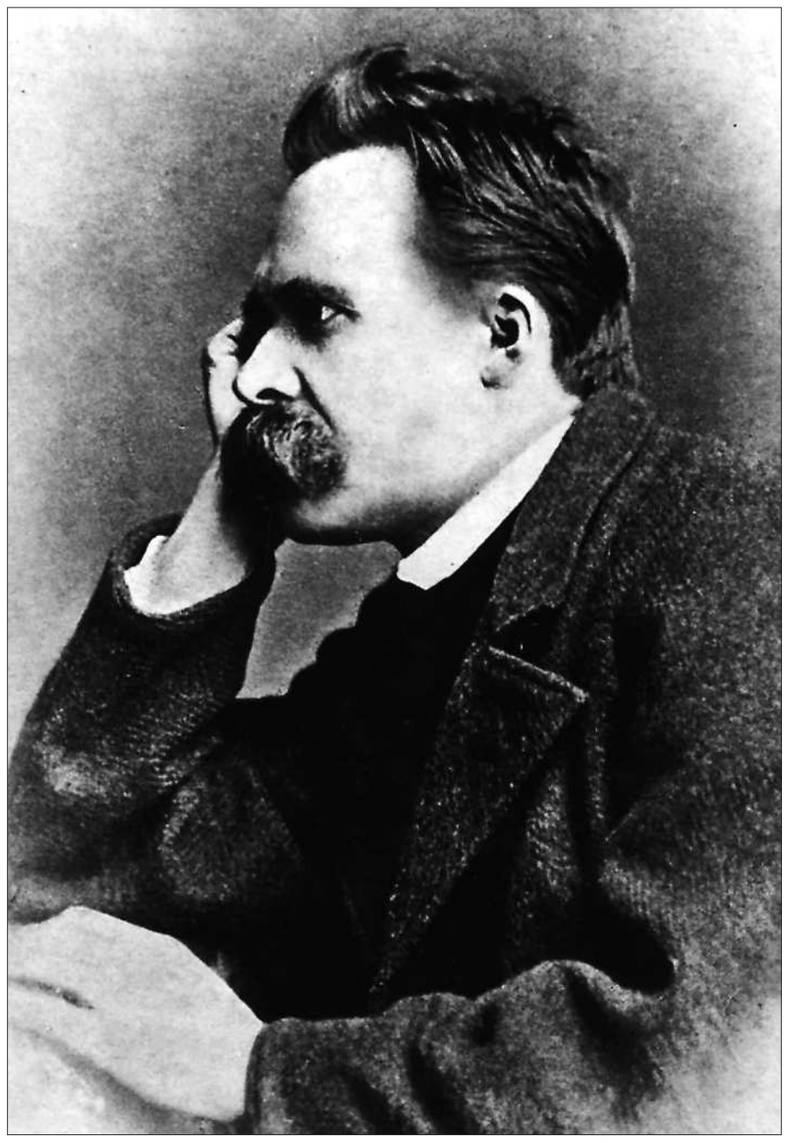
수학과 자연과학도 니체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한다. “수(數)의 법칙의 발견은 몇 가지 동일한 사물이 있다는 오류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만일 애초에 자연에는 정확한 직선이라든가 진정한 원, 절대적인 크기의 척도 따위가 없다는 것이 알려졌었다면 수학은 성립조차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든 화학적 생성과정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일종의 기적으로 나타난다. 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누구도 힘의 충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단지 존재하지도 않는 순수한 사물, 즉 선, 면, 물체, 원자, 분할 가능한 시간, 분할 가능한 공간 등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을 뿐이다” 〈즐거운 학문〉.

도덕비판

도덕이란 요컨대 행위에 대한 가치평가로부터 생긴다. 자신이나 남이 내린 가치평가를 받아들여서 행위의 기준이 되고 삶의 양식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 도덕이다. 그런데 도덕의 시원(始原)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도덕은 대개 실용적, 상황적인 필요에서 시작되었거나 우연과 자의(恣意)의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 나아가 욕망, 증오, 질투, 악의(惡意) 등까지도 도덕의 형성에 참여했다.(〈즐거운 학문〉·〈도덕의 계보〉)

그런데 한번 생긴 도덕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면서 이상화, 절대화 되어 종국에는 인간 삶의 최고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오늘날 인류는 도덕들이 생성되었던 오랜 과거의 상황들과는 매우 다른 상황들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전승의 도덕은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도덕은 인간의 삶을 고양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 삶에 부자연스러운 억제를 가함으로써 삶의 기형화, 평균화, 왜소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니체의 항의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몽운동을 통하여 전승의 인식문화와 도덕문화 속에 들어있는 오류들을 찾아내어 극복함으로써 이러한 오류들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니체는 선언한다. 이렇게 해방된 정신이 ‘자유정신(Freigeist)’이다.



니체(Nietzsche, Friedrich Wilhelm, 1844~1900)의 모습.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대표 저서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짜라투스트라라는 페르시아 현자의 문학적 부활을 통해 자기극복의 고통과 기쁨을 갖는, 자유정신과 육체와의 통일이 마련하는 건강한 미래의 인간을 제시한다.

‘유럽의 붓다’ 자평했던 니체
저서 〈짜라투스트라〉 통해
‘위버멘쉬’ 개념, 대중에게 전달

인내·관습과 대립·몰락 과정 거쳐
인간은 초인으로 거듭날 수 있어

위버멘쉬

자유정신은 〈짜라투스트라〉에 와서 ‘위버멘쉬(?bermensch: 초인[超人])’ 사상으로 발전한다. 위버멘쉬가 되기 위해 정신(영혼)은 세 단계의 변화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가 되어야 한다. 낙타는 진리를 위해 영혼의 굶주림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존의 진리들에 대한 냉철한 재검토와 검증된 진리들에 대한 충실한 실천이 포함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정신은 ‘사자’로 변하여, 지금까지 섬겨오던 용(龍)에 대항하여 일전(一戰)을 벌인다. 용의 비늘들은 수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치’들, ‘너는 해야 한다’라는 가치들로 번쩍이고 있다. 사자가 되어 용과 싸운다 함은 전승의 가치들에 수동적,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던 태도를 버리고, 전통 가치들의 허구성을 꿰뚫어보고 무력화시킴으로써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자주적인 삶의 범위와 역량이 증대되어 간다. 그러나 낙타의 단계를 통해서 충분한 역량을 기르지 못하면 용과의 싸움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할 수도 있다.

용을 물리친 정신은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몰락(沒落)하여 어린 아이로 변화한다. 왜 몰락인가? 어린 아이는 새로운 시작, 창조를 의미한다. 창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확립된 사회적, 문화적 관행, 규범, 권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세계 속에서 형성된 자아(의식)도 벗어던져야 하므로 몰락(沒落)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마치 다년생 초본식물이 겨울을 맞아 땅위의 부분은 죽었으되 봄이 되면 새순이 돋아나는 것과 같이, 새로운 존재방식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갓난아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몰락한 자아가 어떻게 하여 다시 태어나는가? 니체는 자아(Ego)가 영혼의 근본바탕이 아니며, 영혼의 보다 깊은 층위를 구성하는 자기(Self)가 있다고 말한다.

“형제여, 너의 사상과 생각과 느낌의 배후에는 더욱 강력한 명령자, 알려지지 않은 현자가 있다. 이름하여 그것이 바로 자기(Self)다. 이 자기는 너의 신체 속에 살고 있다. 너의 신체가 바로 자기이기도 하다.”

니체는 서구의 전통적 이성개념을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순수한’ 사고로서의 이성은 본래 존재하지 않으며, 사고란 언제나 육체, 감각, 욕망, 감정, 의지 등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각각 힘(역량)들로 파악되며, 이러한 역량들은 서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종종 각축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다가 점차로 강한 역량을 중심으로 위계와 질서가 잡히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역량들이 통일적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신체(身體: Body)이다. 따라서 신체 자체가 커다란 이성, 즉 자기(Self)이다.

“신체는 커다란 이성이며, 하나의 의미를 지닌 다양성이고, 전쟁이자 평화, 가축떼이자 목자이다.”

위버멘쉬는 자신의 존재의 근본바탕인 자기(Self) 안으로 몰락하여 온전히 자기가 된 위대한 영혼이다. 그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자주적으로 의욕하고, 판단하며, 창조한다. 그는 더 이상 곁눈질하며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거나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의 판단을 철회하지도 않는다. 그는 온전히 자기 안에 머물러 있으며, 자신의 세계 안에서 산다.

니체는 이 책의 후반부에서 자기(Self), 즉 신체이성(身體理性)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자신의 영감을 표현한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점은 니체가 짜라투스트라의 입을 빌어서 자신의 깨달음의 체험을 묘사하는 부분이다.

“아, 올라오고 있구나.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심연이 말문을 열고, 나의 마지막 깊은 곳이 백일하에 드러나는구나! 아! 가까이 오라! 손을 달라! 아! 놓아라! 아아! 메스껍다. 메스껍다. 메스껍다. 슬프구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혼절하여 쓰러진다. 그가 다시 깨어난 지 이레 뒤에 영원회귀(永遠回歸)의 교설을 설한다.

“모든 것은 가며,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돌고 돈다. 모든 것은 헤어지며, 모든 것은 다시 만나 인사를 나눈다.”

“저마다의 영혼에게는 저마다의 세계가 있다. 저마다의 영혼에게 다른 영혼들은 일종의 피안의 세계이다.”

니체와 불교

니체는 지상적(地上的) 삶의 긍정이라는 자신의 기본입장에 서서 불교를 염세주의적, 허무주의적 종교로 본다. 그러나 그는 말기 작품인 〈안티크리스트〉 등에서 기독교를 혹독하게 비판하면서도 불교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 기독교는 고통과 불만에 찬 하층민들 사이에서 자라난 원한과 복수의 종교인 반면, 불교는 상류계층에서 생겨난 귀족적인 종교로 명랑, 평정(平靜), 무욕(無慾)을 추구하는 종교로 복수심, 반감, 원한을 멀리하는 가르침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니체의 불교관은 주로 그의 정신적 스승인 쇼펜하우어로부터 습득한 것이어서 주로 초기불교에 해당된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를 완성한지 4년 뒤에 이태리의 토리노광장에서 혼절하여 쓰러졌고, 그 후에 니체는 다시는 정상인으로 살지 못하고 정신이상자로 10년여를 요양원에서 연명하다가 생애를 마쳤다. 이러한 니체의 비극적인 말년의 생애를 돌아볼 때, 니체가 서구인으로서는 전인미답의 길을 혼자서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래서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났다면 면할 수도 있었을 파국을 맞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소회를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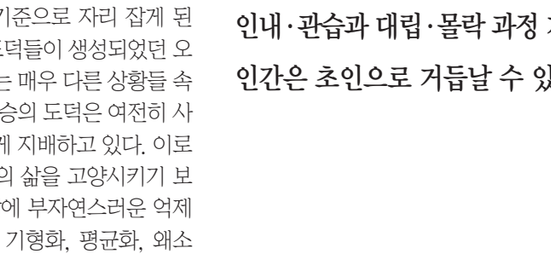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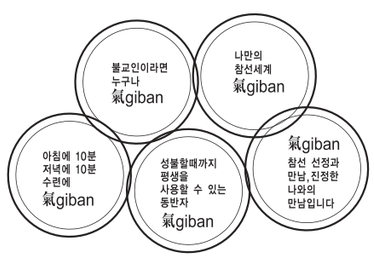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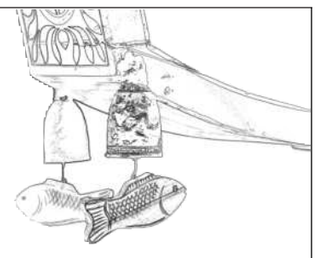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몸소 체험해 보지 않았다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좋은 글귀를 잘 외워도 이익될 것 없고 훌륭할 것이 없다. 목동이 주인의 소를 아무리 많이 세어도 자기의 소는 한 마리도 없는 것과 같다.

- 증일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 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 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발명내용 및 효과
발명특허 획득
뒤틀린 척추, 골반, 고관절 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교정하는
운동법. 아픈 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
네이버, 다음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정확한 방편술 책자를
4주년 기념하여
25만원을 80% 할인하여 5만원에
선착순 100분께 드립니다
010-4735-3232
농협 352-0284-3938-73 하영옥



침구술 배우실 분
명 리 배우실 분
개인지도
(활인사 주지 직강)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2번출구
02)3487-2311

허준의 동의보감
(100가지 해독기술)
법 제 **유 황**
법제유황 안정성 검사필!
문의 : 삼성당 한의원
055) 972-0043, 972-0302

극락행 회원 모집
* 깨달음을 얻고 사후에 부처님 광명의 빛을 따라 극락세계를 염원하는 수행자 불자
- 극락으로 가는 우주행표나 싸인받고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혜안을 열고 깨달음을 원하십니까?
- 조상천도나 업장소멸이 잘 안됩니까?
- 빙의,신병,정신분열,치매,암등 확실한 치유
대우주 신통력 일광 합장
경남 창녕 010-3586-6091

태양계 부처님으로부터 사바세계 최초 대우주신통력을 받은 비구승입니다
가장빠른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불교를 정립하고 신통력과 사후극락 세계로 가는 지름길을 알리고, 현재의 기도와 수행법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연구하실 분이나 불교학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대우주 신통력 일광 합장
경남 창녕 010-3586-6091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031-842-1070
010-9944-1075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연수원
염불, 사물, 작법무, 사주명리
살풀이, 극락무, 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010-4015-9494

부전스님 모십니다
(울진 영명사)
사찰운영 하실 분 연락바람
010-2078-9595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60세이하)
051-413-3318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대한불교조계종 신어산 동림사)
010-3871-3000

배우자 구함
재혼남, 59세
공기좋고 경치 좋은 보은에 황토집, 밭, 축사를 소유하고 있음. 특산물이나 축산업을 경영하실 수 있는 홀로되신 여사장님을 모십니다.
010-4074-3073

청암 달마도
장당 5천원 (40cm × 60cm)
선물이나 불사용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친필 달마도를 직접 그려드립니다
10장 이상이면 사찰명,
법명 써 드립니다
010-2953-8770 / 051) 202-8770
www.달마.kr

태 고 사
자연치유 생사의 손 되어 지는 집
전생과 현생의 업장소멸로
- 풀리지 않는 인연고리
- 개인 사생활의 비밀
- 난치성 질환, 정신병, 성 마약 중독증 등...을 풀어드립니다.
010-6520-8886 법천선사
농협 302-0228-9006-71 박춘자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로단비술의 기도법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9229-3801

공양주 구합니다
(65세이상)
진주에 있는 조용한 절 입니다
가족처럼 계실분 연락주십시요
010-4450-2500

기도법 전수
영가에 의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 조상천도<정리>,
신명 정리를 기도자가 직접,
보고, 듣고, 말하며
직접 천도를 하게 기도
지도 해 드립니다
010-4508-5087 <부산>대각스님

태을정사
신병치유 육관법사
신병으로 생긴 모든 병고를
전무후무한 도통도력으로
출장 치유해 드립니다
치유상담 010-3123-1325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다"
값 3만원 / 농협 박근창 032-02-024451
스님과 불자님들이 읽어야 함.
홍증법사 100일 법문
능엄경 중심으로, 영가천도, 조상숭배 실천
무엇이든 물어보셔요
꿈바위교육원 010-6789-5008

당신도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
이름과 숫자를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 최선의 노력에도 나쁜운 (실패,부부갈등,고통,병고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을 성공적인 운명으로 바꿀려면 이름과 숫자를 함부로 짓거나 사용하지 마라! 반드시 한글,한문 이름을 주역괘로 해석해야 성공여부 등을 알수 있다.
● 공개강좌 : 매주 수요일 오후3시, 주역 성명학, 주역신수, 운세 및 개운법 등 사주통변에 도움이 됨.
효도역학 010-4007-9057. 02)416-2537 (팩스겸용)
(2호선 신천역 4번출구 버스 정류장 앞 골목길 50m 큰손닭한마리 2층)

을미년 무보시
인연처를 찾습니다
각종 법회,법문,49재,천도재,성인병 고혈압,당뇨,어깨,허리,관절, 민간특수요법.
사주,명리학,운명상담. 경상도
010-2281-3060

병고액난 상담치유
- 간질(천병), 정신병(미친병), 귀신병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
- 풍파가 많고 우환이 끊이지 않는 분
* 무등산 불광사에 오시면 답이 있습니다
* 천도재,49재,산신재,산소로 인한 문제도 상담합니다
* 맞고장 쌍고장 전수합니다
불광사 해산 스님 010-7321-0404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퇴마(빙의) 최면, 심리치유 (개인지도 및 상담)
상처받고 풀리지 않는 인연고리를 풀어드립니다.
퇴마, 빙의, 우울증, 불안, 분노, 공포증, 자신감 향상 등
감정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풀지 못하는 현상들 치유가능.
* 퇴마 배우실 분은 (스님 및 무속인에 한함)
(佛)대한불교조계종 약천사 /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산 87
전화 055)584-3326 팩스 055)584-3327
손전화 010-3156-6414

불 교 의 식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점안식,
각종행사를 봉행합니다
범음범패, 바라춤, 작법무, 살풀이, 극락무, 회심곡
다보사 주지 성원 합장
010-4802-3290

불교문화강좌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노고사
• 스 님 : 해인(변영균), 혜연(노재선)
• 사찰주소 : 충남 세종시 부강면 등곡1길 182 (271-7번)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2일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봉은암
• 주 지 : 소공 (송상훈)
• 사찰주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782-2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2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2015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7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그동안 **제1기에서 제6기**까지 전국에서 **8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대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2. 사찰에서 스님을 도와 신도 관리를 하는 총무 보살이나 신도회장 보살

◆ 교육기간 : **2015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무료
◆ 개강일자 : **2015년 3월 3일(화요일) 오후 1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로 자세한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 책 자 : 책자는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이며, 책자대금은 별도입니다. 본회의 사주명리학 강의는 초보자라도 6개월간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적중률에서 일인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배우시고 나면 큰 보람을 느끼십니다.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마음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마라.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난다.

- 법구경 -

사 찰 안 내

▶ 관광 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1900여평
- 건물 : 법당 및 요사채 87평
- 세계불교박람회(54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화석 등 멋진 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만원 인수 (은행 5억 별도)

※사찰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 사찰 보유※

부동산 등기 관련 양도세,취득세,등록세 무료상담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시 법인사찰 양도
- 목조법당. 목조 요사채, 방사
- 토지14,00㎡. 건물300㎡
- 좋은 조건의 도심 속 사찰
- 양도금액 : 6억(융자 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청학동 도심속 사찰
- 57평규모에 1층 요사채, 2층 법당, 마당, 창고, 도시가스 등
- 모든 설비 완비되어 있음
- 인접 시장, 교통 편리
- 최근 개통한 부산항대교와 가까워 최상의 입지조건 갖추고 있음
- 가액 : 3억1천만원(금액 협의가능)

051)412-0400
010-6768-7220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포시장 지하철 1번출구. 최요지 3층
- 건물 3층 45평,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개인사정상 급 안내
- 가액: 전세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3,300만원)

010-4142-6902

광진 사찰 안내

◎ 위치:경기수도권
◎ 종교용지:1300평
◎ 법당:40평,전각3채
◎ 요사:60평
◎ 양도:16억5천
◎ 위치:경기 양평
◎ 대지:180평
◎ 법당:40평
◎ 요사:100평
◎ 양도:5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대전시 법인등록된 사찰 양도
* 2,3층 법당 1층 공양간 등 660㎡. 토지약2,000㎡
* 종무실. 스님실 2층 건물 330㎡. 포교사찰
* 양도금액 : 7억(조계종스님만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임대 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북한산 밑 사찰
- 주택(임법당) 77평, 방 5개
- 화장실 2, 텃밭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7466-770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산시 와촌면 뒷 갓바위
- 평수 : 약 70평 2층
- 관세음, 지장, 산신, 후불, 칠성, 신중, 산신, 반야 용선 탱화 기타 집기 일부
- 좋은 장소 입니다
- 가액 : 보증금 35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4766-32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토 굴 안 내

- 위치: 대구시 중구 대봉동 729-2
- 1층 15평, 2층 15평 합 30평
- 가액 : 보 500만 월 35만
- 보, 시, 물 합 1,700만원

010-2878-3380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버스정류소 앞 큰 도로변
- 3층 중 2층 약 60평
- 큰법당, 큰공양간, 방 3, 샤워실
- 위치 환경 특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51)201-5667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임) 요사채 2동
- 시설 완비
- 가액 : 2억 9천

010-3508-7710

토 굴 안 내

- 위치 :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조용한 마을 빌라 주택
- 4층 건물 4층. 24평 방 3개
- 쉼 터, 내집 마련 기회
  사정상 시세 이하
- 저렴하게 급 양도
- 가액 : 3천 7백만원

010-9787-550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울창한 소나무 숲속에 수십년된 사찰
- 법당 30평, 산신각 5평, 용왕당 요사채 20평, 공양간 20평 창고 20평, 주차장 넓고 텃밭있음
- 가액 : 전세 7천만원 월세 3천 5백(5년)

010-3556-299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월드컵대로변
- 평수 : 50평, 5층 건물중 2층
- 보유내용 : 삼존불, 신중, 후불탱화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 시설비(답사후결정)
- 바로입주 가능

010-2485-8799

포교원 안내

- 위치 : 춘천 3,600평 3억 8천
- 전 임대지 전망좋음
- 경북 영주 3,600평 18억 사찰운영중
- 모든조건완비 대출가능 100억이상
- 수입창출가능 비교 불가한 좋은 조건 환경

010-4880-789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 3층 60평, 삼존불, 삼성각,
- 용왕전
- 방3칸, 공양간, 상담실
- 시설완벽
- 가액: 보증금 2천만 월70만
- 시설비 2천만원

010-6795-1566

2층 주택 안내

- 위치: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산동 185-23
- 대지 60평, 건평 70평
- 1층 2가구 전세, 달세 중
- 가액 : 2억

055)246-6383
010-8546-6383

강남 중심지 법당, 포교당임대

- 위치 : 논현역, 신논현역중심가,더블 역세권 지역
- 지하철 9호선 신논현-종합운동장구간 3월개통
- 교통편 좋고 유동 인구 많음
- 단독주택, 숏대와 대나무가 어우러진 마당, 아담한 토굴법당
- 주택내부 올수리(수리비내역서있슴)
- 지상 1층,반지하1층(내부계단있어 편리)
- 법당2/스님방1/거실2/주방2/상담실/산신각/다용도창고/화장실2
- 스님들 행사문제없음. 포교원으로 시작하기 좋은자리
- 가액: 6,500만원, 월세 180만원(주변시세보다 저렴)

010-5913-7239
010-3145-8626(종무소)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장안평(5호선 5분) 자동차 시장 끝에 위치
- 아미타불,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소불30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 특징 : 오피스텔 2층 15평, 도심포교당, 지방사찰 서울분실
- 가액 : 보증금 500만, 월35만원 시설비 2,500만 합 3,000만원

010-9105-0024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시장 입구)
- 평수: 약 40평(3층)도시가스
- 법당1.방2.주방.욕실
- 포교와 철학관 운영중
- 가액:보증금2000만원/월45만원 (시설비500만원)

010-8296-300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읍 시장입구 삼거리
- 카도 버스정류소 시장부근 장소 최적
- 3층 중 2층 28평, 법당, 주방, 욕실, 창고
- 삼존불, 소불108불, 에어콘1
- 보살 법사님도 안성맞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4880-1533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6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미조면
- 평수 : 대지 251평
- 법당 1, 요사채 1, 창고 및 넓은 텃밭도 있음
- 특징 : 탁트인 넓은 바다가 보이는 전망좋은곳으로
- 다섯봉우리가 싸고 있어 수행하고 공부하기 좋은 곳
- 주차공간 있음
- 가액: 3억 4천(절충)

010-2401-775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근방 포교원
- 2층 건물중 2층
- 사용면적 60평 옥상전체사용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100만원
- 답사후 시설비 절충

010-8725-3196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
- 3층건물중 1층 45평
- 삼존불, 소불 140불정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9988-7242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내 중심포교원
- 시설: 방3개, 거실, 창고, 주방, 심야보일러
- 특징: 도심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음. 한옥 65평
- 가액: 전세 2,000만원 월 60만원 양도 1억 7천만원

010-6369-119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 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
- 대지 740평, 건물 150평
- 가액 : 양도는 8억
- 세는 1억에 100만원 전세도 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031)358-6701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평수 : 임야 4,500평(금강송 소나무)
- 특징 : 노적봉이 있는 좌천룡 우백호 앞은 저수지요 좌우는 큰 계곡물이 흐르는 백두대간 혈자리가 맺힌 기도처
- 교통 : 동해바다와 고속도로 IC 5분거리 경관이 수려함
- 가액 : 1억 3천 5백만원(평당 3만원)

010-3531-5562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약사여래 기도 도량
- 주차편리한 대로변
- 포교에 최적지이고 완벽한 시설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8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010-6303-2347

포교원 선원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2분거리
- 4층 건물 중 2층, 약 50평, 큰 선방1, 방3개, 거실 및 주방
- 정남향, 조용함, 명상센터로 최적지, 주차장 있음
- 깔끔, 최신인테리어, 냉방, 바닥 필름 난방
- 가액 : 전세 1,500만, 월 6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9317-9199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수영구 광남로 최고요지 큰 도로변
- 포교원 3층 건물 2층, 넓은 50평
- 화장실 2, 방2, 주방(최고시설)
- 보증금 1,000만원 7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011-9279-3628
051-755-277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롯데호텔 근처 지하철 역 바로 앞
- 4층 건물중 3층 45평
- 시설, 환경, 위치 A급
- 가액 : 전세 2,000만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

010-3939-7171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수영구 광남로 최고요지 큰 도로변
- 포교원 3층 건물 2층, 넓은 50평
- 화장실 2, 방2, 주방(최고시설)
- 보증금 1,000만원 7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011-9279-3628
051-755-2775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
- 예쁘고 단아한 토굴
- 현재 살고 있습니다
- 대지 193평, 건평 30평
- 가액 : 9천 5백만원

010-3955-7191
010-8321-3775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지면 금곡리
- 평수 230평, 대웅전 15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
- 밀양IC 근교(비구니 스님 환영)
- 가액 : 2억 3천(가격절충)

010-3801-5328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오류1동 오류역에서 15분거리
- 전체건물 70평인 다세대주택 4층 건물(반지하1층) 301호 법당 사용중 201호, 302호는 요사채 사용
- 법당평수 25평, 오존불
- 가액: 전체건물 8억 (2억 7천 전세놓은 것 있음)

010-7240-9200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시내 사찰
- 대지 694㎡ (210평)
- 법당 132㎡ (40평), 요사채 132㎡ (40평), 텃밭 165㎡ (50평)
- 건물 2동, 공부방
- 최고자리 양도
- 가액 : 10억 1천만원 급 양도

새한길부동산 중개) 연제구/고중지 이세하
010-3808-4499
051-925-2290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안남면 지수리
- 임법당,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탱화
- 대지 370평, 건물 등기 되어있음.
- 가액 : 건물 값 1,500만원
- 토지세 1년 45만원, 시설비 없음

010-9182-360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4억 3천(절충가능)

010-3186-0361

부산 포교당 최요지

- 위치: 연산동 연수대로변
- 8층 건물 중 1층 주차장, 4층 법당, 건물평수 40평, 엘리베이터 사용
- 수미단, 삼존불, 후불탱2점, 영단, 인등 방음, 도시가스 난로 3개, 온수기 2대
- 북박이3, 필름난방, 싱크대, 조리대 새것
- 칸막이 작은 창고 몽땅 5백만원
- 재료값만 천만원 넘게 소요됐음
- 종찰이 나와서 급히 갑니다 (현재 비어 있음)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세 60만원 관리비 13만원

010-4466-3575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 남구 용현 2동 시장 앞
- 평수 48평, 3층 중 3층
- 법당 20평, 삼존불, 요사채1, 화장실
- 버스정류 노선이 많아 교통 편리
- 가액 : 3억(절충가능)

010-7240-9200
011-795-9200

포교원 안내

- 위치: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176-7번지 동부시장내 상가 2층 전체
- 특징: 춘천 동부 중심지에 위치하여 생활권 및 교통버스 중심권
- 대법당, 산신각, 공양간, 상담실, 요사채
- 각실마다 냉난방 완비 살림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물포함가 3,000만원

010-9235-751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안동
- 부지: 종교 996㎡. 전체 4872㎡
- 건물 2동 철골주 콘크리트 양옥
  (1) 단층 건물- 117.13㎡
  (2) 2층 건물- 1층 100.82㎡ / 2층 66.03㎡
- 특징 : 정남향 일조건 최상, 우측 실개천 사철 졸졸
- 작은연못 백련 유실수 다량
- 식수: 지하수, 난방:기름 화목 겸용 보일러
- 포장도로, 보안등 설치
- 삼존불,후불탱화,신중,산신탱화
- 사찰별장, 요양시설,전원주택 최고조건

연락처 : 010-2185-3131

트라우마 사용설명서

마크 엡스타인(정신과 전문의)

〈4〉 정상적인 삶을 향한 질주

"트라우마는 화두… 절망과 대화하라"



미얀마 바간 쉐지곤 파고다에 있는 목조각으로 새긴 파타차라의 이야기.

파타차라의 불행과 절망

파타차라 이야기는 비극적인 죽음이 실제 연속해 일어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모두 우리에게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트라우마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것이 아상이든 실재든 상관없다. 어느 경우든 일상의 절대적인 안정성은 전복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중심 주제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오직 나에게만 일어났다는 느낌'을 다루는 데 유사한 치료법이 선택됐다. 파타차라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평범한 현실에서 분리돼 동떨어졌다. 고통스럽고 외로운 그는 자비로운 이해를 갈구하고 있다.

파타차라의 상실은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파타차라는 코살라국의 수도 사와티의 부유한 상인의 딸이다. 16살이 된 아름다운 딸이 남자를 사귀자, 부모님은 딸의 가출을 우려해 집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파타차라를 7층 꼭대기에 가두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만 하인과 사랑에 빠진다. 부모님이 한 남자들 골라 강제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자, 파타차라는 여종으로 변장하고서 자신의 연인이 된 하인과 함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로 도망친다. 거기서 남편과 조그맣게 농사를 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한 파타차라는 남편에게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 고향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손주를 보면 부모님도 용서하고 받아줄 거라며 남편을 설득했다. 그러나 사로잡혀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남편은 아내의 부탁을 거절했다. 파타차라는 할 수 없이 혼자서 길을 나섰다. 남편도 결국 아내의 뒤를 따랐지만 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파타차라는 고향집에 도착하기 전에 사내아이를 낳았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자 부모에게 돌아갈 명분이 없어졌다. 그래서 다시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얼마 후 파타차라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고,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다. 파타차라가 어린 첫째를 데리고 다시 고향집으로 향하자, 마지못해 따라오던 남편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 도움을 얻지 못할 거라고 아내를 계속 설득했다. 그때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다.

비가 세차게 내리치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울렸다. 초기 진통이 시작되자 파타차라는 남편에게 아이를 낳을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 남편은 아이를 낳을 보금자리를 마련할 요량으로 나무를 구하러 가서는 어린 묘목을 자르려다가 개미집에 숨어 있던 독사에게 물려 죽고 말았다. 파타차라는 폭우 속에서 혼자 둘째를 출산했다. 아침이 되어 남편을 찾기 위해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길을 나선 그녀는, 어느 길목을 돌아서다가 남편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자신을 탓하며 사와티의 고향집을 향해 걸었다.

얼마 후 홍수로 물이 불어난 강에 도착했다. 강의 수위가 허리보다 높고 흐름도 거세 아이둘을 한 번에 데리고 강을 건널 수 없었다. 파타차라는 큰아이는 강둑에 두고, 갓난 아기를 안고 강을 먼저 건넜다. 그 다음, 강둑에 남겨둔 큰아이를 데리러 다시 강을 반쯤 건넜을 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독수리 한 마리 내려오더니 갓난아기를 낚아채서 날아갔다. 파타차라는 강물의 한가운데서, 아이를 물고 가는 거대한 독수리를 넋을 잃고 보면서 통곡했다. 엄마의 통곡 소리를 자신을 부르는 소리로 착각한 큰아이가 엄마에게 가려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강물의 흐름은 거셌고, 아이는 순식간에 휩쓸어버렸다.

파타차라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더 큰 고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청난 트라우마 속에서 헤매던 차였다. 친정집이 있는 마을의 외곽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마을 쪽에서 나오는 사람을 만나 부모님이 잘 지내시는지 물었다. 그 사람은 "아휴, 그 집 말고 다른 집 소식을 물어보세요."라고 말하며, 지난밤 급작스러운 폭우로 그 집이 무너져 내려 그 집 부부와 아들이 죽었다고 했다. 그는 멀리서 피어오르는 한 줄기 희미하고 푸른 연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내가 가리키는 곳을 보면, 화장 장작더미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파타차라의 몰락은 너무 가혹했다. "사람들은 파타차라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 부르고, 쓰레기를 던지고, 흙덩이로 공격했다. 그러나 파타차라는 사와티의 교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걸음을 재촉했다."

한편 붓다는 사와티 근처에서 많은 제자와 함께 머무르고 있었다. 붓다는 "파타차라가 깨달음을 위한 나의 메시지를 이해할 만큼 무르익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보았다. 미친 파타차라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제자들의 만류에도, 붓다는 파타차라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했다.

절망은 한 모습으로 머물지 않는다

"파타차라여,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다시 집중하시오!"라고 붓다는 말했다. 붓다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파타차라는 붓다의 말대로 했다. 붓다의 오래된 제자가 파타차라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었다. 파타차라는 가까이 와서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소상히 말했다. 붓다는 찬찬히 그 내용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파타차라여, 더는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너는 안식처와 피난처가 될 사람에게 왔다. 네가 당한 재난과 재앙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시작도 없는 이 존재의 순환 내내 계속됐다. 사랑스런 아들과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네가 흘린 눈물은 4대양의 물보다 더 많구나."

붓다의 설법에 평온함을 되찾은 파타차라는 승원에서 안식을 찾았다. 얼마 후 파타차라는 편이 앉아서 발을 씻다가 계곡 사이로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이 장면에서 무엇인가가 그녀 내면의 체험과 맞아떨어졌다.

"어떤 개울물은 급하게 바닥으로 가라앉고, 어떤 개울물은 천천히 흘러 더 멀리까지 나아가며, 또 어떤 개울물은 계곡의 비탈길로 온 힘을 다해 달려간다." 어떤 이는 파타차라의 아이들처럼 인생의 여행길에서 아주 급하게 사라지고, 어떤 이는 그녀의 남편처럼 어른까지 살다가 사라지며, 또 어떤 이는 그녀의 부모처럼 늙을 때까지 살다가 사라졌다. 그러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공통적인 운명이었다. "나는 발을 씻으면서 개울물에 대해 성찰했다. 계곡의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개울물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은 홀륭한 경주용 말처럼 잘 집중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자연에서 자신의 현실을 본 파타차라의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깨어났다. 자신이 처해 있는 안타까운 상황과 가슴을 심하게 짓누르는 격한 슬픔에도, 그녀는 현실의 본질을 깊이 바라보며 자신이 받은 모든 상처와 모욕, 천대를 있는 그대로 흘러가게 했다. 파타차라는 여전히 매우 슬프고 비탄에 잠겨 있었지만, 아잔 차가 깨진 유리잔을 보고 깨달은 바를 계곡 아래로 흐르는 개울물을 보고서 깨우쳤다. 물론 유리잔보다 가족이 소중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연의 섭리와 싸우지 않았다. 파타차라의 트라우마는 그녀를 좁은 데 가두기보다는 오히려 활짝 열어버렸다.

절망을 배려하고 보살피면
스스로 그 모습 드러내

고통의 감정 있는 그대로 볼때
실상 발견하고 절망은 질적 변화

태초부터 있던 트라우마는
깨달음 성취하는 데 도움

자신의 불만족을 성찰하고 생로병사에서 해탈하는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는 중에, 붓다는 우연히 중요한 진리를 만났다. 붓다는 파타차라처럼 끔찍한 상실을 경험한 사람뿐 아니라, 그런 상실은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척하는 데 온 힘을 쏟는 사람들과 함께 이 진리를 수행했다. 붓다는 "너는 안식처와 피난처가 될 사람에게 왔다"라고 파타차라에게 말했다. 그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흘렀다. 그것은 비극에 대처하는 우리의 조화롭고 넉넉하고 따뜻한 공감의 자세다. 비로소 파타차라는 그 자세를 갖추고 자신의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였다. 오늘날 정신분석가는 이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중 한사람인 마이클 아이젠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만약 어떤 사람의 감정 상태가 절망이라면, 절망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사실보다 그 절망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그 절망을 배려하고 보살필 때, 절망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며 자기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러면 절망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지속하면, 그 절망의 속성이 변하는 것을 속속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절망은 한 모습으로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절망이 한 모습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아주 진부하게 들린다. 그렇지만 이 말은 무엇인가 심오한 것을 내포한다. 파타차라는 자신의 눈앞에서 계곡으로 흘러들어 가는 작은 시냇물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 시냇물은 그녀의 눈물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트라우마가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자연법칙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붓다의 말처럼 트라우마는 태초부터 있었다. 이 여인은 이제 더는 일상의 절대적 안정감을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울물에 대한 깨달음은 비통한 슬픔의 절대성, 오직 자신에게만 그런 슬픈 사건이 일어났다는 느낌에서 그녀를 해방시켜주었다.

파타차라는 붓다가 권유한 마음챙김을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병리적인 현상과 연결 짓지 않고 극복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고통과 대화하고 고통이 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온몸으로 "존재의 밑바닥에 놓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체험한 것이다. 그리고 파타차라와 그녀의 가족은 모두 이 '존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파타차라는 이런 실상을 발견하는 과정 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절망은 질적으로 변화했다.

파타차라 이야기가 연인과 함께 충동적으로 도망치려는 젊은 여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활용됐다는 사실이 걱정스럽긴 하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더욱 더 깊은 목적이 있다. 파타차라의 고통은 너무나 격심하고, 상실은 너무나 비통하다. 그럼에도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경탄할 만한 일이다. 그녀에게 붓다의 설법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었다. 파타차라가 개울물에 대한 성찰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자신의 트라우마보다 더 도움을 주는 것은 없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트라우마 사용설명서〉(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

도무지 잠이 안와 !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 푹자지 못해 !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쪼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어린이 마음거울

윤지원 엮음(조계종 포교원장)

어린이는 우람한 나무가 될 새순



나는 우리나라의 꿈나무예요

I am the future of my country.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끊임없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얼마나 무서워질까?"

아동 문학가이며 우리말 연구가인 이오덕(1925~2003년) 선생님의 말입니다. 어린이는 아직 힘없고 약하지만 가능성은 누구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어린이를 꿈나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가능성 때문입니다.

어린이란 말과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1899~1931년) 선생님은 1923년, 한 잡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린이는 풀에 비교하면 싹이요, 나무와 비교하면 순인 것을 알자. 어린이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광명도 희망도 없는 것을 깨닫자."

옛말에 집안이 잘되려면 세 가지 소리가 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일하는 소리요, 또 하나는 책 읽는 소리이고, 또 하나는 바로 어린이의 웃음소리입니다.

어린이는 한 집안의 기쁨입니다. 아직은 연약한 새순이지만 언젠가는 우람한 나무로 자라 우리나라의 튼튼한 기둥이 될 보배입니다.

생각해보아요

* 방정환 선생님은 왜 어린이를 싹이나 순에 비교했을까요?
* 만약 어린이가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 여러분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나는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훨씬 예쁜 사람이에요

I am beautiful inside and outside.

건강보험 제도는 온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줍니다. 평소에 보험금을 조금씩 걷었다가 아플 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발판을 놓은 사람은 교육가이자 사회운동가였던 채규철(1937~2006년)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1960년대부터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1911~1995년) 박사와 함께 '청십자의료협동조합'을 이끌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조금씩 걷었다가 병이 나면 치료해주는 제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활발히 활동할 때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교통사고로 할아버지가 탄 차에 불이 나면서 온몸에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얼굴 전체가 일그러졌고 한쪽 눈과 양쪽 귀, 두 손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샘이 말라서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크게 낙담했지만 현실을 이겨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6개월 동안 27번의 수술을 받으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퇴원한 뒤에는 청십자운동과 장애인을 위한 활동에 더 열심이었습니다. 정부는 청십자의료협동조합의 활발한 활동을 보고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 온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주었습니다.

1986년에는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연학교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그러진 얼굴이 흉측하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면 거지로 오해받고 쫓겨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당당했습니다.



"내 몸이 이래봬도 무지 비싼 거야. 수십 명이 달려들어 만든 걸작품이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이 안 간 데가 없어."

27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던 힘든 과거를 두고 우스개를 부린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름다우면 자기 자신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이 아름다우면 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기 좋게 바꿀 수 있습니다. 채규철 할아버지가 그 사실을 몸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채규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읽고 느낌을 말해 보아요.
*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 마음을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언제나 자신감 있게 행동하겠어요

I will always try to face things calmly.

미국의 발명가이자 사업가인 에디슨(Thomas Alva Edison, 1847~1931년)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학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10대에는 기차 안에서 간식, 신문, 채소 등을 팔았고, 전신 회사에 들어가서는 몰래 실험하다가 황산을 흘려 해고를 당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도 에디슨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끝임 없는 노력과 실험으로 수많은 특허를 받았으며 사업적인 수완을 발휘해 회사를 크게 일구었습니다.

우리는 에디슨을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는 1퍼센트의 영감과 99퍼센트의 노력으로 탄생한다."는 말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디슨의 성공 요인은 노력뿐만이 아닙니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과 자신감이 에디슨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신감이 성공 비결이다."

"미래에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앞으로 나가라."

이 말들도 모두 에디슨의 경험에서 나온 가르침들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에 대한 믿음은 원래의 능력보다 큰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자신만만한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입니다. 자신감은 좋은 결과를 일궈낼 수 있지만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에디슨의 성공 비결은 자신감뿐이었을까요?
* 여러분은 자신감이 부족해서 실수한 일이 있나요?
* 사람들은 왜 자신감이 부족한 것일까요?

이 글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www.hyunbulshop.com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칠성상회 02-879-2007
무료배송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교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액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화환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올 겨울 따듯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아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절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

모든 것은 이 허수아비가 하는 것이 아니니 주인공에 놔라

불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질문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법을 배워야 하는지요? 그리고 불법에 비추어 볼 때 인생은 무엇이며,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답변 우리는 불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를 모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고, 인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해 줍니다. 즉 불법은 우리의 인생에 목표를 밝혀 주고 길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것은 부자유하고 그나마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아무도 원치 않는 완전한 무(無)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인생이란 길어야 백 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때의 영화도 인생이 끝나는 때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막막한 허무감에 대해서는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인간은 누구나 다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 처자, 친지, 지인(知人)들도 자기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란 오직 자기 혼자서 감당해야만 할 짐입니다.

그런데 죽음만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죽음으로 대표되는, 삶에 있어서의 온갖 고통과 번뇌도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구든 자기 혼자서 그것을 견디거나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의 이웃이나 벗들, 가족들이 나의 고통과 번뇌를 덜어 주기도 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자기 자신의 짐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산다는 것을 고(苦)라고 하셨습니다. 고란 사실 우리가 가장 즐겁고 기뻐할 그때에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역사상의 수많은 현인들이 깊이 느껴 온 인생의 밑바탕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남긴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그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생의 그런 실제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성취해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취된 삶은 고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이고 영원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고이며, 인생의 목표는 그 고로부터 벗어나 부처를 이루어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한 부처님의 능력

질문 경전에 보면 "나는 성인 가운데 다시 성인이며, 일체 세간의 아버지이니라. 이 삼계는 모두 나의 소유이고, 그 가운데 중생 모두는 나의 자식이라. 나만이 능히 이들을 구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보잘것없는 중생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능력은 제가 흉내도 낼 수 없는 차원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지전능한 부처님의 능력을 저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낼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일체 아니 되시는 게 없고 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평발 하나로써 모두 디뎠다는 것을 표현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현재 이렇게 나와서 이 세상을 다, 여러분을 다 건졌느니라 하는 뜻에서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고정됨이 없이 공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자리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항상 같이 있느니라, 평등하니라 하는 뜻에서, 나오셔서 휘휘 둘러보신 겁니다. 일곱 발자국을 디딘 것은 그 평등한 실천궁행이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빼놓고 무슨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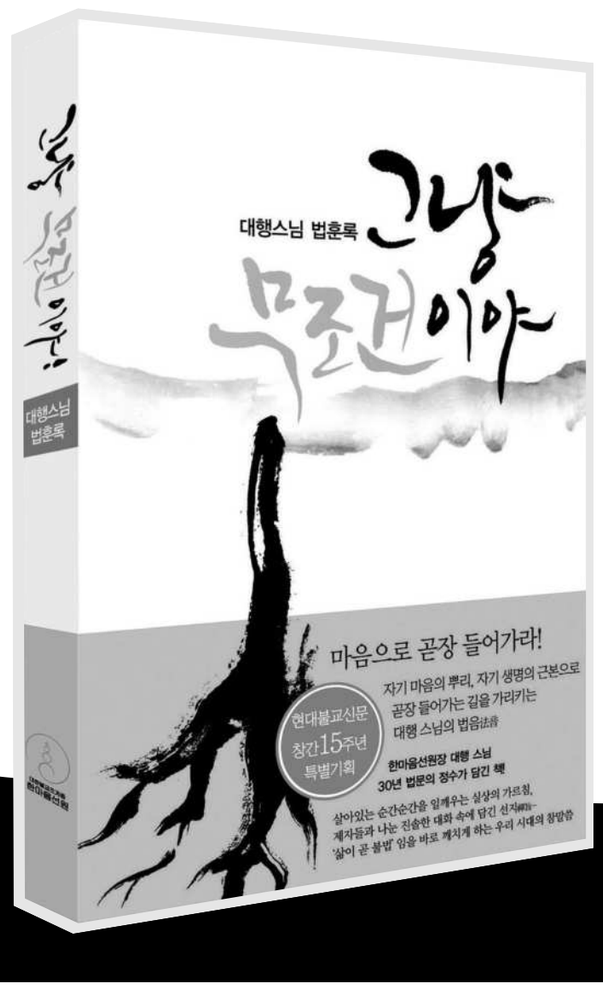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인간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므로 부처 될 가능성이 99%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좋고 나쁘고 더럽고 깨끗하고를 알고 평등한 진리도 알기 때문에 99% 부처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 이하의 생명들도 청각이나 시각이나 후각이 아주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물에서부터 구름으로, 안개로, 가스로, 복사체질로 변해 가지고 시각 청각 후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것은 부처님의 뜻도 있지만,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기 한생각에 중생들이 모두 건져졌느니라, 이러셨습니다. 왜 건져졌느니라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새록새록 생각을 낼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진리는 평등하고 예전에도,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진리는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먹어 보지 않고 해 보지 않고 보지 못한 것은 생각도 안 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셔서 우리의 참스승으로서 우리한테 설하신 그 뜻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이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바로 불제자의 가치가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분별한다면 불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벌레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벌레의 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 마음으로 분별하지 말고 침착하게 놓으세요. 모르는 사람을 본다면 과거에 내가 모를 때의 그 모습으로 보시고, 아주 차원이 높은 사람을 본다면 바로 배우기도 하고 '바로 내 마음속의 주인공 안에서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뜻을 바로 알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주인공에 감사하게 놓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거를 봐도 높게 보지 말고' 하는 것은, 저 부처님도 내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도 내 마음이요 부처님 생명도 내 생명이니 항상 위로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리드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림살이하는 데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을 기르는 거와 같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뜻이 그런 거죠. 그러니 위로 부처님을 모시는 거하고 아래로 중생들을 이롭게 리드해 나가는 것을 싸잡아서 나는 주인공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주인공! 어떠한 거든 높게 두지도 않고 낮게 두지도 않고, 또 주인공 안에는 일체제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말려 놓고 침착하게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진짜 참선

☞ 29면에서 계속

불 일체 중생들이 다 들어 있으니까, 항상 같이 혼합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정된 게 없이, 붙들어 맨 게 없이 말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초가 단단히 돼야만 이 뜻을 알겠기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란 이 우주 전체의 근본이며 그 근본이 인간의 마음에 직결돼 있다 이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모두가 그러하니까요. 그래서 공생(共生)、공용(共用)、공체(共體)、공식화(共食化) 하고 돌아가고 있는 사실이 진리니까요. 그리고 생활이 과학이니까요.

그래서 자기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 놓아야 하는 겁니다. 병이 났어도 악업 선업이 한데 뭉치고 어머니 아버지의 몸을 받아서 이렇게 뭉쳐진 몸뚱이니까 내가 산 것대로, 인연을 지은 것대로 천차만별의 모습을 해 가지고 악업 선업이 뭉쳐서 나왔으니,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라면 거기에서 해결을 하게끔 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믿고 거기다가 맡겨 놔야 되는 거죠. 아파도 거기다 맡겨 놓으시고 거기서 밖에 해결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기쁜 생각이 있으면 '아! 감사하구나.' 하는 뜻을 가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아신다면 일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악업 선업으로 뭉친 게 있어서 수없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놓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조금만 해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화가 불끈불끈 일어난다면 그게 화탕지옥에 속하는 겁니다. 보기만 하면 싸우고 아수라장이 되는 것도 바로 지옥입니다, 아수라지옥. 그러면 지옥을 어디서 갖다 주느냐. 안에서 일어나고 바깥에서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놓지 않는다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영계나 유전성, 조상이 잘못됐다거나 하는 문제 등등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다 보이지 않는 데서 들이닥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안에서 인과응보로 인해서 일어나는 걸 또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유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에서 나오고 바깥에서 들어오고 이러니 그것을 다 해결을 하고 내가 뜻을 이루려면 그렇게 놓지 않고는 아니 됩니다.

오온개공과 오분향례에 대해서

질문 저녁예불에 참석하면 오분향례와 반야심경을 같이 독송하게 되는데, 반야심경의 내용 중에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안다면 일체 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들었습니다. 오온개공과 오분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답변 설법을 들으실 때에, 설법 아닌 게 없지만 해당치 않은 말이라고 해서 허술히 듣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귀머거리가 천둥 번개가 치는데 딴 사람이 천둥 번개 친다니깐 천둥 번개가 어딨느냐고 고집을 부리더랍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누구나가 다 이 오묘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해가 가게 하려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질을 방편으로 써서 얘기할 수밖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부합을 시켜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에는 쓰고 배우면서 공부했지마는 지금은 쓰고 배우고 읽고 그래서만 되는 거는 아닙니다. 한생각을 하고 그것도 더불어 같이 한생각을 해서 우리가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음 한생각에서 탐구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 자체가 고정됨이 하나도 없기에 '이 사대(四大)와 세상, 오온(五蘊)이 다 공(空)한 줄 알게 된다면….'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알게 된다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 이 뜻을 이미 몇천 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게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참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냥 '이건 부처님 앞에 정성들이는 소리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 번 생각을 하면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향' 하면은 우리 스님네들만 계를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스님네들과 더불어 같이 있는 거지 스님네들 따로 있고 여러분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향 한다면은 질서를 문란치 않게 하는 마음과 더불어 모든 것을 정도에 넘치지 않게 하는 것. 일체 만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생활면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한생각 뉘우치면서 남을 원망하지 않아야죠. 가정에서나 내 몸으로나 밖으로나 모든 것이 계율에 어긋난 살림살이라면 그 살림살이는 벌써 어느 한 구석이 터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향'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를 말씀을 하실 때에 끄트머리에 꼭 다 향, 향, 향, 향, 향 했습니다. 왜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한지 아십니까? 향이라는 것이 어떠한 데에 쓰는 것이 향이냐. 우리가 향을 피우는 것만이 향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아름다운 향을 피우는 것. 종합해서 일체 만법을 행하는 데에, 마음 쓰는 데에, 뜻을 행하는 데에, 뜻과 행과 말이 한데 떨어지지 않는 행의 계율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향' 한 것입니다.

'정향'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사대와 오온이 전부 공한 줄을 알았다면은 일체 만법의 마음을 내며 일체 만법의 행을 하며 일체 만법의 눈을 뜨고 빛을 보며 또 일체 만법의 염파를 들으며, 또는 우리가 몸을 움죽거리면서 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내며, 뜻을 가지는 모두를 겸해서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그 주인공 자체, 그 자신의 실상, 근본을 믿고 거기에다 일임해서 맡기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물러서지 않는 것을 말해서 '정향' 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나로부터 이 세상이 생긴 거지 나 없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바탕인 나의 주인공의 그 뜻을 가지고 일체 만법의 마음을 내면서 활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모든 것이 공했다는 걸 알고, 거기다가 놓고 일임하고 믿고, 거기서 전부를 다 지켜볼 수 있는 오관을 통한 감각, 이것을 지켜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 공부하는 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또 '혜향' 했습니다. 혜향이라는 것은 청각이나 시각이나 또는 미각이나 촉각, 지각을 한데 합쳐서 마음 근본에 모든 것을 놓고, 돌아가는 그 자체를 가만히 안팎으로 유(有)의 법이나 무(無)의 법이나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지혜롭고 능동적이게 마음을 쓰게 뒷받침을, 정향의 뒷받침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마음에 거기다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혜향' 한 것입니다.

'해탈향' 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자에부터 수없는 억겁을 거쳐 오면서 진화되고 창조되고 또 창조되고 진화돼서 여기까지 올라온 인간이지마는 아직 50%가 모자라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모든 것을 주인공에 일임하고 맡기고 믿고 지켜보면서, 모든 것은 이 허수아비가 하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억겁에 걸친 업의 과보라든가 억겁에 대한 죄업이 얼기설기 다 묶어진 것을 풀게 하는 것이 해탈향입니다. 그러니깐 억겁의 업보가 풀리는 그 자체가 바로 '해탈향' 의 뜻입니다.

그러면 '해탈지견향' 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모두를 놓고 항상 밝아서 유의 법, 무의 법이 같이 밝아서, 내 생명의 근원과 마음내는 것이 항상 밝으니까, 이 육신도 밝게 행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다 밝아서 통달하고 보니깐 무엇이 거기에 걸릴 바가 있겠습니까. 걸리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해탈지견향'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예불에 이 오분향을 스님네들이 항상 잊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그것은 또 스님들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뜻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이 아리송해서 '그거 참 이상해. 우리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알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법당에서 항상 오분향(五分香)을 합니다. 항상 그것만 잘해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만 잘 알아도 우린 성불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 어떠한 문제든지 나로부터 이 세상이 생긴 거지 나 없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내 바탕인 나의 주인공의 그 뜻을 가지고
> 일체 만법의 마음을 내면서 활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순탄한 삶을 살아가려면

질문 십여 년이 넘게 절집에 드나들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도 업이 많아서인지 일이 꼬이고 꼬이고 해서 단 하루도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밝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변 생각해 보면 한 철 요렇게, 한 생을 요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해를 다니면서 공부했다거나 짧은 시간에 내가 공부했다거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해를 공부해도 '정(定)' 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뭐, 10년 20년이 가도 소용없고, 소용없는 건 아니지마는 더디다 이거죠. 그런데 몇 달 안 됐어도, 몇 해가 안 됐어도 정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더디고 빠르고가 없다는 얘깁니다. 오래 배웠고 늦게 배웠고 이것이 없다 이 소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음 안에, 마음이라는 것은 이름이지, '이름 없는 마음' 여기에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름해서 방편으로 부르는 겁니다. 항상 얘기해 드리지만,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서, 거기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연방 그냥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도 어처구니없이 나쁜 일로 돌아가게끔 자꾸 만듭니다, 그렇게 업보에 입력이 돼 있어서. 지금 현실에서 아무리 착하게 행을 잘하려고, 말도 잘하려고 하지만 앞서 입력됐던 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빗나가든 빗나가지 않든 무조건 거기다가 맡겨 놓는다 이겁니다. 무조건 맡겨 놓는다. 믿지 못하면 맡겨 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고 거기다 맡겨 놓는다면, 쉴 사이 없이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자동적으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그 어마어마하게 입력됐던 팔자 운명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입니다.

항상 해 오는 말이지만, 저에게는 절절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주 지극하게, 눈물이 뼈에 사무쳐 나오리만큼 안타깝습니다. 어찌 그렇게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믿지 못할까? 어찌 그렇게 과거로부터, 수억겁 광년 전으로부터 자기를 끌고 온 장본인을 믿질 못할까?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이렇게 진화를 시켜 가면서,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한 것대로 끌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죠. 주인공 원망할 수도 없지. 주인공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아, 태양이 '너 잘못하고, 너 잘하고' 이런 거 말했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잘못돼서 행을 잘못하거나, 마음을 잘못 쓰거나 이런 것이 속으로부터 자꾸 나오면 그것을 '이러면 안 돼!' 하고 거기다가 그냥 맡겨 놓는 거죠. 맡겨 놓고 침착하게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진짜 참선입니다.

나는 어떤 땐 차를 타고 가다가도 슬그머니 이 속에서 눈물이 복받칩니다. 여러분을 생각만 하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남인데, 자기가 아닌데도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겠지만, 우리가 수없이 변질돼서 돌아갈 때, 이것이 됐다가 저것이 됐다가, 이 부모가 됐다가 저 자식이 됐다가, 이렇게 사생(四生)의 모든 천차만별의 생명이 뒤바뀌지면서 돌아갔을 때는 어떤 것이 내 자식이고, 어떤 것이 내 부모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렁이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디다. 뭐, 풍뎅이도 그렇고, 가재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어떤 거를 막론해 놓고 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남녀가 있고요. 그런데 그 남녀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연방 변질이 되고 연방 바뀌어서 돌아가니까 어느 때 어떻게…. 그 행복도 잠시 잠깐이죠, 알고 본다면. 그러니 그 돌아가는 수레바퀴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 종 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 낱개 5,000원 • 2개 SET 9,000원 • 3SET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극단 벗어난 中道에 화해·공존 있다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연구센터 교수

"1월 7일 프랑스 풍자전문 주간지인 '샤를리 엡도'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총격 테러를 당해 1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당했다."

이것은 팩트다. 그리고 약 1주일이 지났다. 간간히 들려오는 외신은 물론이고 이번 사건을 전하는 국내 언론의 관련 기사들을 훑어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것 중의 하나가 사건의 본질을 '이슬람 근본주의VS표현의 자유'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대개가 그렇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 대개의 이야기가 이번 사건에 대한 본질을 희석한다는 점도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다.

풍자전문 주간지인 '샤를리 엡도'가 표현의 자유를 대변하고 지켜온 것은 맞는지 우선 물어보자. 먼저 필자는 무슬림도 아니고, 이슬람 근본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은 더욱 아님을 밝혀둔다.

대부분의 언급들을 보면 '샤를리 엡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샤를리 엡도'는 성역 없이 여기저기 다 두들겨 패는, 그리고 정치적 포지션으로 보자면 프랑스 내 무슬림에 대해 우호적인, 무슬림 차별을 주장하는 프랑스 내의 극우주의와는 아예 대척점에 서 있는 집단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그리고 그러한 '샤를리 엡도'에 대한 이슬람 근본주의자의 테러 공격은 아이러니하다고 평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접하게 된 '샤를리 엡도'의 만평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부터 생긴다. 단적으로 묻고 싶다. 이슬람의 예언자가 이슬람 근본주의의 표상인가. 답은 그렇지 않다가 맞을 것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렇다. 불교 근본주의자가 극단적인 테러 공격을 감행했다고 치자. 그러면 부처님이 극단적인 테러공격을 감행한 그 근본주의자인양 풍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백번 양보해서 그들이 속한 집단 전체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불교도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

극단적인 테러공격을 감행한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지탄의 대상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지만, '샤를리 엡도'가 표현의 자유를 내걸고 '표현의 자유'로 용인 받을 수 있는 만평을 게재한 것이라고 수긍하기에도 그리 쉽지 않다. 꼭 '샤를리 엡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자행되는 언론의 폭력 역시 폭력이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샤를리 엡도'가 성역 없는 풍자와 비판을 내세우는 '특별한 언론'이라고 해서, 그들의 풍자와 비판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성역 없는 풍자와 비판을 내세우는 특정한 언론이기 때문에, 그들이 속한 서구세계와 대립하고 있는 이슬람 세계에 대한 풍자는 더욱 조심스러웠어야 하는 게 오히려 그 '특별한 언론'다운 태도일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묻고 싶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이슬람 세계만의 산물인가? 아니면 이슬람 근본주의 출현과 성장과 지속에 서구세계가 구조적인 방조를 행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감안되었던 것인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만 그들의 풍자만평에 분노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테러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다수의 이슬람 역시 분노하고 있는 것인가?

부처님의 계율 제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부처님의 계율은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대상과 행위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막연히 포괄적인 행위에 대한 요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도(中道)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도의 가르침은 극단 사이의 막연한 중간 지점을 요구하지 않는다. 극단을 벗어난 올바른 길을 요구한다. 극단을 벗어난 올바른 길을 주장하고 요청해야 할 때, 만약 한 가지 행위로 그 사람의 면모 전체를 비난한다면, 그 올바른 길이 올바르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요구된다면, 그것은 이미 자성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이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야만, 그래야만 그것은 화해와 공존으로 이어지는 길이 된다.

서구 세계에서 서구 세계 바깥의 이슬람은 어떻게 말해도 소수이다. 그리고 언론은 다수의 권력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수에 의한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화해는 불가능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 내에서의 소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침일 것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조계종 혁신이 한국불교 혁신

'소통과 화합, 혁신으로 종단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의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올해 종무 운영 캐치프라이즈다. 이 같은 기조에 대한 핵심 사업으로는 △종단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지 원조성사업 △공존과 상생, 합심의 불교통일선언 등을 내놨다.

100인 대중공사와 조계사 성역화 사업, 불교통일선언은 지난해부터 준비돼 오던 것으로 올해 그 빛을 보게 됐다. 100인 대중공사에 대해 자승 스님은 "비판이든 견제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문을 활짝 열고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조계사 성역화에 대해서는 "민족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 가치를 재창조해나가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불교통일선언'에 대해서는 공존과 상생, 합심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알렸다.

이밖에도 자승 스님은 화쟁위원회와 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회 갈등과 약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것을 천명했다.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는 풀어할 숙제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100인 대중공사이다. 대중공사에 참여하는 위원의 경우 비판적 의견을 견지하는 세력의 참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미 토론회와 야단법석, 쇄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도출됐지만 이것이 종무행정에 도입되거나 입법화된 사안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지루하게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선학원과의 문제도 올해 조계종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소통과 화합은 모든 기관과 공동체의 중요한 덕목이다. 소통과 화합이 이뤄져야 혁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올해에는 진정한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외국인 노동자 법회 지원 절실

2014년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인구는 약 170만 명에 이른다. 현재 네팔,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등 15개 국가 출신 노동자들이 건축, 제조업부터 농축산업, 어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에 근무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아시아 불교 국가 출신이지만 이들에 대한 기초 정보는 부족했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 포교원 국제전법단과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불교 법당 이용자 대산 외국인 근로자 기초실태조사'를 발간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주민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80%가 불교도였으며, 이중 70%는 자국불교를 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불교와 힌두교는 7%가량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종교생활 실태는 좋은 편이 아니다. 주1회 이상 종교생활을 하는 비율은 42%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65%는 아예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다. 종교기관에 거는 기대도 '종교활동 활성화(45.5%)'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자국민 대인관계 활성화(13.3%), 한국어 교육(11.5%), 쉼터기능 활성화(8.4%) 등의 순이었다고 한다.

보고에 따르면 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64%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신실한 신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상생활 주기에 적합한 맞춤식 종교활동을 고안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종교생활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불가능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의 제도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는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대, 다문화 이주민을 끌어안을 수 있는 불교의 포용력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발언대

"민족 얼 상징하는 한글 '국보 1호' 마땅"

훈민정음 국보 1호 지정



혜문 스님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훈민정음 국보 1호 지정에 대한 뜨거운 국민적 성원이 10만을 돌파했다. 참여인원은 당초 목표한 10만명을 돌파, 118,405명으로 집계됐다.

'훈민정음 국보 1호 지정 10만 서명운동'은 부실 복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숭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지하고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70호)을 국보 1호로 지정하기 위해 대국민적 참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다.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숭례문이 국보 1호로 지정된 역사가 있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 새해를 맞아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됐다.

이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숭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지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모인 10만 명은 문화재 행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10만양병이 되어 문화재 행정의 잘못을 바로 잡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서명운동으로 훈민정음의 가치도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되길 고대한다.

우리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서명에 참여한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1월 중 '국보 1호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15일 문화재청에 공식 접수했다. 문화재청이 국보 1호 문제가 공론화 되면 숭례문을 국보1호에서 해지할 수도 있다고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국보 변경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국보 1호 변경은 정권마다 논의돼 왔다. 하지만 국민 혼란을 이유로 무산됐다.

광복 70년을 맞은 지금이 국보 1호를 변경할 적기인 것이다. 국보 1호는 단순한 문화재가 아닌 민족의 상징이자 얼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 한민족 정체성의 근간이 된 훈민정음에 대한 국민들과 불자들의 더욱 뜨거운 관심이 필요하다.

지하철 '풍경소리'는 달리고 싶다

철거 위기 풍경소리



정우식
前 대한불교청년회장

지하철 문화 포교를 이끌었던 '풍경소리'가 철거 위기에 내몰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2012년에는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서울지하철 불편사항 개선사업' 일환으로 '풍경소리'와 '사랑의 편지'를 모두 철거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된지 2년만에 벌어진 일이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지난해 12월 26일 풍경소리에 공문을 발송해 철도 역사 내 풍경소리 게시판 무상 승인기간이 종료됐다고 고지한 후 1월 7일까지 광고계약 체결 의사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철거하겠다고 한다. 게시판당 광고비로 1만 6천원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 언론 기사를 보니 광고비가 부과될 경우 년간 1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영세한 불교 포교단체는 사실상 그만두라는 이야기다.

풍경소리의 게시판은 단순 포교도구가 아닌 1999년부터 10여 년을 삭막한 지하철을 일상의 감동과 지혜 담은 글과 그림으로 장식해 온 감성 문화콘텐츠였다. 이미 전국의 지하철역과 철도역 등에 2천 6백여 개의 풍경소리 게시판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풍경소리의 그림들 역시 기성 판화 작가들의 활동의 장으로도 활용돼왔다.

이 같은 공공성이 다분한 문화사업을 코레일은 돈으로 본 것이다. 지하철과 철도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라는 타이틀을 달아준 것이다.

불교의 '풍경소리'와 기독교의 '사랑의편지'는 성현의 말씀들을 아름다운 글과 그림으로 전해왔다. 공공성에 부합되는 사업일뿐만 아니라 더욱 장려돼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이런 공익사업을 자본으로 환산한 코레일의 처신에는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코레일이 공공성을 제1의 가치로 여긴다면 잘못된 판단을 거두고 철거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발상의 전환과 시정을 요구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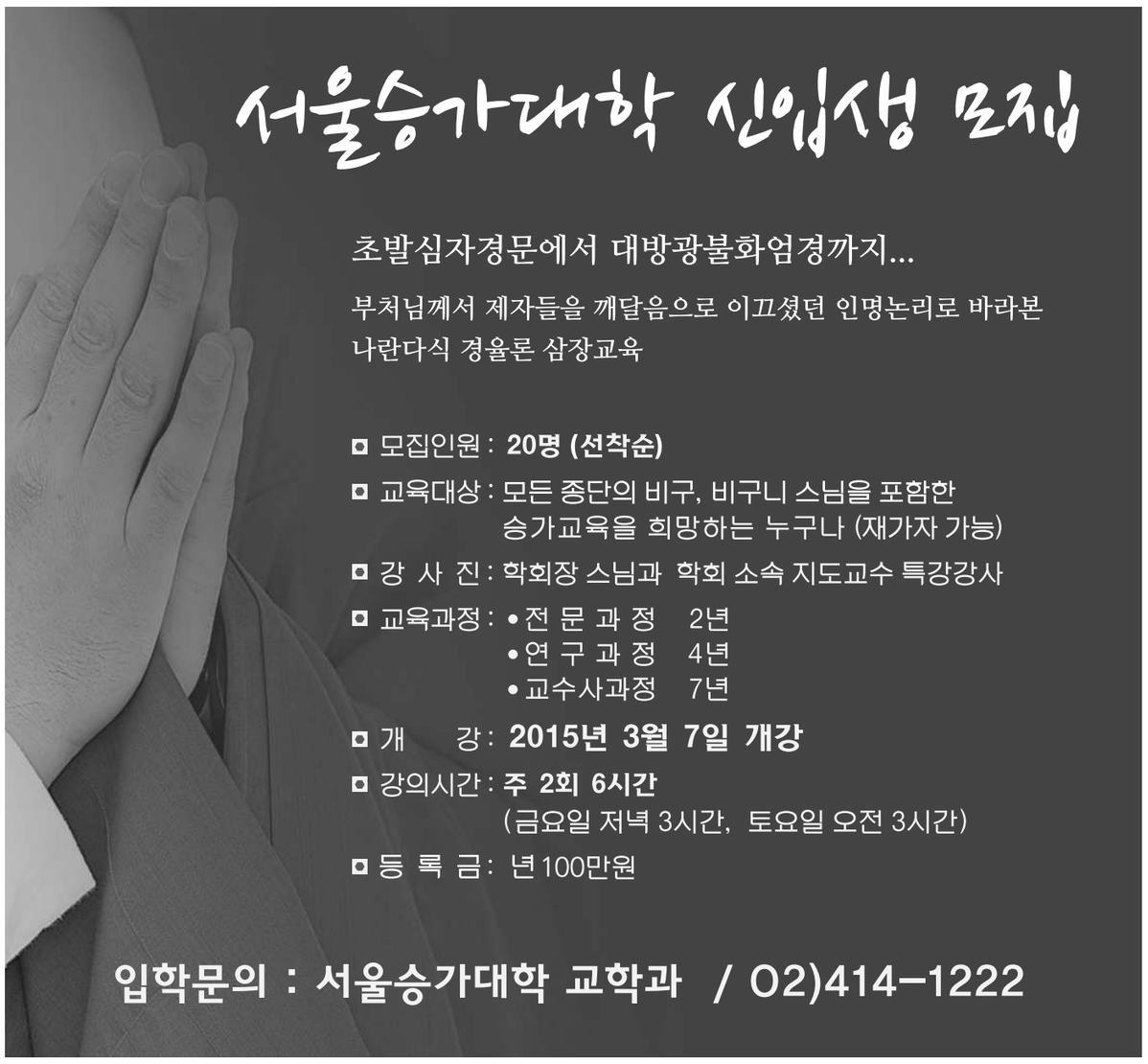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 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전념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괴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隨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짯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짯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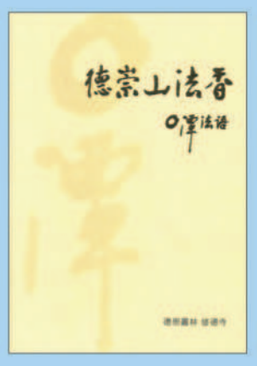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 · 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천진불 원담스님의 사자후



덕숭산 법향
(원담법어)

수덕사 엮음 | 566쪽 | 188*257 | 30,000원 | 여시아문 펴냄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故 원담(1926~2008) 선사의 1980년 하안거 결제부터 20여년 간의 법어를 모아 엮은 선(禪)법문집. 법상에 오른 노 선승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스님의 어투가 최대한 살려진 활구법문(活句法門)을 접할 수 있다.
평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해온 선사의 활발한 선지(禪旨)와 고준한 법(法)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선어록이다. 원담선사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중흥시킨 경허,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 평생을 참선과 공부에 매진한 선승이다. 특히 12살의 나이부터 만공 스님을 시봉, 스님의 열반(1946)까지 옆에서 지킨 마지막 법손(法孫)으로서 '천진불(天眞佛)'로 일컬어졌으며, 서예에 능해 당대 최고의 선필(禪筆)을 남긴 고승이다.

"무정설법이 별것 아니니 목전에 역력하여 다만 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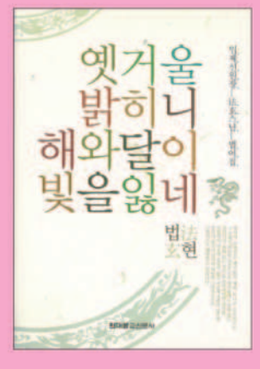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대원스님 지음 | 양장 | A5 | 347쪽 | 13,000원 | 여시아문 펴냄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극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밥먹고 똥 싸고 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심이 진정으로 성성해져서 매(昧)하지 않으며, 그 의정을 그대로 깊이깊이 끌고 나가면, 내가 의식이 없는 세계에 가서도 그 의심 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성성하게 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나 깨어 있을 때나 관계없이 순수하게 성성한 지경에 가면 비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어떠한 경계든 경계에 부딪혀서 뒤집어 집니다. 번신일전(飜身一轉) 즉 몸을 뒤집어 엎어서 한번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비로소 '아! 하고 본인이 깨달아서 알 뿐입니다."(본문 중에서)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방식과 화두 참구법의 핵심을 담은 선(禪)법어집이다.

화두는 분별 없는 마음거울 밝히는 공부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법현 저 | 양장 | 신국판 | 416쪽 | 15,000원 | 여시아문 펴냄

"생사에 대한 분별심은 옛거울(古鏡)의 체와 하나로 같으면서도 그 자체가 허망한 영상으로서 옛거울에는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인 줄 알아버리면 생사를 초월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공포가 없으니 생사의 허망한 그림자로부터 근본적으로 해탈할 수 있다."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선(禪) 법어집이다.
생사를 근본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말세의 범부라도 허다한 분별심이 본래 없는 옛거울의 지혜로 관조하여 화두를 심두(心頭)에서 끊임없이 일념으로 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생사의 뿌리인 분별심을 근원적으로 끊어버리고 의단을 타파하게 된다고 한다.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